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최 종 결 과 보 고 서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목 차

제1부 공적확인위원회 보고서 1

제1장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과정 3

제1절 조사 배경 및 경과 4

제2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제3절 공적확인 경과 10

제4절 쟁점 사안 42

제2장 춘천전투와 심일 중위의 공적 50

제1절 6·25전쟁 초기 전황 및 춘천전투 개관 50

제2절 심일 중위의 전투 중 공적 56

제3장 제기된 의혹 검증 및 분석 81

제1절 태극무공훈장 수여에 대한 의혹 81

제2절 6월 25일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 87

제3절 6월 26일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 91

제4절 기타 쟁점 사안 96

제5절 소결론 104

제4장 결 론 106

제2부 공적확인위원회 보고서 참고자료 108

제1장 기록 문서 110

제2장 구술 자료 365

제1부 공적확인위원회 보고서

(故 심일 소령, 1923~1951. 1. 26)

- 1923, 함경남도 단천 출생
- 1948, 육사 8기 입교 (서울사대 2학년 재학 中)
- 1949. 5. 23, 소위 임관(6사단 7연대 배속, 대전차포중대 2소대장)
- 1950. 5. 4, 중위 진급
- 1950. 9. 21, 美 은성무공훈장 수여
- 1950. 12. 30, 대위 진급
- 1951. 1. 26, 전사(강원도 영월, 추정)
- 1951. 10. 30, 태극무공훈장 수여
- 1951. 11. 11, 소령 추서

제1장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과정

제1절 조사 배경 및 경과

제2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절 공 적 확 인 경 과

제4절 쟁 점 사 안

제1장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과정

6·25전쟁 초기에 적 전차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진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은 사실과 다르며, 그가 '조작된 영웅'이라는 의혹(疑惑) 제기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2016년 6월 17일자 칼럼에서 前 駐越 공사 이대용 예비역 준장(이하 이대용 장군)을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제기된 의혹은 점차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진위에 대한 논쟁(論爭)으로 발전하였으며, 6·25전쟁 참전 용사, 국방부와 육군의 군사(軍史) 연구기관, 언론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가 2003년 이후 실시해 오던 심일상(沈鎰賞) 수여식을 2016년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일부 언론이 이러한 결정을 두고 마치 육군이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의심하는 듯한 보도를 내놓음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조사, 확인 및 해결을 위해 2016년 9월 20일에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이하 공적확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군 내외에서 선발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확인위원회는 참전자의 증언과 문제 제기, 언론 보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의 의견에 대한 검토 등 임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체적으로 자료 조사, 현장 답사, 증언 청취 등을 수행하였다.

공적확인위원회는 10차례 회의를 거쳐 본 사안에 대한 중간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24일에는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본 위원회의 의도와 달리, 이날 공청회는 오히려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진위를 둘러싸고 공적확인위원회와 육군 군사연구소, 이대용 장군을 포함한 참전 용사, 일부 언론 사이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군(軍)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특히 6·25전쟁의 영웅 故 심일 소령의 명예가 실추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공적확인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추가 증언 등을 재검토하였고, 美 육군 군사사 연구기관으로부터 본 사안에 대한 의견 및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실체를 확인 및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대용 장군과 일부 언론, 육군 군사연구소 등이 제기한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진위(眞僞)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절 조사 배경 및 경과

1. 2016년 6월 17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을 인용하여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이 허위 날조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1] 이때 제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일 소령은 육탄 돌격이 아니라 대전차포 1문을 敵에게 넘겨주고 도망갔음
> ② 그 후 보직 해임된 심일은 포병연락장교로 근무하다 1951년 1월 26일 묘향산에서 중공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음
> ③ 후임 연대장이 심일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선의로 전공을 조작하여 훈장을 상신했고, 조작된 훈장 상신서가 정훈자료로 사용되면서 거짓신화가 탄생했음

2. 2016년 6월 말, 국방부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해 이대용 장군과 최보식 기자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본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3. 2016년 7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약 2주 동안 조사한 이후 이대용 장군과 최보식 기자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부족한 반면, 지금까지 알려져 온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은 각종 기록문서와 증언을 통해 '모두 사실로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4. 국방부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사기간이 짧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육군본부에서도 추가 연구토록 지시하였다. 이후 육군본부 직할 군사연구소는 이대용 장군을 포함한 춘천전투 참전 생존자 증언, 국군 제6사단 <전투상보> 등 1차 사료 검토, 1950년대 이후 발간된 공간사 등 2차 사료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5. 2016년 8월, 본 사안에 대하여 약 1개월 정도 자체 조사를 실시한 육군 군사연구소는 자체 조사 결과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대용 장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

6. 국방부는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공적확인위원회를 편성하여 본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2016년 9월 20일) 이에 따라 공적확인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및 토의에 착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태극무공훈장 공적서 등 중요한 사료를 찾아내는 한편, 관련 사료 및 문헌 검토, 기존 증언자료 검토 및 추가 증언청취,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1)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호국영웅의 불편한 진실" (2016. 6. 17)
2) 육군 군사연구소, 〈故 심일 소령 공적 진위 확인 결과〉 (2016. 8. 11)

7. 2016년 12월 2일, 공적확인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 검증을 진행하던 도중,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는 본 위원회의 내부 논의사항을 이용하여 국방부가 '심일 신화를 지키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3] 이때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다.

> ① 교과서에 수록된 심일 신화처럼 심일이 파괴했다는 북한 자주포의 포탑은 뚜껑을 여닫는 구조가 아니었고, 5인의 특공대는 실존인물이 아니었음
> ②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 기록된 날짜와 장소에서 전투는 없었으며, 추천서를 상신한 고문관은 전투를 목격하지 않았고, 함께 있었다는 인물은 군적에 없었음
> ③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7연대 약사, 전투상보, 작전일지, 한국전쟁사, 북한자료에는 심일이 세운 전공 기록이 없었으며, 1978년 제작된 공간사에서 처음 기록되었음
> ④ 육군 군사연구소가 생존자 13명을 면담한 결과 하나같이 심일의 공적을 부정했으며, 심일 공적을 인정한 기존 증언은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그랬다더라'는 傳聞 수준이었음

8. 2017년 1월 24일, 공적확인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본 사안에 대해 도출한 중간 결론을 설명하고, 관련자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공청회에서 본 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의혹 제기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이며, 대신 여러 가지 사료에 의해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확인 및 검증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육탄5용사' 등 일부 사안은 미화된 흔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9. 공적확인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육군 군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참전 증언자의 구술자료도 기록문서와 동등하게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여 평가해야 함
> ② 국내 학자에게 문의한 결과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는 그 자체로는 완벽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③ 춘천전투 목격자 3명을 면담한 결과, 1950년 6월 26일 오전에 소양강 일대에서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음

10.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의혹은 이대용 장군과 최보식 기자가 제기하였으며, 이후 육군 군사연구소가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에 따라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구체적 공적 내용, 훈장 수여 결정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명확한 검증이 필요했다.

3)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호국영웅의 불편한 진실, 그 이후" (2016. 12. 2)

제2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2016년 9월 20일, 공적확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추천 연구위원 1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추천한 각각 3명의 연구위원 등 총 7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 출범하였다. 국방부는 본 위원회의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각각 실무위원 1명씩을 파견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공적확인위원회에 필요한 행정 및 절차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방부 기본정책과장이 간사를 맡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 분	성 명	소속 / 직책	추 천
위원장	온창일	육사 군사사학과 명예교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 위원	김광수	육사 군사사학과 명예교수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	
	이현수	육사 군사사학과 명예교수	육군 군사연구소
	최홍석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노영구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허남성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
실무 위원	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
	김수일	육군 군사연구소 한국전쟁연구과장	

2. 2016년 9월 ~ 2017년 4월, 공적확인위원회가 수행한 세부 활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총	자체 회의	증언 청취[4]	현장 답사	공청회
22회	14회	2회	5회	1회

3.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의혹 제기를 조사 및 확인,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국, 북한, 소련의 공식 기록문서(Official Document)와 구술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였다.

4) 공적확인위원회는 춘천 전투 참전자 중 생존자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는데, 그 대상은 이대용(7연대 1대대 1중대장), 김운한(16포병대대 군수장교), 김장근(16포병대대 A포대장), 심호은(16포병대대 지휘소대장) 등이었다. 한편 육군 군사연구소는 공적확인위원회에 앞서 이대용, 김장근, 심호은, 김운한과 만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이외에 신영진(7연대 1대대 3중대 기관총분대장)과 박경석 준장(예, 육군본부 인사참모차장 역임)과도 면담하였다. 이 중에서 6월 25일에 심일을 목격하거나 만났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대용, 김장근, 심호은이었다.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외에도 7~8명의 생존 참전자와 접촉하였으나, 고령 및 노환으로 인해 이들로부터는 본 사안에 대한 유의미한 증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육군 군사연구소, 2016년 8월 11일 제출 자료)

가. 본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 태극무공훈장 관련 서류, 북한군 제262부대 훈장(훈패) 수여장, 美 제1해병사단 사진 자료 등 중요한 기록문서가 발굴되었다. 공적확인위원회는 새롭게 발굴된 사료를 통해서 본 사안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구체적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실체와 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었다.

구분	문 서 명	작성 시기 (제출 시기)	저자 / 발행처
대한민국	전투상보	1950. 7. (추정)	6사단 작전교육처
	부대역사일지	1950. 7.	16포병대대
	전투상보	1951.	6사단 전사부
	태극무공훈장 관련 서류	1950. 11. ~1951. 7.	6사단, 2군단, 총무처
미국	정보보고서	1950. 8. 1.~14.	美 제8군사령부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	1950. 9.	
	사진 자료	1951. 4.	美 제1해병사단
	포로 심문서	1950~1951	美 극동군사령부
북한	공병 전투 보고서	1950. 6.~ 7.	북한군 제235부대
	훈장(훈패) 상신서	1950. 6.~ 9.	북한군 제262부대
소련	무르찐 보고서	1950. 12. 5.	美 극동군사령부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2001.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나. 한편, 공적확인위원회는 두 연구기관이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구술 자료(자서전, 증언 파일 및 녹취록, 기타 등)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두 연구기관이 제출한 구술 자료는 생산 시기와 생산 기관의 측면에서 다양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 녹취록이 다수를 차지했다.[5)]

5)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근간이 되는 전투 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구술 자료는 참고하였으나, 공적확인 과정에서 이들 자료의 중요성은 낮았다. 육군 군사연구소가 제출한 역대 제7연대장 출신 인사들의 증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증언은 대체로 참전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인 것이었다. 반면 1970년대 후반에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고 주장한 박경석 준장(예)의 증언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비록 그는 故 심일 소령의 전투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1980년대 초에 본 사안을 조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경석 준장(예)이 1980년대 초에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구 분	성 명	소 속	증언 시기	자료명
가족	심기연	심일 소령 부친	1977. 7. 2.	춘천지구전투 증언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지휘 계통	임부택	7연대장	1964. 10. 30.	춘천지구전투 증언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송광보	7연대 대전차포중대장	2016. 6. 27.	전화 면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오봉환	7연대 대전차포중대 1소대	1980. 12. 17.~18.	춘천지구전투 증언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7연대	안태석	2대대 8중대 화기소대장	1977. 6. 27.	춘천지구전투 증언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10. 18.~19.	
	이우상	1대대 3중대 3소대장	1966. 2. 18.	
	송인규	3대대 인사장교	1980. 12. 18.	
16 포병대대	김 성	16포병대대장	1967. 9. 29.	
기타	최득수	7사단 8연대 2대대 선임하사	2016. 8. 29.~ 30.	전화면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생존자	이대용	7연대 1대대 1중대장	2016. 7. 6.	육군 군사연구소 증언록
			2016. 11. 15.	공적확인위원회 증언록
	김운한	16포병대대 군수장교	1966. 5. 20.	춘천지구전투 증언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2016. 7. 7.	육군 군사연구소 증언록
			2016. 7. 11.	
	김장근	16포병대대 A포대장	2016. 7. 18.	육군 군사연구소 증언록
	심호은	16포병대대 지휘소대장	2016. 7. 30.	
	신영진	7연대 1대대 3중대 기관총분대장	2016. 7. 18.	

4. 공적확인위원회는 수집된 기록문서와 구술 자료에 대한 검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료(史料) 사용 원칙을 수립하였다.

가. 첫째, 역사학의 기본 원칙에 따라, 기록문서를 구술 자료에 우선하여 사용하고, 이들 중에서도 국가 및 정부기관, 군대 등에서 생산한 공식 기록문서를 가장 중시한다.

나. 둘째, 수집된 기록문서는 제한된 분량의 1차 사료와 다량의 2차 사료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에는 1차 사료를 2차 사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셋째, 기록문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기록문서에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술 자료를 활용한다. 달리 표현하면, 기록문서를 중심으로 본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되, 기록문서만으로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구술 자료를 활용한다.

라. 공적확인위원회는 구술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구술 자료가 갖는 일반적 약점,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퇴색 및 변형, 주관적 이해관계의 반영 경향, 후세의 학습에 의한 변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 분석과 검토, 비판을 통해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1) 이에 따라 생산 주체와 시기가 상이한 구술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였다.

	사건의 연관성	시간 차 (사건 발생시점, 자료 생산시점)
1순위	사건 현장 목격자의 구술	1960년대의 구술(증언록 등)
2순위	지위계통(사단~연대~중대~소대)에 속한 자들의 구술	1970~80년대의 구술 (자서전, 증언록 등)
3순위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의 객관적 구술	2010년대의 구술 (자서전, 증언 파일과 증언록 등)

마. 본 위원회가 구술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또 다른 사안은 학습된 구술의 문제였다. 1990년대 이후 춘천전투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육군에서 발행한 공간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연구서와 논문, 서적 등이 활용 가능했다. 순수하게 자신의 과거 기억에 의존하여 증언하는 참전자의 구술 자료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참전자는 공간사와 논문 등을 통해 학습한 뒤 이를 자신의 기억과 종합하여 증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술 자료 활용에 특별히 주의해야 했다.

바. 공적확인위원회는 수집된 다양한 사료에 대한 사료비판 과정에서도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료에 의한 검증과 교차 검증(Cross Examination)을 중시하기로 했다.[6]

1) 사료에 의한 검증이란 최대한 사료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Fact)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되, 이 과정에서 가정과 추론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분량의 관련 사료 확보가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진위를 조사, 확인, 검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사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추정이나 가정은 최소화 했다.

2) 사료의 교차 검증이란 어느 하나의 사료에서 발견된 특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상반되는 사료를 찾아내어 전체적으로 정황을 분석한 뒤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확인위원회는 확보된 사료를 반드시 엄격한 사료비판을 거친 이후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료들 사이의 엄격한 교차 검증이 진행되었다.

6) Wayne C. Booth et al., *The Craft of Research*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pp. 73-81; 한국사학사학회 편, 『21세기 역사학 길라잡이』 (서울: 경인문화사, 2008), pp. 107-120; 임희완, 『역사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pp. 56-62.

제3절 공적확인 경과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하여 이대용 장군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 확인, 검증하기 위한 노력은 공적확인위원회의 출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확인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국방부의 지시에 의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가 각자의 연구를 통해 본 사안에 대해 각자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지적하였듯이, 두 연구기관이 본 사안에 내린 잠정 결과가 상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공적확인위원회를 출범시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여 검증할 뿐만 아니라,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지시했다. 공적확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두 연구기관은 그동안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각각 실무위원을 파견하여 공적확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공적확인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이 시작된 2016년 9월 이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의 사전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료들 -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 태극무공훈장 관련 서류, 북한군 제262부대의 훈장(훈패) 상신서 등 - 이 발굴 및 소개되었는데, 이들은 본 사안의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적확인위원회는 본 사안의 발단이 되었던 이대용 장군 등 참전 생존자, 춘천전투 목격자 등과 구술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기된 사안 중 일부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美 육군의 역사연구센터(The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러시아연방군 군사학술연구소(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военной истории) ВАГШ ВС РФ) 등과 접촉하여 자문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조사 및 확인하여 그가 세운 공적의 실체를 밝혀내고, 의혹을 제기한 이대용 장군 등의 주장을 분석 및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가용한 역사 자료와 역사적 방법론을 총 동원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토의와 토론, 논의와 논쟁이 오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때로는 고성(高聲)이 오갔으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공청회 이전까지 개최된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위원들 사이에 주요 쟁점사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1. 공적확인위원회 출범 전 확인 과정

공적확인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및 확인 과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가. 2016년 6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이대용 장군을 인터뷰한 기사가 게재된 직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故 심일 소령 관련 조선일보 보도 검토결과> (2016. 7. 4)를 보고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증언자인 이대용 장군이 "거짓을 일부러 꾸며서 이야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증언자는 당시 인접 중대장으로서 전투현장에서 일부 목격했던 것과 인접 전우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믿고 증언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당시 전투상황, 제6사단 전투상보, 당시 제7연대장, 심일 중위의 대전차포 중대장, 대대 병기장교 등의 증언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 결과, 심일 중위의 전공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음."이라고 결론 내렸다.

나. 그런데 2016년 8월부터 본 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한 육군 군사연구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잠정 결론과 전혀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대용 장군 등 춘천전투 참전 생존자 면담, 각종 전사기록과 문서 검토, 과거 증언록 등을 연구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故 심일 공적진위 확인 결과> (2016. 8. 11)를 제출했다. 특히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대용 장군을 별도로 면담(2016. 7. 6)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처럼 제시된 8가지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일이 자주포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고 분석하였다.

① 심일은 SU-76 자주포를 파괴하지 않았고, 육탄공격도 하지 않았다.
② 자주포는 6월 26일 파괴되었으며, 적 승무원이 스스로 자폭했다.
③ 육탄 5용사는 날조된 것이다.
④ 심일은 보직해임 되어 제16포병대대로 전속되었다.
⑤ 7사단 수색중대장으로 보냈다는 손희선의 주장은 거짓이다.
⑥ 심일은 묘향산에서 전사했고, 안태석이 보고하여 전사로 처리되었다.
⑦ 심일의 어머니를 위해 태극무공훈장을 주기로 했다.
⑧ 이옥섭에 의해 심일의 공적이 알려졌으며, 손희선이 확산시켰다.

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본 사안에 대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의 결론이 상이함에 따라 국방부는 두 기관 간 중재 및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실체 조사 및 확인의 목적으로 2016년 9월 20일 공적확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 공적확인위원회 출범 후 확인 과정

가. 제1차 회의 (2016. 9. 20, 국방 컨벤션)

1) 공적확인위원회는 착수 회의 겸 제1차 회의에서부터 본 사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온창일 위원장은 서두 발언을 통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며, 향후 공적확인위원회는 최대한 객관적 자세와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추호의 거짓도 없는 역사적 진실 그 자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허남성 위원은 6·25전쟁의 영웅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살아있는 영웅' 이대용 장군이라고 언급하며,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향후 공적확인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찾아내어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가) 첫날 회의에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를 대표하는 실무위원(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육군 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장)이 그 동안 각 연구기관에서 조사해 온 바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본 위원회는 두 연구기관의 입장 차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연구기관은 2016년 6월 이후 본 사안을 조사 및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굴, 조사, 연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7]

2) 제1차 회의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육군 군사연구소의 확인결과에 대한 검토>(2016. 9. 20)와 관련 사료를 제출하였다. 이날 제출한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료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송광보 대위(7연대 대전차포중대장) 전화 면담 녹취록, 이우상 중위(7연대 3중대 소대장), 송인규 중위(7연대 3대대 인사장교), 이남호 소령(7연대 작전주임), 안태석 소위(7연대 2대대 8중대 화기소대장), 김운한 소위(16포병대대 군수장교), 심기연씨(심일 소령 부친)의 과거 증언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육군 군사연구소가 <故 심일 공적진위 확인 결과>(2016. 8. 11)를 통해 제시한 8가지 주요 쟁점을 검토 분석한 뒤, '심일 소령이 북한군 SU-76 자주포를 파괴한 사실은 제6사단 <전투상보>, 태극무공훈장 공적 약기,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관련 참전자 증언 등을 통해 사실로 입증되고 있음'이라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는 공적확인위원회에 전투상보 5종, 공간사 7종, 부대사 6종, 전사 교재 9종, 기타 간행물 13종 등 40여 종의 전사관련 기록과 병적 5건, 전과 2건, 상훈 3건, 전속 6건, 전사 3건, 증언록 23건 등 42건의 인사 관련 기록을 제공하였다.

나) 또한 국방부 발행 공간사 등에서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부정하거나 정정하려면, “첫째,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관련자 증언 내용은 교차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셋째, 직접 전투현장에 있지 않았고, 관계된 부대에 소속되지 않았던 이들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억에 따라 증언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했다.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구체적 사료는 육군 군사연구소가 사용한 사료, 즉 이대용 장군 등 참전자 증언, 기존 공간사, 과거 채록된 춘천전투 참전자 증언 녹취록 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달리 표현하면, 두 연구기관이 동일한 사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사료는 거의 유사했으나, 서로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4) 공적확인위원회는 두 연구기관이 사용한 사료의 양과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론에 도달한 이유가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가)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대용 장군을 포함한 춘천전투 참전 생존자(김운한, 김장근, 심호은, 신영진 등) 4~5명으로부터 최근에 채록한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본 사안을 조사, 확인, 검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기록문서 중에도 『청성약사』나 『한국전쟁사』(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등 2차 사료를 중심으로 본 사안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나) 반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공식 기록문서와 기존 공간사를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되, 구술 자료의 경우는 최근에 채록된 증언보다는 1960~1980년대에 채록된 증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특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춘천전투 당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은 이대용 장군이 최근에 주장하는 증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신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관련자들의 당시 증언, 혹은 과거 증언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5) 공적확인위원회가 임무를 시작하던 2016년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본 사안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기록문서는 극히 제한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가 본 사안을 조사 및 확인, 검증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다. 즉, 두 연구기관이 상반되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록문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가)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들 중에서 1차 사료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1950년 작성 추정),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1950),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1951) 정도이다. 육군본부 전사부가 1951년에 제작한 <육군본부 작전일지>도 1차 사료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관련된 내용과 기술은 제한적이었다. 한편 6·25전쟁 중 북한군에 파견되어 있었던 소련군 군사고문단장이 1951년에 작성한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001년 번역 발간)는 춘천전투의 전개과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문서이다.

나) 본 사안을 검토 분석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2차 사료로는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육군전사』 제2권(1953)과 『6·25사변사』(1959) 등 공간사와 제6사단이 발행한 『청성역사』(1955) 등이었다.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국방부 공간사 『한국전쟁사』 제2권(1968)는 1968년에 발간되었으며, 이는 차후 발간된 공간사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최근에 발간된 공간사에도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6)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공식 기록문서의 내용에서는 몇 가지 혼선이 발견되었다. 가장 빠른 시점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는 6월 25일 전투의 전과를 '적 전차 2대 파괴, 1대 노획'으로 기술하였으나, 적 전차를 파괴한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1951년에 작성된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는 개전 첫 날 파괴된 적 전차를 '2대'로 기록하였고, 적 전차를 파괴한 주체를 '我 대전차포 중대장'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심일 중위의 공적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당시 7연대 대전차포중대장 송광보 대위가 여러 차례 "적 장갑차를 파괴한 사람은 심일 중위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1차 사료로 분류된 기록문서 만으로는 심일 중위가 적 장갑차를 파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가) 이처럼 본 사안을 조사, 확인, 검증하는 과정 초기에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공식 기록문서는 제한되었다. 특히 직접적으로 6·25전쟁 초기 춘천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주체로서 심일 중위의 성명과 직책을 명시한 기록문서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참전자의 증언을 포함한 구술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7) 그러던 중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US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Maryland, 이하 NARA로

표기함)에서 발굴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Recommendation for Award - Heroism)'와 '표창장(Citation - Silver Star)'(이하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로 표기함)을 제출하였다.[8)]

가) 그 동안 심일 중위가 6·25전쟁 초기에 적 전차를 파괴하는 전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전공을 근거로 심일 중위에게 일등무공훈장, 즉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바 있다. 하지만 심일 중위가 춘천전투에서 세운 공적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은 일부 참전자와 전문 역사가들 사이에서만 회자될 뿐이었다. 특히 미국이 외국 군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을 그가 세운 어떤 공적에 대하여 수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굴하여 제시한 故 심일 소령의 은성무공훈장 관련 문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군(Record Group, 이하 RG로 표기) 338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1950년 9월 21일에 美 제8군 사령관이 국군 제6사단 7연대 대전차포소대장 심일 중위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전체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는 1950년 9월 1일에 국군 제6사단에 파견된 美 선임 군사고문관 토마스 맥페일(Thomas McPhail) 중령이 작성하여 제출한 추천서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심일 중위는 1950년 6월 26일 오전 10시 경에 "자신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with utter disregard for his own personal safety) 소양교를 도하하려는 적 전차 3대를 직접 파괴"하였다. 맥페일 중령은 비록 자신이 심일 중위의 활약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나, 박철원 대위 등 3명의 조력자[9)]가 있었다는 점 등 심일 중위의 활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라)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는 그 동안 공식 기록문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故 심일 소령의 전투 중 공적을 기록한 최초의 공식 기록문서라는 점에 사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기록문서가 발굴됨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6월 26일 소양교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세운 공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8) 공적확인위원회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서 6월 26일의 전공을 발견함에 따

8) 이 훈장의 공식 명칭은 'Silver Star Medal'이며, 미국이 외국 군인에게 주는 최상위 훈장이다. '은성훈장' 혹은 '은성무공훈장'으로 호칭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이 훈장이 전투 중 세운 전공(戰功)을 근거로 수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은성무공훈장'으로 호칭 및 표기한다. 한편 은성무공훈장과 함께 수여되는 'Citation'은 '표창장'으로 번역하였으나, '훈장 증서' 혹은 '훈장 인정 증서'로도 볼 수 있다.

9) '조력자'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 명시된 "other persons who assisted in the deed or shared the same hazards as the person recommended at time of deed"의 번역이다.

라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기존에 알려진 6월 25일의 공적(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과 새롭게 발굴된 6월 26일의 공적(소양강 전투에서 세운 공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가) 1968년에 발간된 국방부 공간사에 처음 소개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은 6·25전쟁 발발 첫날(6월 25일)에 적 전차를 육탄 공격으로 파괴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공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록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간사의 서술은 국군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의 기록, 송광보 대위 등 일부 관련자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 및 해석한 결과에 의한 것이지, "심일 중위가 6월 25일 오후에 적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나) 반면, 美 군사고문관이 1950년 9월 초에 작성한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는 심일 중위의 이름, 군번, 직책과 전공을 세운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상황, 조력자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

다) 따라서 공적확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기존 공간사 서술의 오류 여부이다. 1968년 공간사에 최초 기술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은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월 26일 소양교 전투에서 세운 공적이 잘못 기술되었을 가능성이었다. 즉, 심일 중위가 공적을 세운 것은 확실한데, 그가 공적을 세운 시간과 장소가 공간사 서술 과정에서 잘못 기술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두 번째는 심일 중위가 6월 25일과 6월 26일에 모두 공적을 세웠을 가능성이었다. 美 은성무공훈장에서 발견된 6월 26일 공적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6월 25일의 공적은 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와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 다수의 구술 증언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심일 중위가 이틀 모두 공적을 세웠는데, 그 동안 첫 날의 공적만 알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나. 제2차 회의 (2016. 10. 4, 국방부 회의실)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제출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가 발견된 지 얼마 후에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공식 기록문서가 발견되었다. 나종남 위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찾아낸 <무공훈장수여에 관한 건(태극무공훈장부, 국무회의 심의, 심의 공적서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가) 이 자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1951년 10월 30일에 故 심일 소령의 유가족

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전 과정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故 심일 소령에게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기 까지는 1950년 10월 말에 시작되어 이듬해인 1951년 7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의 긴 심의기간이 소요되었다.

나) 그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1950년 10월 말에 국군 제6사단 참모장 민병권 대령은 심일 중위가 개전 이후 춘천전투 등 총 5회의 전투에서 세운 공적을 기록하여 군단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군 제2군단은 1950년 11월 중 육군본부에 공적서와 순위를 제출하였고, 육군본부에서는 그해 말에 국방부로 훈장을 추천하였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약 6개월 동안 자체조사를 거쳐 이듬해인 1951년 6월 18일에 대통령에게 일등무공훈장 수여자로 총 18명을 추천하였으나, 6월 22일 개최된 제72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중 절반인 9명만 일등무공훈장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2) 공적확인위원회는 이 문서를 근거로 故 심일 소령에 대한 태극무공훈장 수여 과정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이 사단, 군단, 육군본부, 국방부, 국무회의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사되었으며, 적법한 과정을 통해 훈장 수여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6월 26일 오전 10시 경에 발생한 소양강 전투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있었다. 1950년 10월 말에 국군 제6사단 참모장 민병권 대령이 작성하여 국군 제2군단에 상신한 심일 중위의 공적서에 따르면, 1950년 6월 26일 10시 경 7연대 대전차포중대 소대장 심일 중위는 적 전차 3대가 소양강교를 통과하려 할 때 자신을 희생하며 자진 사수가 되어 적 전차에 약 5마(碼, yard) 거리까지 접근하여 공격·파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한편, 이 문서는 심일 중위가 춘천전투 이외에도 충주, 음성, 문경, 안계 등지에서도 맹활약했다고 기록하였다.

3)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최근에 발굴된 두 가지 공식 기록문서 -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 - 에서 밝혀진 것은 개전 둘째 날인 1950년 6월 26일 오전 10시 경에 북한군이 소양강을 도하하기 위해서 자주포를 앞세우고 맹렬하게 진격하였으며, 국군이 이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는 상황에서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7연대 대전차포 소대가 적 전차를 파괴한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故 심일 소령의 영웅적 행적, 즉 개전 첫날 옥산포 전투에서 육탄 돌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공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대용 장군 등 춘천전투 참전 생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개전 첫날에 세운 공적과 완전히 별개의 공적이 입증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 한편 새롭게 발굴된 두 가지 공식 기록문서에 의해 기존의 공간사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 서술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의 공간사 서술은 대부분 개전 첫날에 옥산포 인근에서 발생한 전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서술인 반면,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이처럼 故 심일 소령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수여된 것임을 입증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록문서가 발굴됨에 따라 故 심일 소령의 공적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대용 장군 증언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의 작성 시점은 1950년 10월인데, 이 시기는 이대용 장군이 제6사단에서 심일 중위의 공적을 조작하여 훈장을 추천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적어도 6~7개월 이전이다. 따라서 '심일이 사망한 이후 1951년 1월과 5월에 부대를 찾아온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공을 조작하여 훈장을 주었다'는 이대용 장군의 최근 증언은 재검토되어야 했으며, 그의 증언을 근거로 故 심일 소령의 전공에 대하여 조작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육군 군사연구소의 주장도 수용할 수 없었다.

6) 그런데 태극무공훈장 공적서를 통해 심일 중위가 6월 26일 전투에서 세운 공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심일 중위가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웠다고 알려진 공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특히 사료에 의한 검증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사료가 필요했다.

   가) 그렇다고 해서 공적확인위원회가 6월 25일에 심일 중위가 세운 공적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며, 6사단 작전교육처의 <전투상보> 등을 포함한 기록문서와 연대장 임부택 중령 등의 증언 자료[10]가 이날 공적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다만, 이러한 공적이 대부분 아군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군 자료에 의한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명확한 진실 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10) 故 심일 소령의 옥산포 전투 중 공적에 대한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의 증언 녹취록(1964. 10. 30)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심일 소위가 전차를 두 대 파괴했다고 하는데, 어느 곳입니까?) 그것이 춘천 옥산포이지. 숲에 숨어 가지고 (----)부터 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것이 적의 전차에 마저도 끄떡끄떡하면서 오고 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돌산에 배치해가지고도 안돼서 결국은 미리 준비한 병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육박했지. 결국은 뒤에서 불을 지른 것이지. 여기서 사병 하나가 죽었지. 이름은 모르겠어.
- (그 당시 공격한 것은 단신으로 되어있던데, 데리고 가기는 5명을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는 엄호를 시키고 공격은 심 소위가 했다고 하던데요?) 심 소위가 휘발유병을 가지고 했지.

다. 제3차 회의 (2016. 10. 18, 국.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제1차 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완하여 <故 심일 소령 관련 조선일보 보도 검토결과>(2016. 10. 4)를 제출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의 붙임 자료에는 개전 초기 춘천전투와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과거 증언 자료가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김종수 소령(7연대 2대대장), 허용우 대위(7연대 2대대 부대대장), 오봉환 하사(7연대 대전차포중대 사수), 이원우 중사(7연대 12중대 선임하사관), 김성 소령(16포병대대장), 김운한 소위(16포병대대 군수장교), 심기연씨(심일 소령 부친)의 증언 녹취록이었다.

2) 한편, 육군 군사연구소는 2016년 10월 18일에 이대용 장군을 만나서 추가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대용 장군 추가 질의 결과>(2016. 10. 18)를 통해서 제출하였다. 추가 증언에서도 이대용 장군은 6월 25일 오전에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진지에서 나와 도로를 이용하여 '도망'가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951년 1월과 5월에 심일의 부모가 제7연대 본부를 방문한 것, 심일의 전사 과정에 대해 안태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재차 확인하였다.

   가) 그런데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대용 장군의 추가 증언을 청취한 직후부터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다. 즉, 1950년 6월 26일 오전에 7연대 1대대가 옥산포 방면으로 실시한 역습을 전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대용 장군은 우두산 북방에 배치되어 있던 7연대 1대대가 1950년 6월 26일 오전에 옥산포 방면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선두부대를 향해 성공적인 역습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6월 25일과 26일 전투에서 적 자주포 1대가 파괴되었는데, 그 자주포는 국군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적군이 6월 26일에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사실 이대용 장군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춘천전투 관련 세미나와 자신의 저술에서 자신이 참가한 7연대 1대대의 역습으로 인해 북한군 제2사단의 선두부대가 옥산포에서 북쪽으로 퇴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 역습의 결과로 북한군의 춘천 점령이 6월 27일에야 완료되었는데, 춘천전투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진격이 늦어진 것은 바로 6월 26일 옥산포에서 실시된 7연대 1대대의 성공적 역습의 성과라고 주장하였다.

3) 이와 같은 이대용 장군의 추가 증언은 6·25전쟁 당시에 제6사단, 육군본부 등에서 생산한 공식 사료, 1980년대 이전에 채록된 춘천전투 참전자에 대한 증언 자료, 공적확인위원회가 확보한 주요 공식 기록문서 등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그는 6월 26일까지 옥산포 인근에서 파괴된 적 자주포가 1대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국군 제6사단 작전처 <전투상보>,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 美 육군의 공식 기록과도 상치된다.

4) 한편 이대용 장군의 6월 26일 7연대 1대대의 옥산포 역습 주장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가 오류이거나 조작되었다는 주장과 연계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6월 26일에 적군이 소양강 근처에 내려오지도 못했으며, 옥산포 근처까지 내려온 북한군을 자신이 속한 7연대 1대대가 역습으로 북쪽으로 격퇴시켰기 때문에 6월 26일 오전에 소양강에서는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6월 26일 오전 10시 경에 소양강에서 전투가 발생했다고 기술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가 잘못 기술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5) 하지만 공적확인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록문서의 내용과 상치되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대용 장군의 증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2016년 10월 18일의 추가 증언에서 이대용 장군은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이 사실이 아니며, 6·25전쟁 초기 춘천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한 것은 자신이 참가했던 7연대 1대대의 활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라. 제4차 회의 (2016. 11.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1) 공적확인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핵심 쟁점 사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의에 착수하였다.

2)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부터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서 확인된 故 심일 소령이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서 세운 공적과 기존에 알려진 6월 25일 공적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육군 군사연구소의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

   가) 첫째, 육군 군사연구소는, 6월 26일 오전에는 소양강 인근에서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심일 중위를 위해 작성한 훈장관련 서류는 허구의 전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오류가 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대용 장군의 추가 증언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인데, 즉 6월 26일 북한군 제2군단 선두 부대의 최대 진출선은 소양강 북방 약 5km 지점의 옥산포 인근이었으며, 게다가 이날 오전에 이대용 대위가 주도하여 실시한 역습[11]으로 인해서 북한군 선두부대가 북쪽으로 퇴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 이대용 장군은 여러 차례 구술 증언에서 7연대 1대대가 6월 26일 오전에 실시한 역습작전을 '파쇄공격(破碎攻擊)'이라고 명칭하였다.

나) 둘째, 육군 군사연구소는 만약 6월 26일의 소양강 전투가 사실이며, 또한 이날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영웅적인 행동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전공을 세웠다면, 세상에 알려진 소위 '심일 신화'가 소양강이 아닌 옥산포 인근에서 육탄 돌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것으로 정립되었을까?라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1968년부터 심일 중위의 전공을 기록하기 시작한 국방부 공간사 역시 유독 옥산포에서의 공적만을 강조하였지, 소양강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하였다.

다) 요약하면, 육군 군사연구소는 6월 26일 오전에 북한군의 최대 진출선이 옥산포 인근이었기 때문에 이날 오전에 소양강에서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발생하지 않은 전투를 근거로 작성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의 오류 혹은 조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3) 공적확인위원회는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제기한 첫 번째 문제, 즉 美 육군 군사고문관이 작성한 훈장 추천서가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가) 그 이유는 첫째, 6월 26일에 북한군 선두부대가 소양강 약 5km 북방, 즉 옥산포 인근까지만 진출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허남성, 김광수, 나종남 위원은 북한군의 진격에 대한 국군 제6사단 작전처 <전투상보>, 소련의 『라주바예프 6·25 전쟁보고서』, 북한군 제2사단 공병부대 전투보고서 등을 근거로 6월 26일 오전에는 북한군 선두부대가 소양강선까지 진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대용 장군이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7연대 1대대의 옥산포에 대한 역습의 진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이 역습으로 인해서 옥산포 남쪽 춘천농업학교 인근까지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북쪽으로 퇴각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피아 기록문서와 상치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분석하였다.

나) 둘째, 육군 군사연구소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가 조작되었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평가하였다. 만약 육군 군사연구소가 美 군사고문관이 작성한 추천서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문서가 누가, 왜, 무엇이, 어떻게 조작된 것인지를 밝히거나, 이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이대용 장군의 증언을 근거로 이와 같은 의혹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다) 본 위원회는 왜 미국이 6·25전쟁 초기에 전공을 세운 한국군 장군이나 지휘관이 아닌 초급장교인 심일 중위에게 외국 군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주었을까를 고민하였다. 또한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은성무공훈장이 조작되었다고 의혹만 제기하는 이대용 장군의 증언 이외에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홍석 위원은 "단지 이 추천서가 미군이 생산한 기록이라고 해서 사료 비판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심일 중위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미군 장교가 공적과 관계없이 작성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적확인위원회 확인 결과 이 추천서 내용은 美 육군의 인사 자료, 포로 심문서, 공간사 기록 등과 일치하였다.

라) 또한 1950년 9월 초 작성된 심일 중위의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가 주한미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이하 KMAG으로 표기함) 본부가 1950년 7월 16일에 한국군 각 부대에 파견된 美 고문관에게 발송한 'Awards and Decoration'이라는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적확인위원회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관련 서류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육군 군사연구소의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마. 현장 답사 (2016. 11. 8) : 옥산포, 소양강 지역 일대

1)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대용 장군 등 생존 참전자와 언론의 의혹 제기, 육군 군사연구소의 연구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6·25전쟁 초기 춘천전투 현장에 대한 답사 및 검증을 실시했다.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현장 답사 및 검증은 개전 첫날과 둘째 날의 전투 상황에 대한 이해와, 도출된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2) 6월 25일 전투에 대한 현장 답사와 검증의 핵심은 7연대 1중대장 이대용 대위가 대전차포 소대장 심일 중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내용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대용 장군은 6월 25일 오전 10시 경에 자신이 배치되었던 한계울에서 5번 국도를 따라 '도망'치는 심일 중위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해 왔다.

3) 공적확인위원회는 초기부터 전투상보와 작전일지, 관련자 증언, 평면 및 입체 지도를 통한 도상 연구 등을 통해서 개전 첫날 오전 10시 경에 옥산포 북방에서 이대용 대위가 심일 중위를 목격했다는 증언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본 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1~1.5km 이격된 점, 6월 25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여 시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 5번 국도의 서측

일대에 자리 잡은 뽕나무밭 등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전투복을 입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군인들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가) 이러한 고려 요소는 현장답사와 검증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듯 '심일이 도망갔다'고 주장하는 이대용 장군의 증언에 대한 수용 여부는 판단을 보류하였다. 왜냐하면 현장 확인 결과, 앞서 고려한 여러 조건하에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누군가의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었다.

4) 공적확인위원회는 또한 당시 이대용 대위가 심일 중위를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적에게 노출된 심일 중위와 소대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신속하게 후방으로 철수 혹은 퇴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심일 중위와 소대원들의 행동은 '도망'이라기보다는 '급박한 전술적 상황에 따른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대용 장군이 왜 당시 심일 중위의 행동을 '도망'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5) 개전 후 이틀 동안 춘천전투에서 제7연대와 함께 활약한 제16포병대대의 전투 전적지와 소양교(現 제1소양교)에 대한 현장 답사에서는 문헌에 기록된 이상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다만 제16포병대대의 전술지휘소, 포대 위치 등에 대해서는 공간사 서술, 부대사 기록, 관련자 증언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소양교에 대한 답사에서는 당시 하절기에 강물이 불어난 소양강을 도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춘천 방어에서 소양강 전투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바. 1차 증언 청취 (2016. 11. 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이대용 장군

1)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이대용 장군에 대한 직접 면담을 추진하였다. 이대용 장군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 내용은 육군 군사연구소의 선행 연구 등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적확인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확인을 위해서는 그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절차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적확인위원회에 출석한 이대용 장군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구술 증언하였다.

가) 그는 6월 25일 오전 10시 경에 옥산포 북방에서 심일 중위가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한계울로부터 5번 도로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고, 비가 이미 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충분히 관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대용 장군은 6월 25일 오전 10시 이후에는 심일 중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나)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러한 증언으로부터 이대용 대위가 심일 중위의 6월 25일 오후 옥산포 전투 참가 사실과 6월 26일 오전 소양강 전투 중 활약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개전 초기에 이대용 대위가 심일 중위를 목격한 전체 시간은 6월 25일 오전 10시 경의 짧은 시간에 한정되며, 심일 중위의 다른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였던 셈이다.

다) 이대용 장군은 심일 중위의 보직해임과 제16포병대대 전속, 심일 중위가 북한지역에서 사망하는 과정, 1951년 1월과 5월에 심일 중위의 부모가 제7연대 지휘소를 방문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이대용 장군은 개전 초기에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 1문을 잃어버리고 중대장 송광보 대위에게 혼났으며, 제16포병대대 연락장교로 쫓겨났다는 등의 이야기는 당시 제7연대 및 제16포병대대 부대원 '모두가 알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주장하였다. 심일 중위가 중공군 참전 이후 후퇴 과정에서 북한 묘향산 인근에서 사망한 이야기는 안태석 소위로부터 들은 것이며, 심일 부모의 두 차례 연대 방문 사실 역시 연대장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3)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대용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질문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그의 구술 증언의 신뢰도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였다.

가) 온창일 위원장은 1951년 1월과 5월에 심일 중위의 부모가 제7연대 지휘소를 방문하여 연대장을 만났다는 이대용 장군 증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공군과의 전투가 한참인 시점에 민간인이 적과 교전 중인 작전부대의 지휘소 방문이 가능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대용 장군은 자신은 심일 중위의 부모님을 직접 보거나 만난 적은 없으며, 부모가 방문했다는 소리는 전해 들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허남성 위원은 6월 25일 오전에 한계울 인근에 배치되었던 이대용 대위가 약 1km 이상 이격된 거리에서 심일 중위가 철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대용 장군은 그 날 심일 중위를 봤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하지만 허남성 위원은 당시의 상황(기상, 주변 환경,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만약 이대용 대위가 심일 중위를 목격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허남성 위원은 이대용 장군에게 "심일이 도망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문하였는데, 그는 당시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 소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이 근접하여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자 신속하게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도망'이 아니라 '진지 이동' 내지 '급박한 전술적 조치'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대용 장군은 심일 중위가 "도망친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사실은 당시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다) 이현수 위원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하게 낭독한 뒤, 이대용 장군이 두 개의 공식 기록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즉, 그 동안 이대용 장군이 故 심일 소령의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것으로 알려진 공적이 아닌 6월 26일에 소양교에서 세운 공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대용 장군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하며, "하늘이 곡할 노릇" 혹은 "누가 그렇게 감쪽같이 조작했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하였다. 그는 또한 6월 26일에는 소양강 전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故 심일 소령에게 주어진 美 은성무공훈장과 태극무공훈장은 모두 '조작된 가짜'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4)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대용 장군을 면담한 이후 증언 등 구술 자료의 신뢰도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동안 이대용 장군이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그가 춘천전투 기간 중 심일 중위를 직접 목격한 시간은 매우 짧았다. 그는 6월 25일 오전 10시 경에 약 1~1.5km 이상 이격된 거리에서 심일 중위가 철수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전부였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달할 뿐이었다.

가) 반면, 이대용 장군의 증언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대용 장군은 심일의 어머니가 연대장을 찾아와서 '경찰에 들어간 심일의 동생이 죽을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경찰청 기록 확인 결과 심일 중위의 동생 심민(沈民) 경감의 경찰 입문 시기는 1952년 11월이었다. 즉, 심일 중위가 전사한 이후에 동생이 경찰에 입문했는데, 이대용 장군은 이러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공적확인위원회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대용 장군은 심일 중위의 부친이 일제 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를 지냈을 정도로 친일파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확인 결과 이것도 과장된 이야기로 판명되었다. 심일 중위의 부친 심기연씨는 일제 강점기 중에 함경남도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을 '중추원 참의'라고 표현한 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故 심일 소령 부친의 친일 행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이대용 장군의 증언 중에는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내용과 과장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제6, 제7차 회의 (2016. 11. 29 / 12.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1) 공적확인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그 동안 조사 및 확인된 바를 바탕으로 전체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중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제6차 회의에서는 위원 개인별로 故 심일 소령의 공적 진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① 심일의 부모를 위해 공적을 조작하여 태극무공훈장을 주었다.
> ② 1950. 6. 25, 심일은 특공대와 같이 육탄 공격으로 자주포를 파괴하지 않았다.
> ③ 심일은 대전차포를 유기한 채 도망갔으며, 이후 보직 해임되었다.
> ④ 심일은 보직 해임된 이후 제16포병대대에 7연대 연락장교로 파견되었으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 ⑤ 이옥섭에 의해 심일의 공적이 알려졌으며, 손희선이 미화했다.

2) 공적확인위원회 위원 중 다수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는 기록문서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를 통해서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서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첫 번째 의견, 즉 심일의 부모를 위해 공적을 조작하여 태극무공훈장을 주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았다. 다만 최홍석 의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6월 26일 소양강 전투의 유무, 심일 중위의 전공 유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사료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3) 두 번째 사안, 즉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세운 공적에 대해서는 김광수, 나종남, 노영구, 허남성 위원은 심일 중위가 옥산포 전투에서 육탄 공격으로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주장은 일부 기록문서를 근거로 추정한 해석인데, 이것만으로는 6월 25일의 공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증 및 확인하기에 제한된다

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현수, 최홍석 위원은 심일 중위가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위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위원별 의견은 국방부 기본정책과에서 작성한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최종의견>(2016. 12. 13)에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되었다.

(동의 : ○, 일부동의 : △, 확인불가 : □, 부동의 : ×)

구분	공적확인위원회 위원							최종의견			
	온창일	김광수	나종남	노영구	허남성	이현수	최홍석	동의	일부 동의	확인 불가	부동의
①	×	×	×	×	×	×	□	-	-	1	6
②	×	△	△	△	△	○	○	2	4	-	1
③	×	×	×	×	×	×	○	1	-	-	6
④	×	×	×	×	×	×	□	-	-	1	6
⑤	×	×	×	×	×	△	○	1	1	-	5

5) 이처럼 공적확인위원회는 제7차에 걸친 회의와 문헌조사, 증언 청취,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수집한 바를 바탕으로 중간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각 위원들로부터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본 위원회의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가) 이를 위해서 공적확인위원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육군 군사연구소에 <故 심일 소령 공적 검증 핵심 사안>이라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지시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두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내용은 <故 심일 소령 공적 검증 핵심사안 등 검토의견>(2016. 12. 27)으로 종합되었다.

I. 심일 공적 확인 핵심사안

1. 심일이 태극무공훈장을 받을 만한 공적을 세웠는가?
2. 심일이 6월 25일 옥산포 전투 또는 6월 26일 소양교 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했는가?
3. 6월 25일 14시 경 옥산포에서 적 자주포 2대를 육탄공격으로 파괴했다는 심일의 전공은 과장된 것인가?

II. 핵심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검증사항

1. 태극무공훈장의 공적 기록상 공적을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
2. 심일은 훈장을 수여할 만한 공적이 없다.
3. 심일의 부모를 위해 훈장을 주기로 했다.
4. 심일의 부모가 부대를 찾아와서 하소연 했다.
5. 이옥섭에 의해 심일의 공적이 알려졌으며, 손희선이 확산시켰다.
6. 6월 25일 옥산포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다.
7. 6월 25일 심일은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갔다.
8. 6월 25일 심일은 SU-76 자주포를 파괴하였다.
9. 6월 26일 10시에 소양교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다.
10. 적의 자주포는 26일 적 승무원이 내부에 불을 질러 스스로 자폭한 것이다.
11. 6월 26일 소양교에서 심일이 적 자주포를 파괴하였다.
12. 6월 25일 심일은 적의 자주포를 육탄공격으로 파괴하였다.
13. 당시 북한군 자주포는 뚜껑이 없었다.
14. 육탄 5용사는 날조된 것이다.

III. 기타 확인사항

1.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2. 자료의 신뢰성 관련
3. 심일의 보직 및 전사 관련

6) 그러던 중 2016년 12월 2일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자신의 칼럼에서 본 사안을 다시 다루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적확인위원회의 내부에서만 논의하기로 약속된 내용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어 논란을 빚었다. 공적확인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확인위원회 내부 자료와 토의 사항을 외부 언론에 유출한 당사자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가) 최보식 기자는 최근에 공적확인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핵심 쟁점을 입수하여 소상하게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면, 최보식 기자는 1950년 6월 26일에 소양강 일대에서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바이다. 이처럼 공적확인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 외부 언론에 유출되고, 또한 이것이 공적확인위원회의 활동을 압박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7차 회의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과 육군 군사연구소장이 직접 공적확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본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공적확인위원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료, 즉 공식 기록문서에 근거하여 올바르고 권위 있는 해석을 내놓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구술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채록된 시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획득된 구술이 나중에 획득된 구술에 비해 더 신뢰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나) 육군 군사연구소장은 그 동안 공적확인위원회가 육군 군사연구소의 핵심 주장들을 무시하는 등 비효율적, 편파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일부 사료를 선별적,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또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의 신뢰성, 라주바예프 보고서의 오역 가능성 등 공적확인위원회의 사료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만, 그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의 어디가, 어떻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라주바예프 보고서의 어디가 어떻게 오역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8) 이날 육군 군사연구소장이 제기한 여러 가지 안건 중 핵심 사안은 이대용 장군 등 생존 참전자의 증언이 갖는 신뢰성에 대한 강조였다. 그 동안 공적확인위원회의 허남성, 나종남 위원은 구술 자료가 갖는 특성과 한계에 대해 주목해 왔으며, 6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일에 대한 고령자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구술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된 이대용 장군 등 참전자들의 구술 증언에는 검증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가) 이대용 장군 등 생존 참전자로부터 채록한 증언이 갖는 한계는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문제였다. 왜냐하면 이대용 장군과 최보식 기자가 제기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거가 오직 생존 참전자의 증언뿐이기 때문이었다.

나) 육군 군사연구소장은 허남성, 나종남 위원이 제시한 '경성 사료(Hard Source)'와 '연성 사료(Soft Source)'의 구분법, 이들의 신뢰성 차이에 대한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그는 이대용 장군 등 생존 참전자의 구술 자료를 국가 공문서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구위원 중 일부 인사의 개인 신상에 대해 발언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회의 분위기가 격앙되었다.

다) 이처럼 육군 군사연구소장이 공적확인위원회의에 출석하여 그 동안 본 위원회가 조사 및 확인, 검증해온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본 사안에 대한 공적확인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 군사연구소의 입장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아. 2차 증언 청취 (2016. 12. 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김운한, 김장근, 심호은

1) 공적확인위원회는 제16포병대대 소속으로 춘천전투에 참전한 김운한(1922년생), 김장근(1924년생), 심호은(1927년생) 등 3명의 참전자를 면담하였다. 제16포병대대 A포대장 김장근 중위와 B포대 지휘소대장 심호은 소위는 육군 군사연구소와의 사전 면담에서 개전 첫날인 6월 25일 아침에 옥산포 인근에서 심일 중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가) 약 2시간 넘게 고령의 참전자들과 면담하였으나, 이들의 증언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김장근 중위와 심호은 소위는 모두 6월 25일 아침에 심일 중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심일 중위를 만난 시간은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 기록과 상이했다.

나) 심호은 소위는 개전 당일 새벽 5시부터 자신의 행동을 30분 단위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하였으나, 구술 도중 본인 스스로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옥산포 전투와 소양교 전투가 발생한 장면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다) 김장근 중위는 자신이 직접 본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반면, 직접 보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심일 중위가 공적을 세웠던 장면은 목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라) 김운한 대위는 개전 당일 아침에 심일 중위가 춘천 북방이 아니라 가평 방면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증언은 그가 과거에 했던 증언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심일 중위가 옥산포에서 전투에 참가한 것을 목격한 다른 수많은 증언자의 증언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그는 춘천전투에서 승리한 이유가 제6사단 7연대, 즉 보병 때문이 아니라 제16포병대대를 포함한 포병 병과 때문이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마) 결론적으로 생존 참전자와의 면담에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구체적 공적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자. 제8차 회의 (2017. 1.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1) 국방부 기본정책과는 공적확인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 관련 보고>(2017. 1. 9)를 통해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크게 그간의 문제 제기, 공적확인 경과, 주요 사안별 의견, 결론, 후속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적확인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의 3대 핵심쟁점과 8개 세부쟁점으로 검토하였음을 명시하였다.

> 쟁점 ① 심일은 태극무공훈장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가?
> ① 태극무공훈장 수여 근거, 수훈 결정과정
> ② 심일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공적을 조작하여 훈장을 상신했다는 주장의 진위
> ③ 태극무공훈장 외에 공적을 입증할 근거 자료
>
> 쟁점 ② 심일이 춘천지역에서 적의 자주포를 파괴했는가?
> ① 심일이 대전차포 1문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주장의 진위
> ② 6월 26일 소양교 전투에서 심일의 공적
> ③ 6월 26일 적 자주포를 승무원이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는 주장의 진위
>
> 쟁점 ③ 6월 25일 적 자주포를 육탄 공격으로 파괴했다는 심일의 공적은 과장된 것인가?
> ① 6·25전쟁 당시 자주포 파괴 방법
> ② 육탄 5인조의 실존 여부

2) 위에 제시한 3대 핵심쟁점과 8개 세부사안에 대해 공적확인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故 심일 소령이 태극무공훈장을 받을 만한 공적을 세웠는가라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① 심일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전공을 조작하여 훈장을 상신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② 심일은 적 자주포를 파괴한 분명한 공적에 대한 적법한 추천과 심의절차에 따라 태극무공훈장을 수훈한 것으로 판단되고, ③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당시 지휘계통에 있었던 참전자 증언은 심일의 공적을 입증할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된다. 둘째, 故 심일 소령이 춘천전투에서 적의 자주포를 파괴했는가라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① 6월 25일 옥산포에서 심일이 대전차포를 유기한 채 도망쳤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② 태극무공훈장과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에 적시된 대로 6월 26일 소양교 일대에서 적 자주포를 공격하여 파괴한 공적이 인정되며, ③ 춘천지구에서 파괴된 적 자주포는 5~7대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6월 26일에 옥산포 지역에서 적 승무원이 스스로 자주포에 불을 질러 파괴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을 심일 중위가 파괴한 자주포와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셋째, 6월 25일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육탄 공격으로 파괴했다는 심일의 전공은 과장된 것인가라는 쟁점사안

에 대해서는 ① 심일이 육탄공격과 유사한 형태로 자주포를 파괴한 것은 사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파괴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제한되며, ② 육탄 5용사는 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이처럼 공적확인위원회가 여태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던 도중인 2017년 1월 초순, 두 가지 중요한 기록문서가 새롭게 발굴되었다. 그리고 이 사료들은 향후 공적확인위원회가 故 심일 소령의 6월 25일 전공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가) 김광수 위원이 발굴한 첫 번째 자료는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인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RG 242 중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군에 속하는 총 96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 문서에는 6·25전쟁 초기 북한군 제2사단 예하 자주포 부대에서 작성하여 상부로 제출한 개인별 훈장(훈패) 수여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춘천전투를 근거로 훈장이 상신된 자들은 약 60명 정도였다. 이중에서 박연히의 훈장(훈패) 수여장 등은 본 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김광수 위원과 육군 군사연구소가 소개한 바 있었다.

   나) 그런데 새롭게 발굴된 자료에는 다수 인원의 훈장 수여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6월 25일과 26일의 전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발굴한 김광수 위원은 김학범, 전의원, 차한상 등의 훈장(훈패) 수여장에서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 투입된 적 자주포 3대가 파괴되었음을 밝혀냈고, 박연히와 박윤천의 훈장(훈패) 수여장에서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 투입된 적 자주포 3대가 파괴된 것을 분석하였다.

4) 김광수 위원은 북한군 자동포 부대의 훈장 수여장에 기록된 구체적인 공적 내용을 6월 25일 옥산포 전투 상황과 관련된 것들과, 6월 26일 소양교 부근 전투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는 전사한 자동포대대 제3중대 운전수 3명(김학범, 전의원, 차한상)의 훈장 수여장에 기술된 공적 내용이 매우 유사하며, 또한 아군 사료에 언급되는 춘천전투의 전개 과정 및 내용과 상당할 정도로 부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 예컨대, 북한군 훈장 수여장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3명의 자동포 운전수는 모두 전사했는데, 그 중 2명은 자동포로 국군의 57mm대전

차포와 105mm야포, 자동차를 공격하던 중 자동포가 정지된 뒤, 자동포에 불이 붙어 자동포와 함께 전사했다. 다른 한 명은 불이 붙은 자동포에서 탈출하여 밖으로 나왔으나 곧 국군의 총에 전사했다. 위에서 언급한 3명의 제3중대 자동포(싸마호트, SU-76 자주포) 운전수들이 전사한 장소는 모두 '춘천면 마산리 전투'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마산리는 현재의 옥산포와 그 아래 지역이다. 이처럼 전사한 3명의 운전수들의 공적서 내용, 그리고 6월 25일 전투를 근거로 작성된 공적서 들을 종합하면, 북한군의 작전 수행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아군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종합하면, 공적확인위원회는 새롭게 발굴된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를 통해서 6월 25일과 6월 26일에 춘천 정면에 투입된 적 자주포 부대의 피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이 문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6월 25일과 6월 26일에 대전차포 소대장으로 활약하며 적 자주포를 파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심일 중위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결론 내렸다.

   가) 먼저, 국군 제6사단 작전처 <전투상보>와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에 기록된 6월 25일 오후 옥산포 인근에서 적 전차 3대가 파괴되었다는 내용은 북한군 훈장(훈패) 수여장의 기록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아 문서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 즉 개전 첫날 적 자주포 3대가 파괴된 사실은 6월 26일까지 아군이 파괴한 적 자주포가 없다고 주장하던 이대용 장군 등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나) 또한 이 문서에 기록된 북한군 박연히, 박윤천의 훈장 수여장 내용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가 명시한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서 적 전차 3대를 파괴했다고 기록된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는 6월 26일 소양강에서 전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6) 2017년 1월 초에 발견된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은 본 사안에 대한 공적확인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판단과 해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동안 일부 위원들은 국군 제6사단 <전투상보>와 제16포병대대의 <부대역사일지> 이외에 신뢰할 만한 기록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장갑차 파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서가 발굴됨에 따라 피아 문서를 통해 교차 검증이 가능해졌고, 이를 근거로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장갑차가 파괴된 사실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가) 이에 따라 공적확인위원회는 이 문서를 근거로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 3대가 격파되었으며, 이를 격파한 주체는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 소대라고 결론 내렸다.

나) 또한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을 통해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가 문제를 제기하던 6월 26일 소양강 전투의 실체가 입증됨에 따라,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 명시된 故 심일 소령의 6월 26일 공적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7) 한편 김광수 위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여 공개하는 해외자료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문서를 발굴하였다. 이 자료는 1951년 4월에 중공군의 공세를 역전시킨 후 춘천을 점령하고 화천으로 진격하던 美 제1해병사단이 춘천 북방에서 촬영한 세 장의 사진이며, 원 자료명은 '1st Marine Division(Reinf.), Photographic Supplement, April 1951'이다.

가) 각 사진의 제목은 '춘천 북방에 파괴되어 버려진 적 76mm 자주포(The Battered Enemy Self-Propelled 76mm Gun was Destroyed North of Chunchon)'와 '춘천 북방에 전복되어 있는 적 76mm 자주포(A knocked out enemy self-propelled 76mm gun lays on its side north of Chunchon)' 등이다. 위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51년 4월에 美 해병부대가 춘천 북방에 버려진 파괴된 적 76mm 자주포 3대를 촬영하여 부대 역사자료로 남긴 것이다.

나) 이 사진을 발굴한 김광수 위원이 '춘천 북방'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촬영된 위치는 옥산포 인근이었으며, 촬영 당시 파괴된 적 자주포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 땅속에 일부가 박히거나 전복된 채 방치된 상태였다.[12)]

8) 공적확인위원회는 사진 속의 적 76mm 자주포는 소련군이 북한군에게 제공한 것이며, 이들이 개전 초기 춘천전투에서 파괴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사료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의 무기 체계, 소련군이 중공군에 SU-76 자주포를 제공한 시기, 적 자주포 파괴 시기 및 대수에 대한 옥산포 인근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951년 4월에 촬영된 적 자주포 3대는 6·25전쟁 초기에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13)]

---

12) 김광수 위원은 2017년 1월 19일 춘천지역에 대한 추가 답사에서 사진 속에 파괴된 자주포의 위치를 추적하였는데, 이때 사진 배후의 산맥 모습, 근거리 야산과 각도 등을 계산한 결과 파괴된 적 자주포가 촬영된 장소는 옥산포 인근(現 제16포병대대 춘천 대첩비가 세워진 장소) 임을 확인하였다. 공적위원회의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교 교수진(최형진 박사, 변종민 박사)이 재차 확인하였다.(2017. 4. 14)

13) 이 사진에 촬영된 적 자주포가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능한 시점은 네 시기로 압축된다. 첫째, 1950년 6월 25~27일 춘천 전투 시기, 둘째, 1950년 10월 6일 국군 제6사단이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며 38도선을 돌파한 시기, 셋째, 1951년 1월 1일 중공군-북한군의 제3차 공세(1.4 후퇴) 시기, 넷째, 1951년 3월 중공군 제38, 제40군이 춘천을 점령한 이후 퇴각한 4월 초이다. 이 중에서

9)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 자료 중에서 발굴한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와 1951년 4월에 美 제1해병사단 사진 자료는 개전 첫 날인 1950년 6월 25일에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차. 공청회 (2017. 1. 24,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1) 공적확인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본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 검증한 결과를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제1부 개회식과 제2부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온창일 위원장의 개회사와 운영경과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제2부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에서는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이 진행되었다. 제2부의 사회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인 신복룡 교수가 맡았으며, 김광수 위원이 '춘천전투와 심일 중위'라는 제목으로 6월 25일과 6월 26일 이틀간 벌어진 춘천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세운 공적에 대한 공적확인위원회의 확인사항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현수 위원은 '제기된 의혹 검증 및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과 美 은성무공훈장의 수여 결정과정 및 조작 여부 등을 발표하였다. 이후 온창일 위원장이 최종 결론에서 공적확인위원회의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2) 이날 배포한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공청회 자료집>(2017. 1. 24)에는 본 사안 관련 핵심 사료 4건 - 태극(일등)무공훈장 심의 공적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및 수여기록, 국군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 - 이 첨부되었다. 공적확인위원회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문제와 의혹을 제기해 온 이대용 장군을 포함한 생존 참전자, 육군 군사연구소,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 등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공청회 자료집을 통해서 공적확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기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두 번째 시기는 북한군 패잔병들이 유류 공급 중단으로 장갑차 등을 버리고 북으로 퇴각하던 시기라서 SU-76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세 번째 시기는 소화기로 재편성한 북한군의 게릴라식 공격에 의해 국군 제5사단이 후방 차단 위협으로 적과 접촉 없이 1951년 1월 6일에 춘천을 포기하고 철수하던 시기로 게릴라 공격을 하던 북한군이 자주포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시기에 대해서는 중공군의 전투서열 자료 확인 결과 1951년 당시 중공군 군단 및 사단 포병부대는 SU-76을 보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적확인위원회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위 사진에 촬영된 자주포는 1950년 6월 말 춘천전투에서 파괴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가) 먼저 춘천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세운 공적은 아래와 같다.

Ⅰ. 심일 중위의 전투 중 6월 25일 옥산포 전투공적에 대하여

1. 이대용 장군, 일부 언론 등은 “① 심일이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갔다. ② 적 자주포를 파괴한 것은 허구다. ③ 보직해임 후 포병연락장교를 맡았다. ④ 육탄 5용사는 날조된 것이다.” 고 주장하였으나,

2. 공적확인위원회는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 2~3대가 파괴되었음은 피아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적 자주포를 파괴한 주체는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심일 중위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다.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원이 적 자주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육탄공격을 시도했다는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 심일 중위의 전투 중 6월 26일 소양교 전투공적에 대하여

1. 이대용 장군, 일부 언론 등은 “① 소양교 전투가 없었고 심일의 전공도 없었다. ② 심일과 함께 있었다는 인물들은 군적에 없었다. ③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는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2. 공적확인위원회는 6월 26일 소양교 부근 전투에서 적 자주포 3대가 파괴된 사실은 美 은성무공훈장추천서를 포함한 피아 문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주체는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7연대 대전차포 소대이며, 특히 심일 중위는 본인이 대전차포 사수가 되어 직접 적 자주포 파괴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투에 참가한 참전자 등의 증언으로도 확인되었다.

나) 한편 이대용 장군 등이 제기한 태극무공훈장 수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Ⅲ. 태극무공훈장 수여 결정 과정 중 조작 의혹에 대하여

1. 이대용 장군, 일부 언론 등은 “① 심일의 공적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하여 훈장을 주었다. ② 심일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훈장을 주었다. ③ 심일은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북한지역에서 숨졌다. ④ 심일 동생의 경찰 입문 시기와 관련 1951년 5월에 이미 경찰이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 공적확인위원회는 심일 중위의 공적이 사단, 군단, 육군본부, 국방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사망 관련 사실은 단정하기 힘들며, 동생의 경찰 입문시기에 대한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날 공청회에서 공적확인위원회 발표 직후 육군 군사연구소장은 공적확인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故 심일 소령 공적에 대한 입장>(2017. 1. 24)이라는 자료를 배포하였다.

가) 그는 이대용 장군 등 생존자의 증언이 공식 기록문서와 유사 혹은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서 6월 26일에 소양강에서 전투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구술 자료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 최재희 교수(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최호근 교수(고려대 사학과)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중에서 구술 증언의 사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호근 교수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가 불완전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를 작성한 美 군사고문관은 심일 중위의 전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며, 대신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바를 기준으로 훈장 추천서를 작성해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최호근 교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를 신뢰하기에 앞서 본 사안을 "Zero-base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최호근 교수가 제시한 의견서에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추천서가 1950년 7월에 하달된 상급부대의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심일 중위의 은성무공훈장 추천서가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 육군 군사연구소는 또한 6월 26일에 소양강 지역에서 전투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3명의 당시 목격자로부터 입수한 구술 자료를 제출하였다. 춘천대첩 선양회 소속의 김OO(춘천사범학교 재학), 박OO(춘천농업학교 재학), 안OO(7연대 2대대 6중대 일등병) 등을 면담한 결과 이들이 모두 6월 26일에는 소양강 인근에서 전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하였다.

4)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에 나선 이대용 장군은 자신이 그 동안 언론, 육군 군사연구소, 공적확인위원회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증언과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 공적확인위원회의 결론에 반대하였다. 한편 그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집필한 저서에서 춘천전투 관련 일부 세부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기술, 숫자와 시간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출판과정에서 나온 사소한 실수라고 대응했다.

5) 약 3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공청회를 끝까지 지켜본 육군본부 참모차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지난 4개월 동안 공적확인위원회

의 활동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했다고 언급하며, “공적확인위원회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객관적 결론이 신뢰할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 논의가 진행되어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만족할 정도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6) 공청회 제2부의 사회를 맡은 신복룡 교수는 자신도 6·25전쟁을 연구해 온 학자이며, 본인도 미국 육군의 문서고(Carlisle, PA)에서 美 육군의 공간사에 사용된 1차 사료(Primary Source) 가운데 6·25전쟁 초기 춘천전투에서 적 전차 7대 정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6월 26일 옥산포 인근에서 적 자주포 승무원이 스스로 자주포를 방화하여 폭파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발언하였다.

   가) 신복룡 교수는 고령의 참전자 증언에 대해서는 회상성 기억조작(Retrospective Falsification)이 되지 않았는가를 사려 깊게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이대용 장군이 심일 중위가 ‘도망갔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전우에게 ‘도주’했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도주’보다는 ‘퇴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쟁 상황에서 부모가 작전부대의 지휘소를 방문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사실로 믿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7) 그 밖에도 여러 참석자들은 공적확인위원회가 제시한 중간 결론과 육군 군사연구소가 제시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각각 지지와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찬성, 지지, 우려 등은 마치 본 사안을 둘러싸고 공적확인위원회와 육군 군사연구소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말았다.

8) 공청회에서 발생한 공적확인위원회와 육군 군사연구소 사이의 의견 대립은 언론의 주목을 끌었고, 일부 언론은 공적확인위원회가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을 무시하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영웅’을 지키려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자료에 대해 두 연구기관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와 조율을 이루지 못한 공적확인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군 군사연구소가 이러한 파장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카. 제9차 / 제10차 회의 (2017. 2. 28 / 3. 1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1) 공적확인위원회는 육군 군사연구소가 공청회에서 소개한 6·25전쟁 초기 춘천전투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춘천대첩 선양회 소속 3명의 목격자와 면담하였다.[14]

가) 그런데 육군 군사연구소가 제출한 증언 녹취록에는 증언자 3명의 증언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들의 증언 중 일부에서는 나중에 학습된 바를 바탕으로 과거 상황을 역으로 추적하여 시간을 계산하려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개전 당시 춘천농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OO씨는 6월 26일에 소양강과 소양교 인근에서 전투에 대해서는 증언한 적이 없었다. 다만 그는 6월 26일 아침에 춘천농업학교에 등교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증언했으나, 구체적으로 6월 26일에 소양강에서 전투가 발생했는지를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였다.[15]

다) 개전 당시 춘천사범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OO씨는 자신이 직접 6월 25일 오후부터 6월 26일 오전까지 소양강 북방의 제16포병대대 탄약고로부터 후방으로 탄약을 날랐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6월 25일 오후부터 탄약 운반에 참가하였는데, 소양강 북방에 자리 잡은 제16포병대대 탄약고로부터 소양강 남쪽의 춘천사범학교까지 탄약을 운반하는 작업이 6월 26일 오전까지 지속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육군 군사연구소는 김OO씨의 증언을 6월 26일 오전에는 소양강에서 전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라) 그러나 춘천사범학교가 자리 잡고 있던 학곡리는 춘천 동남방의 외곽지역으로, 춘천에서 홍천으로 향하는 원창고개 바로 전방이었다. 춘천전투 관련 여러 기록문서와 증언에 따르면, 옥산포 남방의 제16포병대대 탄약고로부터 후방으로 탄약을 후송하는 작업은 6월 25일 오후부터 시작되어 대부분 그날 중에 종료되었다. 또한 당시 탄약이 후송된 장소도 춘천사범학교가 아니라 춘천역 부근과 시내 동쪽의 우시장(牛市長) 인근이었는데, 이곳은 각각 포병 1개 포대가 포진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김OO씨가 6월 26일 오전에도 탄약 운반에 참가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의 증언은 대체로 기록문서와 다른 증언자의 증언과 차이가 있었다.

---

14) 육군 군사연구소는 3명, 즉 김OO씨, 박OO씨, 안OO씨를 증언자로 소개하고, 사전에 면담한 증언 녹취록을 제공하였다.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들 중 2명을 만나서 면담하였으나, 안OO씨는 건강 악화로 인해 면담이 불가능했다.

15) 이러한 내용은 육군 군사연구소가 2017년 1월 20일에 박OO씨를 면담한 뒤 작성하여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군사연구소장은 공청회에서 박OO씨를 포함한 증언자 3명이 모두 6월 26일에 소양강에서 전투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2) 한편 공적확인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육군 군사연구소가 국내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의 오류 및 조작 가능성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7년 3월 초에 美 육군 군사사 연구센터와 美 육군대학 예하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US Army Heritage and Education Center)에 1950년 9월에 美 제8군 사령관이 심일 중위에게 수여한 은성무공훈장의 추천서와 표창장의 진위(眞僞)를 문의하였다.

가) 美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 역사연구소장 콘나드 크래인 박사(Dr. Conrad Crane)는 故 심일 소령에게 수여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표창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또한 개전 초기 춘천전투에서 적 장갑차가 파괴된 것은 확인된 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美 육군의 공간사 기록을 보내왔다. 또한 국군 제6사단에 파견된 美 고문관이 작성한 공식기록, 즉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17년 3월 8일자 E-mail 서신) 한편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쉐인 레일리(Shane Reilly) 중령은 6·25 전쟁 초기 춘천전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美 공간사 기록 초안, 포로심문서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 미군은 춘천전투 중 파괴된 적 자주포의 대수를 6~7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나) 美 육군 인적자원사령부(US Army Human Resources Command) 부관부(The Adjutant General Directorate) 상훈과(Awards & Decorations Branch)[16]의 아론 루머(Arron Lummer) 중령과 실무자 티모시 바나드 박사(Dr. Timothy Barnard)는 1950년 9월에 美 제8군사령부가 심일 중위에게 수여한 은성무공훈장은 정당하며, 그와 관련된 문서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본 사안에 대한 실무자인 티모시 바나드 박사는 심일 중위의 은성무공훈장 관련 기록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단, 67년 이전의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근거가 고령의 참전자의 구술 증언만이라면 '불충분'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는 美 제8군사령부가 발행한 1950년 9월 16일자 상훈명령서를 추가로 제공하였는데, 이 기록에는 심일 중위의 공적 내용이 요약되어 들어 있다.(2017년 3월 28일자 E-mail 서신) 이와 같은 답장과

16) 美 육군 군사사 연구센터(US Army Military History Center) 부대사 연구과장 루이스 번스테인(Dr. Lewis Bernstein) 박사는 공적확인위원회가 요청한 故 심일 소령의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표창장의 진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으며, 다만 전쟁 중 수여된 훈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전담하는 부서와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때 그가 소개한 곳은 美 육군 인적자원사령부 소속 부관부 내 상훈과였다.

추가 서류를 통해 美 육군 인적자원사령부와 담당자들은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은성무공훈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훈장 추천서가 조작되었다는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역사학과 그렉 브라진스키(Dr. Gregg Brazinsky) 교수는 미국이 故 심일 소령에게 수여한 은성무공훈장의 기록에서 조작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미국 정부나 육군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인이며,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인 그렉 브라진스키 교수는 60여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참전자의 증언보다 사건 발생과 가까운 시간에 작성된 공문서를 더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제4절 쟁점 사안

1.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의 실체

가.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대용 장군 등이 제기한 故 심일 소령의 공적 조작 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 검증하던 중 춘천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세운 공적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가 세운 공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한 이후, 이에 대해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1) 본 위원회는 심일 중위가 세운 공적을 '알려진 공적'과 '알려지지 않은 공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알려진 공적'은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이며, '알려지지 않은 공적'은 6월 26일 소양교 전투에서 세운 공적을 가리킨다.

나. 먼저, 故 심일 소령이 세운 공적 중 '알려진 공적'은 6월 25일 정오경에 옥산포 전투에서 적 SU-76 자주포 2대를 20m까지 근접하여 공격하여 돈좌시킨 후 이를 수류탄과 휘발유병으로 파괴시킨 것이며, 이는 1968년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제2권에 최초로 서술되었다.[17] 이후 1978년과 2005년에 발간된 국방부 공간사에서 심일 중위가 지휘하여 파괴한 적 자주포 대수, 파괴 방법 등에서 큰 차이 없이 기술되었다.

1) 이와 같은 국방부 공간사의 서술은 주요 기록문서와 관련자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 중 '장갑차 8대 중 2대를 파괴하고 1대 노획, 포로 2명'이라는 기록과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 중 '적 전차 2대를 격파 각좌시켜 수답을 낀 주로를 봉쇄'라는 기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는 '옥산포 도로 상에 출현 근접 차 시내로 향하여 돌진하는 적 전차 6대를 발견한 아군 대전차포는 맹사격을 개시하여 기중 3대 폭파하였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아군 기록문서에는 파괴된 적 자주포 숫자가 '2대' 혹은 '3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했다.

2)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한 7연대와 인접 부대원의 증언에서는 적 자주포를 파괴하는 방법과 격파된 자주포 수량에 큰 차이가 있다. 우두산 OP에서 망원경을 통해 옥산포 상황을 관측한 7연대장 임부택 중령과 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은 "휘발유병을 가지고 (전차를 공격) 했지."나 "옥산포쪽에서 화염과 연기가 충천하였다." 등과 같이 공격 방법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반면 "1대를 파괴한 것은 보았어요."라고 말한 이우상 중위(7연대 3중대 3소대장), "아마 7대는 파괴되었을 것이

17) 또한 이 공간사에는 "심일 소위는 (6월) 27일 시내에서 철수 중에도 시내로 침입한 자주포 1문을 단신 파괴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 pp. 154-155.

다.“고 말한 송인규 중위, ”3대가 나타나서 2대를 공격하여 파괴했고, 3번 전차가 차머리를 돌려 도주했다.“고 발언한 오봉환 하사(7연대 대전차포중대 사수), ”2대는 57mm에 맞아서 파괴되고 3대째는 운전병만 죽었다고 합니다.“라고 말한 주락한 일병(7연대 대전차포중대 포수), ”적 탱크를 최대로 유인 끌어들여 전차 캐터빌라에 사격 전차 2대를 파괴시켰다.“고 발언한 이원우 중사(7연대 12중대 선임하사관) 등 차이가 있다.

3) 공적확인위원회가 발굴한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에서 옥산포(마산리) 전투 중 SU-76 자주포가 아군 직사화기의 공격을 받은 이후 불이 붙어 파괴되었다고 기술된 것은 3개이다. 공적확인위원회가 이 자료에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제3중대 자동포 운전수 3명(차한상, 김학범, 전의원)의 전사이며, 이는 적 자주포 3대가 파괴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4) 한편, 美 제1해병사단이 촬영한 사진자료에서는 춘천 북방에서 발견된 3대의 파괴된(destroyed) 자주포의 실물이 확인되었다. 1951년 4월 이전에 춘천 북방 옥산포에서 적 자주포가 파괴될 정도의 심각한 전투가 발생한 시기, 북한군과 중국군의 무기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모두 개전 초기 춘천 전투에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5) 이와 같은 자료와 정황을 모두 종합한 결과,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이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은 ‘7연대 대전차포소대를 지휘하여 남진하는 북한군 자주포 3대에 지근거리까지 근접하여 대전차포를 발사하여 돈좌시킨 후, 수류탄과 휘발유병으로 파괴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다. 6월 26일 공적은 지금까지 자세하게 서술된 적이 없으며, 본 위원회가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본 위원회는 심일 중위가 6월 26일 옥산포에서 세운 공적을 피아의 기록문서를 통해 확인 및 검증하였다.

1) 1950년 9월에 작성된 심일 중위의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는 ‘6월 26일 10시 경 적 자주포 3대가 심 중위의 중대 방어지역에서 도하에 성공하자 … 심일 중위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3대의 전차가 파괴될 때까지 포수로서 끝까지 진지에 남아 있었다’고 기술되었다.

2) 한편, 1950년 11월에 작성된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는 ‘단기 4283년 6월 26일 10시 경 … 적 전차 3대가 아방을 향하여 전진하여옴을 목격하고 … 자진 사수가 되어 대전차포 약 5마(碼, yard) 거리 내까지 총총히 전진하는 전차를 육박사격으로 완전 격파하여 비부 전상까지 당하였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사료에 명시된 공적의 시간과 장소, 파괴된 적 자주포 대수는 일치한다.

3) 또한 북한군 <제262군부대 훈장(훈패) 수여장> 중 박연히, 박윤천 등의 수여장에서도 소양교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적 자주포가 아군의 공격에 의해 격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파괴된 대수는 3대로 판단되었다.

4) 참전자 증언 중에는 오봉환 하사(7연대 대전차포소대 사수)와 안태석 소위(7연대 2대대 8중대 화기소대장)의 증언에서 소양교 전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에서는 파괴된 적 자주포 대수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5) 이와 같은 자료와 정황을 모두 종합한 결과,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이 6월 26일 소양교 전투에서 세운 공적은 '7연대 대전차포소대를 지휘하여 북한군 자주포의 소양교 도하를 방어하던 중, 적 자주포가 계속 밀고 내려오자 스스로 사수가 되어 직접 지근거리까지 근접한 뒤 대전차포로 사격하여 3대를 격파하였다'고 결론지었다.

2. 생존자 구술 증언의 특징과 문제점

가. 의혹 제기자 : 이대용 장군

1) 이대용 장군이 2016년 6월 초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육군 군사연구소와 공적확인위원회는 그를 3회 공식 면담하였다.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대용 장군의 구술 증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식별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이대용 장군의 증언에 신뢰성과 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첫째, 이대용 장군의 최근 증언 중에는 과거 저서에서 기술한 것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옥산포 전투 상황에 대한 기록, 적 장갑차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있다.

사 안	1952년/1964년 저서[18]	2010년/2014년 저서[19] 2016년 구술
적 자주포 탈취 시점	6월 27일	6월 26일 10시 30분
적 자주포 파괴 경위 (파괴 주체, 파괴된 적 자주포 대수)	아군이 적 전차 5대 중 2대 파괴, 3대 노획	국군 7연대 1대대의 역습으로 적 전차 5대 중 4대 도주, 1대는 자폭
탈취한 적 자주포를 아군이 보유한 시간	20분	4시간

18) 이대용(1952),『압록강 푸른물』(서울: 삼성출판사) ; 이대용(1964),『통곡하는 승리자』(서울: 휘문출판사)

3) 둘째, 故 심일 소령에 대한 이대용 장군의 증언 중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은 극히 제한된 반면, 제3자 혹은 주변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빼앗기고 중대장에게서 혼이 났다더라.”, 혹은 “심일 중위가 묘향산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도망치던 중 사망했다더라.” 등이다.

   가) 또한 이대용 장군이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대용 장군의 증언 중에는 공식 기록과 상치되거나 틀린 것도 발견되는데, 심일 중위 동생의 경찰 입문 시기와 부친의 친일 경력 관련 오류가 대표적인 예이다.

4) 셋째, 이대용 장군의 증언 중에는 현실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내용이 일부 발견된다.

   가) 예를 들면 과연 6월 25일 오전 10시 경에 이대용 대위가 심일 중위를 ‘목격(目擊)’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대용 대위가 심일 중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둘 사이의 거리는 약 1~1.5Km였으며, 심일 중위는 주변에 농작물, 특히 뽕나무 밭이 둘러싸인 도로를 따라 적으로부터 신속하게 철수하던 중이었다. 또한 당시 기상은 아침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전방 관측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대용 대위가 육안만으로 긴박하게 이동하는 심일 중위를 명확하게 목격했으며, 게다가 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나) 또한,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에 7연대 1대대가 우두산에서 옥산포 방면으로 역습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옥산포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선두부대가 북쪽으로 퇴각했다는 증언 역시 석연치 않다.[20] 춘천전투에 참전했던 7연대 소속 참전자 중 어느 누구도 1960~1980년대 사이에 실시된 증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를 포함한 아군의 기록문서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만약 이대용 장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7연대 1대대가 옥산포 방면으로 역습을 했다면, 1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고지에서 청명한 오전 10시 경에 우두산에서 옥산포까지 물이 가득 찬 논을 가로 질러 1km 이상 노출된 개활지를 달려야 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공적확인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이와 같은 형태의 공격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하였다.[21]

---

19) 이대용(2010),『6·25와 베트남전, 두 사선을 넘다』(서울: 기파랑), 이대용(2014),『두 번의 혈전』(서울: 백년동안)

20) 이대용 장군의 2010년 저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1950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군 제16포병대대의 맹렬한 지원사격을 받으며 국군 제7연대 제1대대 장병들은 산에서 뛰어내려 옥산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달려갔다.” 이대용,『6·25와 베트남전, 두 사선을 넘다』, pp. 30. 하지만 공적확인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만약 적에 대한 포병사격까지 실시된 이후 역습이 시작되었다면, 적은 이미 긴장하여 방어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일 것이며, 따라서 이대용 장군이 주장하는 아군의 역습은 ‘자살공격’과 다름없는 형태였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5) 요약하면, 이대용 장군은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또한 최근의 증언은 과거에 자신이 기록한 것과 차이가 나는 등 그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의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대용 장군의 증언 내용에 대한 치밀한 검증보다는 신뢰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공적확인위원회와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그의 증언을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식 기록문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나. 생존 참전자 : 심호은, 김장근, 김운한

1) 공적확인위원회가 면담한 제16포병대대 출신의 생존 참전자 3명(심호은, 김장근, 김운한)의 증언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들은 개전 당시 심일 중위와 지휘계통 상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2) 심호은 소위는 故 심일 소령과 동향(同鄕)이라서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발언하였다. 그는 6·25전쟁 발발 당시 제16포병대대 당직사관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04시 경에 적 포탄이 부대 막사 근처에 떨어지자 즉시 포대를 지휘하여 준비된 진지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후 새벽 05시 경에 옥산포 인근에서 심일 중위를 목격했는데, 그곳에서 심일 중위가 알려준 적 자주포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심호은 소위는 05:30 경에 봉의산에 올라가서 관측장교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6월 25일과 26일에는 봉의산 정상에서 많은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가) 하지만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심일 중위가 6월 25일과 6월 26일에 적 자주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아니었다. 또한 그가 6월 25일 아침 05:30분경에 봉의산에 올라가서 관측장교 임무를 수행했다는 증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6월 25일 오전에 16포병대대장

21) 공적확인위원회는 피아 기록문서 분석 결과, 6월 26일 오전에 북한군 제2군단 주력부대는 춘천에 대한 공격을 앞두고 옥산포 남쪽 춘천농업학교 인근지역에 집결하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군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에는 "제7연대 제1대대는 적의 포위 위협으로 인해 6월 26일 05시에 소양강을 도섭, 소양강 남안의 지시된 진지를 점령"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에도 6월 26일 오전에 옥산포에 대한 포격을 했다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이 남긴 두 차례의 증언(1964년, 1986년) 녹취록에는 6월 26일 10시 경에 소양강 북안(금강봉 남안 소양강 열목)에서 남안으로 도하하려는 적 1개 소대에 대한 포격, 그리고 12시 경 화천-춘천 도로에 나타난 적 전차 2대에 대한 포격은 언급되지만, 10시 경에 이대용 대위가 속한 1대대의 역습을 지원하기 위해 옥산포에 대한 30분 동안 사격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1986년 증언에는 제16포병대대 소속의 참전자 김성, 최갑석, 박영재, 김운한, 김장근 등이 참석하였는데, 이대용 장군이 주장하는 6월 26일 역습 상황에 대한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1960년대 이후 실시한 제7연대원 중 춘천전투 참전자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 증언 중에서 6월 26일 오전 옥산포 기습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김성 소령은 우두산 관측소에 있었는데, 예하 관측장교가 후방의 봉의산 관측소로 갔다는 내용은 전술교리 상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3) 김장근 중위는 6월 25일 아침에 출동한 이후 심일 중위를 옥산포 인근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당시 심일 중위가 자신에게 "적 탱크가 저 앞에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맡을 테니, 중대장님은 빨리 후방으로 철수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본인은 즉시 소양강 남안으로 철수했으며, 이후 춘천 시내의 포진지에서 관측장교의 통제에 따라 포 사격을 지휘했다고 진술하였다.

가) 김장근 중위는 증언 도중 비교적 객관적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한 경향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은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되 알지 못하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났다. 다만, 그 역시 심일 중위가 실제로 적 자주포를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은 아닌 것은 명확하다.

4) 김운한 대위는 춘천전투 당시 심일 중위를 만나거나 혹은 직접 목격한 인물은 아니었다. 김운한 대위도 이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공적을 세웠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그의 공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확인위원회와의 면담에서 6월 25일 아침에 심일 중위가 배치된 곳은 춘천 북방이 아니라 가평 방면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아군 기록문서나 다른 참전자의 증언과 큰 차이가 있다.

가) 김운한 대위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가 증언 도중 수차례 '춘천대첩은 보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포병의 역할로 인해 얻어진 승리'라는 맥락으로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면담 도중에 "적 전차를 부순 사람은 심일 중위가 아니라 포병 16포병대대의 강기회 중위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김운한 대위의 최근 증언은 1966년에 자신이 심일 중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 즉 춘천에서 심일 중위가 적 전차를 저지함으로써 자신이 16포병대대의 포탄을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 것과 차이가 있다.

다. 춘천 거주 학생 : 김OO

1) 육군 군사연구소는 개전 당시 춘천사범학교 학생이며, 특히 제16포병대대 탄약고로부터 후방으로 포탄을 날랐다고 주장하는 김OO씨를 면담한 뒤, 그가 증언한 내용 중에 6월 26일 오전에 소양교에서 전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가 오류이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되었다.

2) 김OO씨는 공적확인위원회와의 면담에서도 자신이 6월 25일 오후부터 6월 26일 오전까지 소양강 북방의 제16포병대대 탄약고에서 춘천사범학교 강당으로 탄약을 운반하는 과정에 참가했다고 증언했다. 물론 김OO씨가 6월 26일 오전에도 포탄 운반에 참가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의 증언은 제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에 기록된 내용, 1960년대 이후 채록한 다른 참전자의 증언과 일부 차이가 있다.

   가) 김OO씨의 증언 중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탄약을 옮겼다는 장소, 즉 춘천사범학교의 위치이다. 이 학교는 소양교로부터 홍천 방향으로 약 6~7km 이상 이격된 학곡리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포병진지가 없었으며 당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소양강 북방 옥산포까지 효과적인 사격지원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실제로 춘천전투 첫날과 다음날 제16포병대대 포대들이 포진한 곳은 춘천사범학교가 아니라 춘천역 부근과 시내 동쪽의 우시장 인근이었다.

3) 이상에서 이대용 장군을 포함한 생존 참전자와 당시 춘천전투 목격자의 증언을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구술 증언이 춘천전투에 대한 전체적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을 근거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춘천전투가 발생한 지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 와서 이들의 증언을 근거로 사건 발생 직후에 생산된 공식 기록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2장 춘천전투와 심일 중위의 공적

제1절 6·25전쟁 초기 전황 및 춘천전투 개관

제2절 심일 중위의 전투 중 공적

제2장 춘천전투와 심일 중위의 공적

제1절 6·25전쟁 초기 현황 및 춘천전투 개관

1. 북한의 남침과 초기 전투

가. 북한은 소련, 중국과 협의하여 “전면공격으로 신속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한다.”는 남침 전략 하에 북한 주재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완성하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공격 개시 5일 전인 1950년 6월 20일에 구체적 작전계획을 예하 각 사단에 하달하였다.

나. 선제타격작전계획의 1단계 작전은 주공부대인 북한군 제1군단이 금천-구화리, 연천-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압박하고, 조공부대인 북한군 제2군단이 화천-양구에서 서울 동측방과 수원 방향으로 우회하여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원주-삼척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단계와 제3단계 작전은 제1단계 작전에 이은 연속작전으로 전과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다. 북한이 남침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면서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국군은 빈약한 무기와 장비, 훈련 부족 등으로 전력의 극대화나 유사시 전력의 집중적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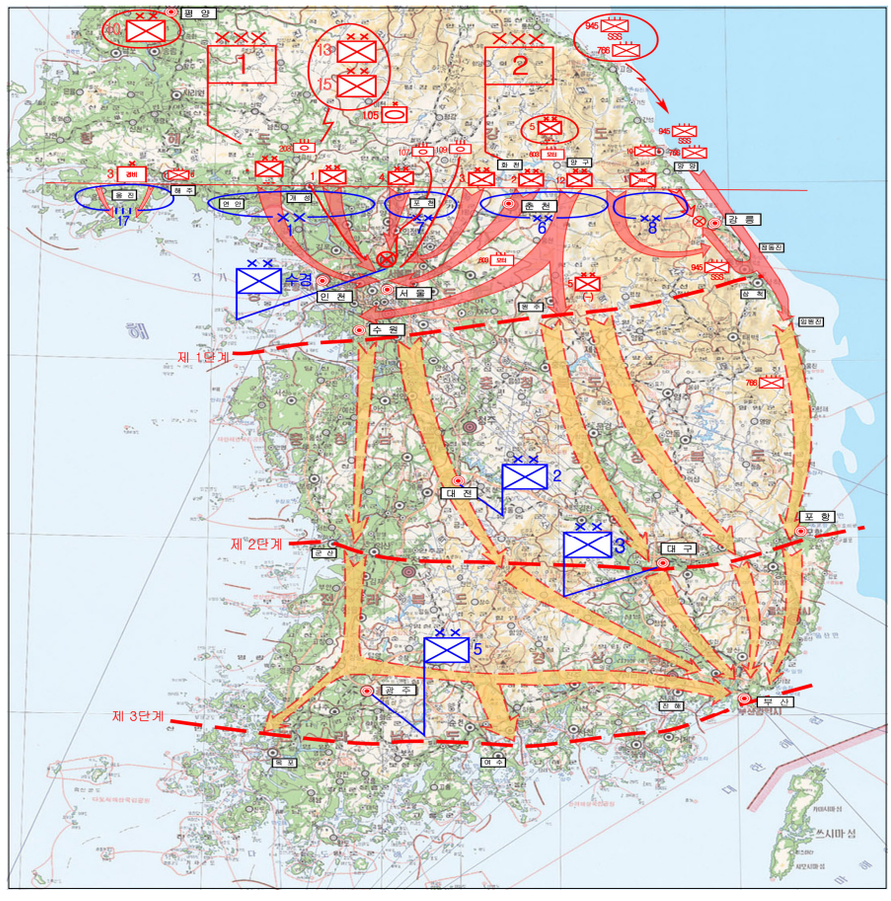
라. 6·25전쟁 직전 국군이 보유한 병력과 장비는 북한군에 비해 현격하게 열세였다. 특히 전방 방어지역에서의 국군 방어부대와 북한군의 38도선 전개부대만을 비교했을 때 그 격차는 더욱 컸다. 더욱이 전쟁 발발 당시 국군 38도선 경계부대의 전체 병력 중 약 1/3이 외출했기 때문에 실제 병력 비율은 훨씬 격차가 심했다.

<예상 접근로별 피·아 병력 비교>

접근로	국군		북한군		비율
	병력	부대	병력	부대	
문산-서울	9,715명 (5,000명)	제1사단	21,000명	제1사단, 제6사단(－), 제203전차연대	1:2.2 (1:4.2)
의정부-서울	7,211명 (4,500명)	제7사단	32,000명	제3·제4·제13사단, 제105전차여단(－)	1:4.4 (1:7.1)
화천-춘천 인제-홍천	9,112명 (미상)	제6사단	36,938명	제2·제12·제15사단, 제12모터사이클연대	1:4.1
양양-강릉	6,866명 (미상)	제8사단	17,000명	제5사단, 제766부대, 제945육전대	1:2.5

* ( )은 외출·외박을 제외한 실제 병력.

<북한의 남침 작전계획(선제타격계획)>



<북한군의 3단계 작전계획>

단 계		진출선	작전종심	작전기간
1단계	국군 주력 포위격멸단계	수원－원주－삼척	90㎞	5일
2단계	국군 증원병력 격멸 및 전과확대단계	군산－대구－포항	180㎞	14일
3단계	남해안 진출 및 국군 잔적소탕단계	남해안 지역	80㎞	10여일
“38도선에서 남해안까지 작전종심 350㎞를 한 달 만에 수행하여 작전 완료”				

마. 무기와 장비의 전력 비율은 병력의 격차보다 더욱 심하였다. 더욱이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신형장비로서 전투 예비량까지 확보하고 있었던데 비해, 국군이 보유한 무기와 장비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노후장비였으며, 그마저도 수리부품이 부족하여 병기장비의 15%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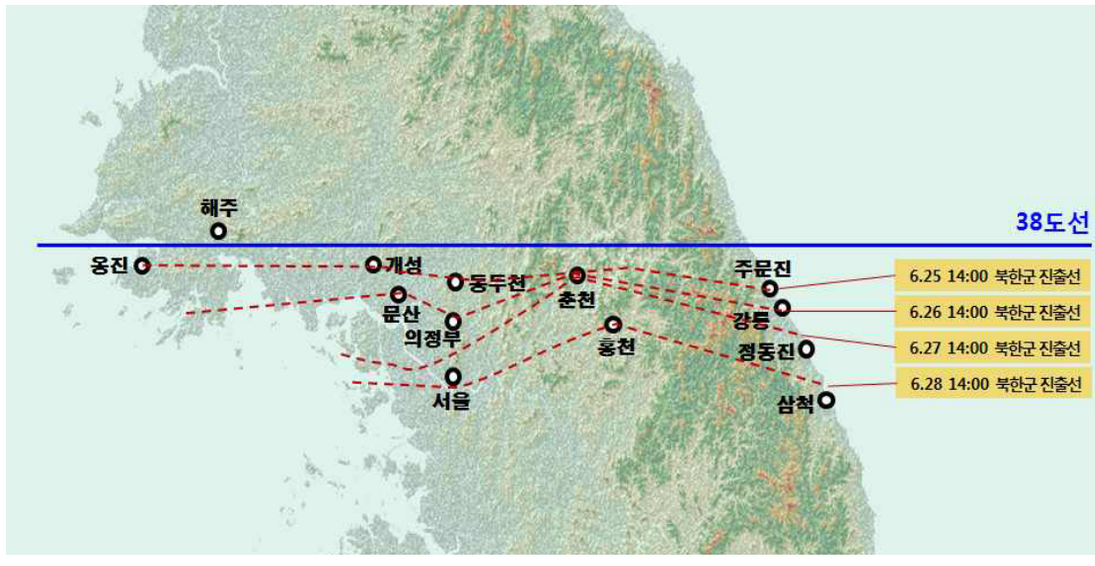
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이라는 제1단계 작전목표 하에 제1·제2군단이 협조된 공격을 감행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은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고,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전선의 강릉 지역에서도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사. 기습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투력으로 국군의 38도선 방어진지를 곳곳에서 돌파하였다.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국군은 옹진, 개성-문산, 동두천-포천, 춘천-홍천, 강릉 지역에서 결사적인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아. 그러나 병력·무기·장비·훈련 등 모든 면에서 북한군보다 현격히 열세하였던 국군은 6월 26일 서부전선의 주저항선인 파주와 의정부 지역이 적에게 돌파 당하고, 이어 6월 27일에는 창동 방어선이, 그리고 6월 28일 새벽에는 서울 방어를 위한 최후저항선인 미아리-회기동 방어선이 붕괴되면서 최고조의 위기에 처했다.

자. 전 전선이 붕괴될 위기에서 동부전선의 제6사단(춘천)과 제8사단(강릉)이 하천선을 이용한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국군은 전선 붕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춘천 지역의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조공부대인 제2군단의 공격을 3일간 성공적으로 막아냄으로써 "서울 동남방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주력을 포위 격멸한다."는 북한군의 공격계획과 의도에 차질을 가져왔다.

< 6·25 전쟁 초기 북한군의 일자별 진출선 >



차. 이처럼 춘천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이 적의 공격을 저지함에 따라 서부전선의 국군은 가까스로 한강방어선을 형성하여 6일간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저지하고, 유엔군이 증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춘천전투

가. 춘천전투는 1950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춘천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북한군 제2군단 소속의 제2사단과 제12사단의 기습 공격을 받고 3일간 춘천을 사수한 방어전투이다. 그 결과 '서울 동남방으로 진출하여 국군의 주력을 포위, 격멸한다'는 북한군의 최초계획이 좌절되었으며, 반면에 국군은 한강방어선을 형성하여 유엔군이 증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 북한군 제2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운용, 편성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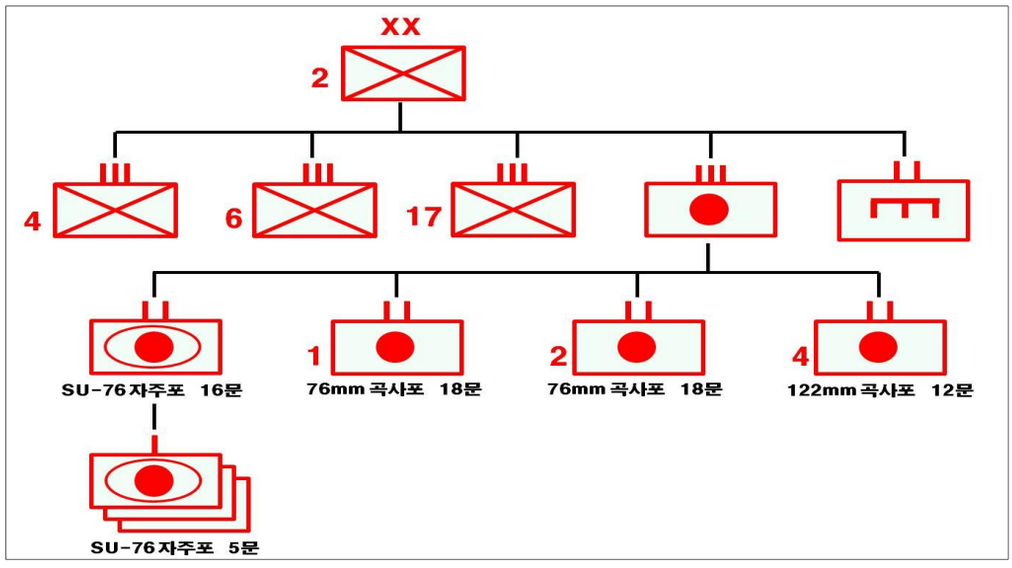
· 작전개념 : 춘천-가평 점령 후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 국군의 증원차단 및 주공인 1군단의 좌측방 엄호

· 부대운용

- 1일차 : 춘천 방면의 국군 병력을 격파한 후 가평 방향 진출
- 2일차 : 가평-서울 간 도로로 진격, 덕소에서 한강도하 후 서울 동남쪽 진출

※ 북한군 제12사단 제31연대 : 춘천 방면 투입/추곡리-대곡리 선 공격

· 편성표



나. 북한군의 기습 남침 당시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 제2연대를 홍천 북동쪽에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예비로 원주에 주둔시켰으며 사단의 방어정면은 약 84㎞에 달했다.

< 국군 제6사단의 작전개념 및 부대운용, 편성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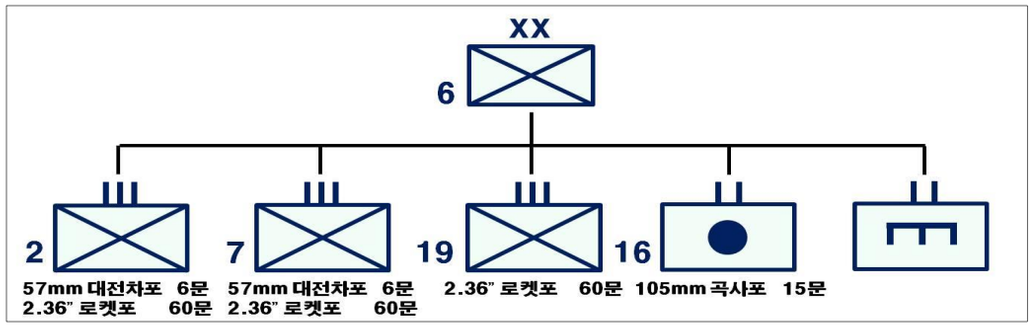
· 작전개념 : 춘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적의 공격 시 진지 전방에서 이를 격파하여 38도선 확보

※ 제일선 3단계(경계진지, 주저항선, 최후저항선) 작전개념에 의한 전투실시

· 부대운용 : 제7연대

- 적 예상 접근로(화천-춘천)에 포병화력 집중운용 : 제16야포대대 배치
- 적 예상 접근로에 대전차진지 구축(9개 지역) : 공병중대 배속

· 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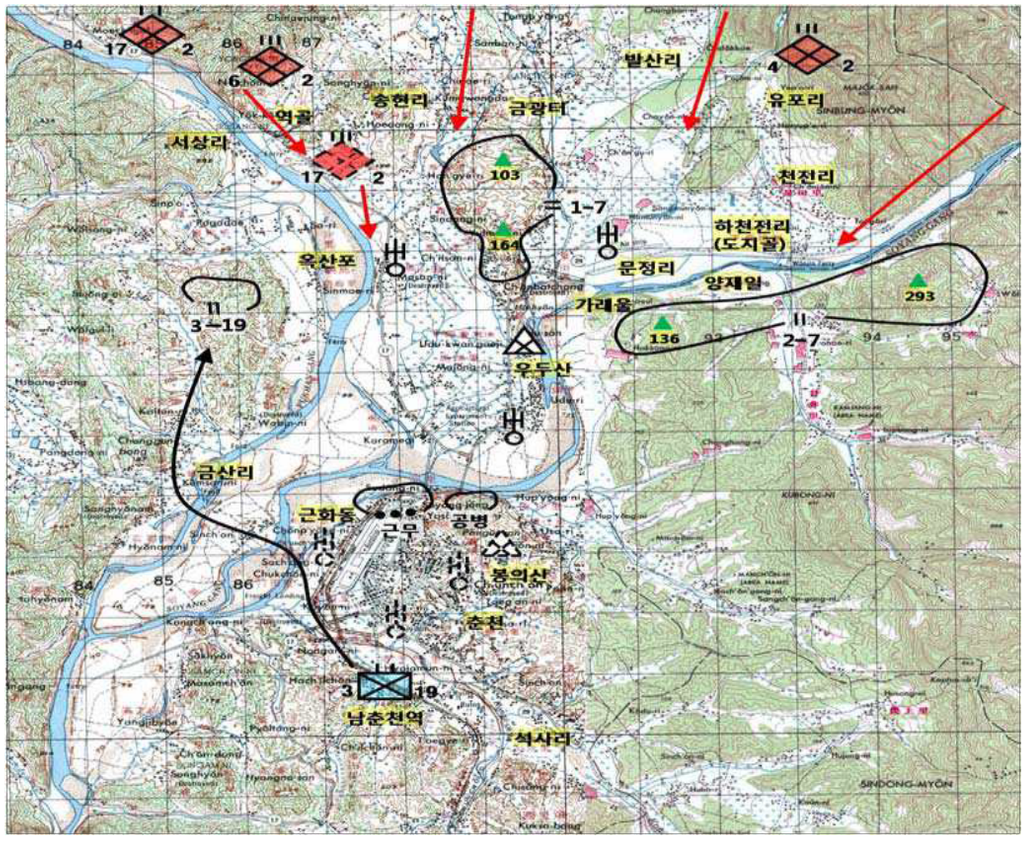
다. 국군 제6사단 정면의 북한군은 국군을 포위 섬멸하고 고속기동부대를 수원 이남으로 우회시켜 국군의 퇴로 및 병력증원을 차단한다는 계획 하에 제2군단을 투입하였다. 화천-춘천 축선에는 북한군 제2사단이, 인제-홍천 축선에는 제12사단과 고속기동부대인 제603모터사이클연대가 투입되었으며, 제5사단(-)이 제2제대로 활용되었다. 이 지역에서 북한군 공격부대의 전투력은 국군보다 병력면에서 4배, 화력면에서 10배 우세하였다.

라. 춘천의 국군 제6사단 7연대는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화천-춘천 방면에 제3대대를, 조공 축선으로 예상되는 양구-춘천 방면에 제2대대를 각각 배치하였다. 이 지역으로 공격하는 북한군 제2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를 투입했다.

마. 남침 공격 첫날(6월 25일) 소양강을 도하하여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은 제16포병대대의 정확한 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어 계획 달성에 실패하였다. 제6사단의 작전에서 원활한 포병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이날 오후 2시 경 옥산포에서 심일 중위가 북한군 SU-76 자주포 3대를 파괴함으로써 옥산포 후방 4㎞ 지점에 있던 포병진지와 탄약(5,000발)을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 6월 26일 소양강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6시간에 걸쳐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국군 제6사단은 소양강변과 봉의산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자주포와 각종 화포를 앞세운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경 심일 중위는 소양교에서 적 SU-76 자주포 3대를 파괴함으로써 적의 소양강 도하를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적은 6월 26일에도 소양강 도하에 실패하고, 6월 27일에야 비로소 춘천을 점령하였다.

<소양강 북쪽 이분 주진지전투 상황도(1950. 6. 25)>



사. 국군 제6사단은 6월 27일 오후까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한 후 춘천 외곽의 원창고개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3일 동안 춘천에서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지연시켜 서울 동남쪽과 수원 방면으로 우회하여 국군의 퇴로와 증원 병력을 차단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 반면 국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제2절 심일 중위의 전투 중 공적

1. 6월 25일 전투(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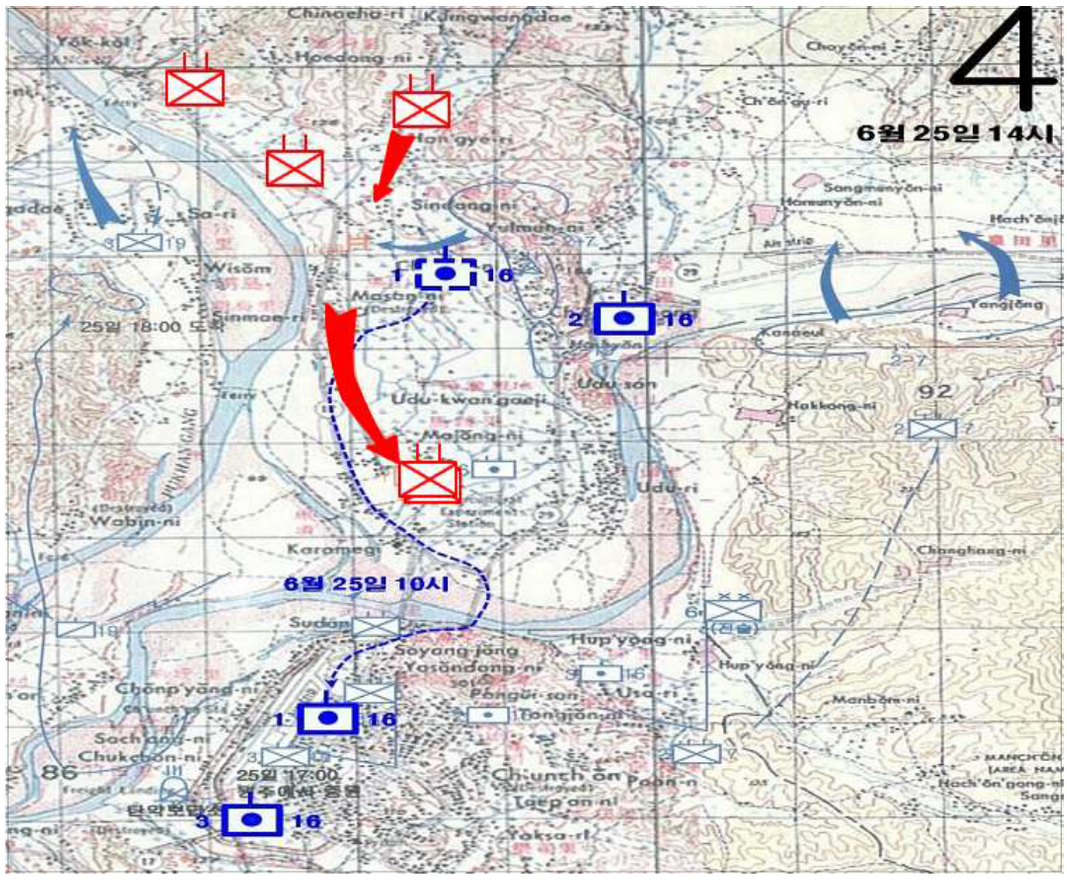
가. 전투 경과

1) 1950년 6월 25일, 춘천 점령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제2사단은 강력한 포병 공격 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05시를 기해 국군 제7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화천-춘천 간 5번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가) 주타격부대인 제6연대와 배속된 자동포대대는 화천→춘천 가도를 따라 진격했으며, 보조타격부대인 제4연대는 고탄리→발산리→천전리 방향으로 진격하는 등 13시 경까지는 순조롭게 공격이 진행되었다. (『라주바예프 6·25 전쟁보고서』 2권, 306;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권, 258-263.)

2) 이처럼 북한군의 기습적, 압도적 공격이 개시됨에 따라 38선 진지에 배치된 국군 제7연대 3대대는 압도적인 적의 공세에 밀려 38선 진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춘천전투 상황도 (1950. 6. 25)>



3) 국군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이른 아침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소대(대전차포 2문)를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여 적을 저지하는 한편, 연대본부 지역의 제1대대를 우두산 고지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토록 하였다.

가) 대전차포를 전방에 추진하라는 명령에 따라 모테이벼루에 급파된 제7연대 대전차포 중대 제2소대장 심일 중위는 09시 경 5번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자주포를 발견하고 대전차포격을 가해 명중시켰으나, 적 자주포가 파괴되지 않고 움직이자 옥산포로 철수, 후방에 있던 다른 1문을 포함하여 2문을 재배치하였다.

나) 제7연대를 지원하는 제16포병대대는 A포대 105mm 포 2문을 옥산포까지 추진시켜 포사격을 했으나 적의 박격포탄이 포대에 떨어져 10시 경 소양강 이남으로 철수하였다. (16포병대대 <부대역사일지>, 김장근 증언)

4) 자주포를 앞세운 북한군이 14시 경 옥산포를 공격해오자,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장 심일 중위는 다가오는 적 자주포 2~3대를 파괴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이에 따라 후속하던 적의 자주포들은 방향을 돌려 북쪽의 서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5) 북한군의 퇴각으로 옥산포 후방 약 4㎞ 지점에 위치해 있던 제16포병대대는 진지가 피탈되는 위기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탄약고에 보유하고 있던 포탄 1기수(약 5,000발)와 백미 4트럭분을 안전지대인 소양강 남안으로 후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제16포병대대는 이후 제6사단이 춘천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원활한 포병지원이 가능했다.

6) 6월 25일 오후, 적 자주포가 퇴각하자 7연대 대전차포중대는 소양강 남안으로 진지를 전환하여 적의 소양강 도하에 대비하였다.

7) 이처럼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소대가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것은 개전 당일 춘천을 점령한 후 가평방면으로 진출하려던 북한군 제2사단의 작전기도를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옥산포 전투 中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한 사실에 대한 논란

1) 옥산포에서 심일 중위가 전투를 지휘하였으며, 특히 적 자주포를 파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대용 장군과 일부 참전자의 구술 증언에 기초한다.

가) 7연대 1대대 1중대장 이대용 대위는 최근 여러 차례 증언을 통해 "심일은 대전차포로 적 자주포를 공격하였으나, 적 자주포가 파괴되지 않자 도망갔다. 또한 6월 25일에 국군이 적 자주포를 파괴한 것은 없고 적 자주포가 파괴된 것은 6월 26일 제1대대가 옥산포를 기습했을 당시 북한군이 스스로 폭파한 1문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대용 대위는 6월 25일 오전 10시 경에 심일 중위가 '도망'가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나) 심호은 소위(16포병대대 지휘소대장)는 “6월 25일 아침 5시 경 옥산포에서 심일 중위를 만났다.”고 증언했으며, “이후 소양강 이남의 봉의산에 올라가서 관측 장교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심일 중위가 적 전차를 파괴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 심일 중위가 옥산포 전투에서 7연대 대전차포소대를 지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는 다양하다. 이들 중에서 특히 피아의 기록문서에 남겨진 당시 전황에 대한 기록을 눈여겨봐야 한다.

가) 아군 기록문서 중 1950년 7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에 6월 25일 7연대가 올린 전과를 ‘적 장갑차 2대 파괴, 1대 노획’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51년에 작성된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도 6월 25일의 전투에 대하여 ‘14시 경 옥산포 민가에 은폐해 배치된 대전차포로 적 전차 2대 파괴’라고 기록하였다. 한편 제16포병대대의 <부대역사일지>는 6월 25일 오후 상황에 대하여 ‘아군 대전차포가 적 장갑차 3대 파괴’라고 기록하였다. 물론 이 세 개의 아군 기록에서 ‘심일 중위’ 혹은 ‘심일’이라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날 옥산포 인근 전투에서 적 장갑차 2대 혹은 3대가 아군 대전차포에 의해 격파된 것은 ‘기록된 사실’임에 틀림없고, 당시 이 지역에서 대전차포를 운용한 부대는 심일 중위가 지휘하던 제2소대였다.

나) 1951년 4월에 美 제1해병사단은 춘천 북방(North of Chunchon)에서 파괴된 적 76mm 자주포 3대를 촬영하였으며, 이를 사단 역사 자료로 남겼다. 공적확인위원회 확인 결과 이 사진에 찍힌 파괴된 적 자주포가 놓여 있던 곳은 옥산포로 추정되며, 이들은 북한군이 소련군으로부터 제공 받아 개전 초부터 운영하였던 것과 유사한 모델로 확인되었다.

다) 북한군 제262군부대(자동포대대) <훈장(훈패) 수여장>의 개인별 공적서에는 제3중대 자주포 운전병 3명이 춘천면 마산리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며, 그 중 2명은 불타는 자동포(자주포)와 함께 전사하고, 운전수 1명은 불타는 자동포에서 뛰어내려 교전하다가 전사 및 수명이 부상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 2사단 자동포대대 3중대는 ‘결사대’로서 보병에 앞서 신속한 공격으로 남진함으로써 보병부대의 진격속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공격은 진격속도가 늦은 것을 염려한 북한군 제2사단장 이청송의 명령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2군단장 김광협이 직접 공세 독촉의 엄명을 내렸으나, 제2차 공격에도 실패했다는 주영복의 기록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고려원, 1990), pp. 286-289.)]

라) 이날 국군 7연대 정면에서 관측된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 소대의 기습은 북한군 자동포부대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 북한군 제262부대 <훈장(훈패) 상신서>의 내용 중 '불의에', '별안간에', '50m 근거리에서 105mm포 1문, 57mm포 1문을 목격했다' 등으로 표현된 것은 아군 대전차포 소대의 포 2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일 중위는 적 자주포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옥산포 인근에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 및 엄폐한 상태에서 적이 상당히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는 유인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 북한군 선두 자주포는 국군 포 2문과 포차를 향해 포사격과 함께 돌격의 형태로 밀어붙였는데, 훈장 상신서에서는 이를 '깔아뭉갰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대전차포소대의 3/4톤 포차 1대와 대전차포 1문이 적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파괴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국군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에 기록된 전과 및 아측 피해와 일치한다.

3) 한편 심일 중위가 전투를 지휘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술 자료는 심일 중위의 지휘관 및 부대원, 춘천전투 목격자, 옥산포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다.

가) 심일 중위가 소속된 제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심일 중위가 특공조를 편성하여 준비한 휘발유병과 수류탄으로 불을 내어 적 자주포 2대를 파괴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7연대 전차포중대장 송광보 대위는 심일 중위가 소대원들을 지휘해서 휘발유병으로 적 전차 2대 파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가 "심일 소대가 대전차포 사격 이후 뒤따라 휘발유병, 수류탄 공격 했다."고 증언한 내용은 북한측 기록에서 자주포 3대의 경우 모두 "자동포에 불이 붙었다"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옥산포 전투 당시 7연대장 임부택 중령과 함께 우두산 관측소에서 멀리 대전차포 2문이 있던 곳에서 불이 확하고 두 번 일어난 것을 목격한 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의 증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나) 심일 중위가 지휘한 대전차포 제2소대의 포수였던 오봉환 하사는 아군의 대전차포 사격으로 인해 적의 선두 전차 운전수의 목이 날아갔으며, 이에 따라 첫 번째 전차가 정지하자 뒤따르던 두 번째 전차가 첫 번째 전차와 충돌한 이후 정지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오봉환 하사는 심일 중위와 함께 전투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중요한데, 그 역시 전체적으로 적 자주포를 파괴함에 있어서 소대를 지휘한 심일 중위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옥산포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에 있었던 송인규 중위 등 다수의 증언에서도 적 자주포를 파괴한 심일 중위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한편 유엔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에 거주한 북한군 장교도 6월 25일 옥산포 전투와 이 전투에서 파괴된 적 자주포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북한군 제2사단 제17연대 군악대 악장 출신 홍광옥 중위는 6월 25일 오후부터 춘천농업학교까지 포탄을 수송하던 중, 파괴된 탱크 여러 대와 불에 타죽은 운전병들의 시체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안천, 『남침 유도설 해부』(서울: 교육과학사, 1993), pp. 466-468.)]

라) 피아 군인이 아닌 제3자적인 입장인 옥산포 근처 거주 주민들의 증언에서도 옥산포 전투에서 파괴된 적 자주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김정옥씨는 구술 증언을 통해 "피난 갔다가 돌아와 시아버지와 함께 전장 잔해를 치웠는데, 옥산포 마을에서 3대 정도의 부서진 전차를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춘천시 우두 3동 거주, 1977년 6월 27일 증언) 한편 이학근씨도 "전쟁 중에 피난에서 돌아왔더니 마을 커브길 나무 아래에 적 탱크 2대가 파괴되어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탱크에 올라가서 놀았다. … 중공군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다."고 증언하였다. (1935년생, 옥산포 북방 신동리 거주 주민, 2017년 2월 2일 증언)

다. 소결론

1) 6월 25일 14시 경, 옥산포에서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 소대가 북한군 자주포 2~3대를 파괴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군 제6사단 및 육군본부의 역사 자료, 북한측 문서 자료, 참전자 증언이 큰 괴리 없이 정합하므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옥산포에서 제7연대 대전차포 소대가 적 자주포를 파괴한 것은 대전차포 소대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용맹하게 싸운 결과로 추정된다. 대전차포 사격에 의한 적 자주포 정지에는 대전차포 포수의 활약(오봉환과 분대장), 차후 적 자주포 폭파 소각에 있어서는 심일 중위와 특공조 임무분담, 그리고 매복 공격 장소 선택, 공격 방법 선택 및 준비 등 작전 전반에 있어서는 심일 중위가 지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이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소대가 옥산포 전투에서 막무가내로 밀고 내려오는 적 자주포를 파괴한 효과는 매우 컸다. 무엇보다도 국군 장병, 특히 제7연대 장병 전체의 사기가 고양되었다. 반면, 믿었던 선두 장갑차 부대가 예상치 못한 역습으로 파괴되자 적 사단장은 충격을 받고 '도피'하는 등 적 지휘체계가 와해되어, 춘천 방면으로 공격하던 적 제2군단의 진격을 수 시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아군 제16포병대대가 소양강 북쪽의 탄약고로부터 포탄 5,000발을 소양강 남안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한 소양강 남안을 따라 방어진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 1 옥산포 주변 전투상황

[옥산포 주변 전투상황[1/2] : 적군 (북한군 제2사단)]

6. 25	새벽-오전까지 순조로운 진격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권, 258-263.)** "춘천방면의 제2군단 우익에서 진격하는 제2보병사단은 적 방어선을 돌파한 후 6월 25일 아침 6시 40분 무렵 4km 내지 6km를 전진하였으며, 오후 1시 무렵에는 신북리, 발산리 지역까지 진출하였지만, 그곳에서 북한강, 소양강 남안에 전개한 적으로부터 조직적인 저항을 받았다."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306.)**
	(자동포대대 제3중대 1소대 포대장 허경훈) "춘천시에 가기 전 부락에서 적의 직사포와 중기들의 불의의 양면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을 때 적에 용감하게 포사격을 하여 가옥 안에서 사격하는 적의 보병들을 소멸시키고 소대장 및 전체 승무원들과 함께 적 직사포를 깔구 넘어간 후 자기 자동포에 불이 붙게 되었을 적에 조격무기로서 적의 화력가운데서 그들과 대항하였다." **(제262군부대 훈장 상신서, 노획문서)**
	(자동포대대 3중대 운전수 김학범) "상기동무는 3중대 자동포의 운전수로서 6·25 전투개시이래 38선을 넘어서면서 적들의 완강한 방어선을 돌파하고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춘천면 마산리 전투에서 적은 완강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포 화력과 각종 화력으로 아군 보병의 진공을 조해시킬 때 부대장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3중대는 돌격조로 적 방어전까지 돌입하게 되었다. 이때 이 동무는 3중대 선두에 서서 적의 완강한 방어선에다 포사격을 하면서 방어종심까지 돌입하여 적의 영구화점, 토목화점, 중기화점 기타 유생력량들을 소멸시켰다. 결과 영구화점 1개, 토목화점 3개, 중기화점 5개를 소멸하면서 적 방어 종심으로 돌입하였다. 불의에 50m 전방에서 105mm포 1문과 적의 퇴각하려는 자동차에 적 약 1개 소대가 승차한 것을 발견. 이때 운전수의 결심에 의하여, 자동차를 깔고 넘어감으로 자동차와 적 보병을 소멸시키자 자동포에 불이 달니게 되었다. 불붙은 자동포로 전방에 있는 적 105mm포를 깔고 불타는 자기의 무기 자동포와 함께 영용하게 전사하였다." **(제262군부대 훈장 상신서, 노획문서)**
	(자동포대대 3중대 운전수 차한상) "상기동무는 3중대 운전수로서 38선의 완강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적의 영구화점 중기화점 토목화점 및 유생력량들을 소멸하였다. 특히 춘천면 마산리전투에서 부대장 명령에 의하여 3중대는 돌격조로 적의 방어선까지 돌입하게 되었다. 이때 이동무는 자기 자동포를 운전하여 두 번째로 적 방어종심까지 돌입하여 적의 영구화점 중기화점 토목화점 및 적의 유생력량들을 소멸시켰다. 결과 영구화점 1개 토목화점 2개 중기화점 4개 및 적유생력량들을 소멸시키였다. 별안간에 50m 전방에서 105mm 1문, 57mm 1문과 자동차에 승차한 적 보병 1개 소대를 발견. 운전수는 자동포로 적 보병들이 승차한 자동차를 깔아 전부 소멸시켰다. 자동차를 깔자 휘발유 땅크로부터 불이 발화하여 자동포에까지 불이달였다. 그래서 자동포에서 하차하여 조격무기로 적 보병들과 맹렬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였다." **(제262군부대 훈장 상신서, 노획문서)**
	(자동포대대 3중대 운전수 전의원) "상기동무는 춘천면 마산리 전투에서 지상포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였을 때 자동포대대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때 적이 포화력이 심하여 아군 보병의 진공을 조해하였다. 그때 부대장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3중대는 결사대로 보병서열을 앞서 적 방어종심까지 돌입하여 적이 토목화점 중기화점 및 적 유생력량들을 허다히 소멸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결과 토목화점 4개 중기화점 4개 적 보병 약 2개 소대를 소멸케하였다. 이때 별안간에 50m전방에서 적 105mm 57mm 직사포가 발견되었다. 이때 운전수는 결심하고 지휘관의 명령대로 적포 2문을 자동포로 깔고 마랐다. 이때 자동포에 불이 달리게 되자 하차하면 적 보병한데 포로되기가 위험하게 되었다. 그레 이는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자기 자동포와 같이 영광스럽게 전사하였다." **(제262군부대 훈장 상신서, 노획문서)**

[옥산포 주변 전투상황[1/2] : 아군 (국군 제6사단, 제16포병대대)]

6. 25	05:30 포병 비상경계 돌입 07:00 275고지정면 적 전차 약 20대 출현 08:30 용산리 부근에 적 박격포탄 낙하, 고탄-사북지서(3대대 9중대) 적은 전차8대, 포8문의 전위대대 2사단 09:30 포2중대(B중대) 우두동 출동 10:00 옥산포 진지점령 포1중대(A포대) 적 박격포탄 집중낙하로 춘천역 우측고지로 진지이동. **(16포병대대 부대일지; 김장근 A포대장 증언, 2016년 12월 27일)** *** 심일의 대전차포 소대 출동과 전투** - "12:00 아 대전차포는 일제히 포구를 열어 적 전차에 대하여 명중탄을 퍼부어도 적의 탱크는 거대한 흉체로서 서서히 남하."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
	14:00 아 대전차포중대장은 간단없이 쏟아지는 적 포탄에도 늠늠히 남하하는 적 전차에 격분하여 (CS874-974)에서 탱크에 대하여 대전차포 육박공격을 계획하고 민가에 의탁 대기하고 있다가 적 전차가 근박함에 포격을 강행하여 적 전차 2대를 격파 각좌시켜 수답을 낀 주로를 봉쇄 적을 격퇴시켰다. 대전차포중대장은 적의 탱크에 뛰어들어 땡크 탑승원을 생포하였음.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
	(오봉환, 대전차포 2소대(심일소대) 포수, 1966. 5. 9 면담) "옥산포 쪽으로 가서 포를 쏘면서 조금 있으니까 탱크가 오더군요. 우리가 대전차포를 쏘니까 탱크 위에 나와 있는 운전수가 맞어가지고 모가지가 달어났습니다. 그때 거리는 불과 200m밖에 안 왔습니다. 쾅하고 쏘면 탱크가 맞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서 옆으로 엎드렸는데. 그냥 또 나옵니다. 앞에 오던 전차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뒤에 오던 전차가 부닥쳐가지고 세 번째 오던 전차는 다시 돌려 가지고 도망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장이 연대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전과를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포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말을 들었습니다."
	(**주락한, 대전차포중대 포수, 1965. 8. 10 면담**) "거기서 나온 애들의 말을 들으니까 2대는 57mm에 맞아서 파괴되고 3대째는 운전병만 죽었다고 합니다..."
	(김 성 소령(제16포병대대장) 증언, 1967. 9. 29); "그렇게 한참 포격을 당하다가보니까 임부택 장군이 저게 머냐고 해요. 저것이 도라꾸냐 탱크냐해서 보니까 먼데지만 전차같이 보여요. 먼데서 보는 거지만 포신이 꾸부정하게 보이는데 5-6대 보여요. 그러니 저놈들이 나오는 속도와 내가 포병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맞지를 않겠어요. 큰일났어요. 어떻게던지 포를 끌고 강을 건너서야 할텐데 명령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부락에서 불이 확 일어나거던 그래서 임부택 장군보고 저기 불이 납니다. 하는데 또 확 일어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전차가 뒤에서 2대가 삥 돌더니 뒤로 다라나요. 거기에 대전차포 2문을 배치를 하기는 했는데…" **(7연대장 임부택 중령, 전사편찬위원회 위원과 면담 시 증언, 1964. 10. 30)** (심일 소위가 전차를 두 대 파괴했다고 하는 데, 어느 곳입니까?) 그것이 춘천 옥산포이지. 숲에 숨어 가지고 (----)부터 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것이 적의 전차에 마저도 끄덕끄덕하면서 오고 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돌산에 배치해가지고도 안돼서 결국은 미리 준비한 병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육박했지. 결국은 뒤에서 불을 지른 것이지. 여기서 사병 하나가 죽었지. 이름은 모르겠어. (중략) (결국은 최초의 태극무공훈장을 탔다고 했는데, 정말 나왔습니까?) 그때 실버스타가 나왔지. 그때는 미국이고 한국훈장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 여하간 보고는 했으나 탔는지 안탔는지는 모르겠어. **(동석한 김종수 제2대대장의 증언)** **(7연대장 임부택 중령, 1985. 4. 26 군사연구실 수기(手記) 증언)** "연대 대전차포소대장 심일 소위는 용감한 부하 일개 분대를 선출 특공대를 편성하여 수류탄과 휴발유병을 휴대하고 적 전차 침입로에 잠복 육박으로 선두전차 2대를 격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선두전차가 화염을 토하자 진로가 가로막힌 후미전차 10여대는 당황하여 엄호중인 보병과 같이 전진방향을 바꿔 후퇴하려고…"

[옥산포 주변 전투상황[2/2] : 적군 (북한군 제2사단)]

6. 25	"사단장은 춘천을 점령하기 위하여 서상리(춘천서북 9km), 한계리 선에서부터 제2제대인 제17보병연대를 제6연대와 합동으로 전투에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다. 2개 연대가 종대대형으로 진격을 개시하여 발산리를 점령하였다. 하지만 잘 조직되지 않은 지휘체계, 정찰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대들은 발산리 서남방 고지로부터 기습적이고 강력한 포격을 당하였다. 사단은 큰 손실을 입고 지휘부마저 상실하여 공격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사단장은 예하 부대들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였으며, 전투지휘는 하지 않은 채 포병대대장과 함께 자주포용 차량을 타고 도피하였다." **(『라주바예프 보고서』 1권, 160-161.)**
6. 25 오후	"정오부터 께름찍했던 전황이 더욱 악화되어 전체 요원은 온 신경을 집중했다. 특히 군단장 김광협 소장과 최인 소장의 안색이 흑색이 되었다. 알고보니 제2사단 관하의 모든 부대는 38선을 무너뜨리고 우두평야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거센 파도와 같이 밀고 내려갔으나 소양강 북쪽에서 1차총공격이 실패하고 옥산포, 천전리 선에서 국군 제7연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이 저지된 것이다. 군단장은 추상같은 돌격을 명령했으나 2차의 공격도 실패했다. 일부 선발대는 소양강 북안에 도달했으나 도하준비 부족으로 멈췄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권 269.)**
6. 25 저녁	**북한군 제2사단의 6월 25일 진출선** "25일 저녁에는 벌써 춘천시를 앞둔 1킬로 내지 2킬로 지점에 육박하였다." **(『로동신문』 1950년 7월 5일.)**
6. 25 전과	**북한군 공적서에서 확인되는 북한군 피해** - 전사: 3중대 운전수 3명(김학범, 차한상, 전의원) 3중대 1소대장 사망 **(김영수 공적서 내용에서 확인)** - 부상: 허경운(3중대 1소대 포장), 박기학(3중대 운전수), 홍장표(3중대 2소대장 자주포 포장) - 3문의 자동포에 불이 붙음 **(제262군부대 훈장 수여증)**
추후 목격 증언	**북한군 2사단 제17연대 군악대 악장 홍광옥 중위 목격담** "[6월 25일] 그런데 11시가 되어도 이동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오후 3시가 되어서 이동을 시작하여 38선에 닿았다. 그러고 나서 악장 지휘 하에 군악대는 탄약을 나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군의 저항이 심하여 춘천시 외곽에 있는 춘천농업학교까지 트럭으로 탄약을 날랐다. 당시 비가 와서 춘천 입성을 하려면 다리를 꼭 건너야 하는데, 다리 건너에서 국군이 계속 사격을 해대니 인민군은 27일까지도 춘천에를 못 들어가고, 수 없이 죽기만 했다. 1개 대대가 죽었다는 소문인데, 내가 가는 길목에도 수 없이 인민군 시체가 쌓여 있었다. 내 눈에도 탱크 몇 대가 파손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 새까맣게 탄 탱크에 포탄자국도 보였다. 사마리오트(싸마호트: 자주포 - 설명주) 부서진 것도 보이고, 불이 나서 탱크병이 엎드려진 채 새까맣게 타죽은 시체도 보면서, 인민군의 전진이 아주 어렵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 463-470쪽.)**

[옥산포 주변 전투상황[2/2] : 아군 (국군 제6사단, 제16포병대대)]

6. 25	**제16포병대대 부대일지 (1950. 6. 25)** "옥산포 도로 상에 출현하여 점차 시내로 향하여 돌진하는 적 장갑차 6대를 발견한 아군 대전차포는 맹사격을 개시하여 그 중 3대를 폭파하였음"
6. 25 오후	**25일 오후 상황.** - 동기생 심일 중위가 "포병 대대 앞에 약 1,500내지 2,000에서 대전차포 둘을 가지고 탱크하고 대항했다는 것과 그것이 제일 나는 중요한 얘기라고 보아요. 부대가 어떻게 배치되었다 그것은 모르지만 만일 그 때 포탄을 뺏겼다면 춘천에서 포 한발도 못 쐈습니다. 그것이 춘천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김운한, 제16포병대대 군수장교 증언, 1966. 5. 20 면담)** - 이날 오후 포병대대는 약 5,000발의 포탄을 춘천농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춘천 시내로 수송 완료. **(김운한, 1966. 5, 20 면담)**
6. 25 저녁	제7연대는 적을 춘천시 진전에서 격멸코자 치열한 교전을 지속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 우두동 방면에 대기 중인 아 2중대는 신북지서 도로상에 출현 시내로 돌진하는 적 장갑차를 발견하여 직접사격 개시 **(제16포병대대 부대일지)**
6. 25 전과	**제7연대 대전차포소대의 전과 및 피해** "장갑차 8대 중, 2대를 파괴하고 1대를 노획, 포로 2명. 우리측 피해: 대전차포 1문 사용불능 쓰리코트(3/4톤 트럭) 1대 사용 불능." (**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
추후 목격 증언	**옥산포 주민 김정옥(여, 우두동 3동 거주 주민, 1977년 6월 27일 증언)** (질문: 전차가 이곳(소양 제1교 북안)에서도 파괴된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난갔다오니까 옥산포 농가에 몇 대가 부서져 있다고 하여 나도 그리고 시아버님도 치우고 있었다. 3대 정도." **옥산포 주민 이학근(1935년생, 남, 옥산포 북방 신동리 거주 주민, 2017년 2월 2일 증언)** (질문: 전쟁 중에 파괴된 적 탱크에서 놀았다고 하던데?) "개전 초기에 피난 갔으나 얼마 후 돌아왔더니, 신동리 도로 왼쪽 나무 아래에 파괴된 탱크가 2대가 버려져 있었는데, 탱크에서 자주 놀았다. ... 중공군이 오기 전의 일이다. 남쪽 옥산포에도 부서진 탱크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다."

참고 2 6월 25일 옥산포 전투 관련 문서 및 증언 자료

<6·25전쟁 발발 당일 제6사단 전투상보>

'50. 6. 25. 12:00 아 대전차포는 일제히 포구를 열어 적 전차에 대하여 명중탄을 퍼부어도 적의 땅크는 거대한 흉체(凶體)로서 서서히 남하 13:00 옥산포에 보병부대의 엄호하에 제1대대 진지에 대하여 포격을 가하고 있음.

14:00 아 전차포중대장은 간단(間斷)없이 쏘다지는 적 포탄에도 늠늠히 남하하는 적 전차에 격분하여(CS879-974, 옥산포)에서 땡크에 대하여 대전차포 육박공격을 계획하고 민가에 의탁(依托) 대기하고 있다가 적 전차가 근박(近迫)함에 공격을 강행하여 적 전차 2대를 격파 각좌(擱座)시켜 수답(水畓)을 낀 도로를 봉쇄 격퇴시켰다. 대전차포 중대장은 적의 땡크에 뛰어 들어 땡크 탑승원을 생포하였음.

14:00 적의 땡크는(CT840-020, 서원)으로 도주함.

<북한군 제262부대 제3중대 차한상 훈장 상신서> (1950. 8. 19)

제262군부대 3중대 운전수 차한상

상기동무는 3중대 운전수로서 38선의 (중략)

특히 춘천면 마산리전투에서 부대장 명령에 의하여 3중대는 돌격조로 적의 방어선까지 돌입하게 되었다. 이때 이 동무는 저기 자동포를 운전하여 두 번째로 적 방어종심까지 돌입하여 적의 영구화점, 중기화점, 토목화점 및 적의 유생역량들을 소멸시켰다. (중략)

이때 별안간에 50m 전방에서 105mm, 57mm 1문과 자동차에 승차한 적 보병 약 1개 소대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운전수는 자동포로 적 보병들이 승차한 자동차를 깔아 전부 소멸시켰다. 자동차를 깔자 휘발유 탱크로부터 불이 발화하여 자동포에까지 불이 달였다. (중략)

<북한군 제262부대 허경훈 훈장 상신서> (1950. 8. 7.)

이 동무는 춘천전투에서 소대장의 포장으로서 3중대가 결사대로 공격전에 참가하였을 적에 이 동무는 중대장 전투기계의 후미를 따라 공격하다가 춘천시에 가기 전 부락에서 적의 직사포와 중기들의 불의의 양면 집중사격을 받게 되었을 적에 용감하게 포사격을 하여 가옥 안에서 사격하는 적의 보병들을 소멸시키고, 소대장 및 전체 승무원과 함께 적 직사포를 깔구 넘어간 후 자기 자동포에 불이 붙게 되었을 적에 조격무기로서 적의 화력 가운데서 그들과 대항하였다. (중략)

<북한군 제262부대 김학범 훈장 상신서> (날짜 불명)

특히 춘천면 마산리 전투에서 적은 완강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 이때 이 동무는 3중대 선두에 서서 적의 완강한 방어선에다 포사격을 하면서 방어 종심까지 돌입하여 … 이때 불의의 50m 전방에서 105mm 포 1문과 적의 퇴각하는 자동차에 적 약 1개 소대가 승차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수 결심에 의하여 자동차에 승차한 적 보병 1개 소대 되는 것을 자동차를 깔고 넘어감으로 자동차와 적 보병을 소멸시키자 자동포에 불이 달리게 되었다. 불붙은 자동포로 전방에 있는 적 105mm포를 깔고 불타는 자기의 무기 자동포와 함께 영용하게 전사하였다. (중략)

<북한군 제262부대 전의원 훈장 상신서> (1950. 8. 19.)

상기 동무는 춘천면 마산리 전투에서 지상포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였을 때 자동포대대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때 적이 포화력이 심하여 아군 보병의 진공을 조해하였다. 그때 부대장 동지의 명령에 의하여 3중대는 결사대로 보병서열을 앞서 적 방어종심까지 돌입하여 적이 토목화점 중기화점 및 적 유생역량을 허다히 소멸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 이때 별안간에 50m 전방에서 적 105mm, 57mm 직사포가 발견되었다. 이때 운전수는 결심하고 지휘관의 명령대로 적포 2문을 자기 자동포로 깔고마랐다. 이때 자동포에 불이 달리게되자 하차하면 적 보병한데 포로되기가 위험하게 되었다. 그레 이는 조국과 인민이 맛케준 자기 자동포와 같이 영광스럽게 같이 전사하였다. (중략)

송광보 대위 (당시 제6사단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장, 2016. 6.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화 증언)

· (6월 25일 상황에서 심일 중위가 전차를 파괴한 것은 확실하지요?) 그건 여러 모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러 곳에서 입증이 된 것으로 압니다.
· (전차를 파괴한 것도 2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그것을 심일 중위가 직접 파괴한 것도 맞습니까?) 지휘했지. 지휘했지요, 그분이.
· (그러니깐 대전차포로는 쉽게 파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파괴된 것은 대전차포 위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휘발유병을 가지고 수류탄을 가지고 했습니까?) 휘발유병이죠. 대전차포 가지고는 안됐으니까 이게 육탄한 것 아닙니까.
· (결국은 파괴된 것은 수류탄과 휘발유병으로 파괴한 것입니까?) 그렇지, 그렇죠.

송광보 대위 (당시 제6사단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장, 2016. 7. 27, 육군 군사연구소 전화 증언)

· (심일 중위가 자주포를 파괴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연대에서 지시하는 대로 대대에다 배치하라면 배치하고, 그렇게 해왔지. 제가 포대 전체를 움직여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 직접 격파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지 마시라고 (중략)

· (육탄 5용사가 있었습니까?) 5용사가 뭐요? 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뭐, 모르지. 있기는 있었겠지. 묻지를 마시라고 (중략)

· (중대장님과 1소대장은 '50년 12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는데 심일은 왜 못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다 연대에서 추천을 하는 것인데, 제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중략)

· (자주포를 파괴한 것이 25일입니까, 26일입니까?) 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1문이었는지 2문이었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나십니까?) 예... 기억이 없어요.

· (전투상보에 적 자주포를 파괴한 사람이 중대장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중략)

· 저는 그 때 당시에 중대장이지만은 실제로 전차를 파괴하고 그런 것은 심일 소위, 그 소대에서 한 거니깐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임부택 중령 (당시 제6사단 제7연대장, 1964. 10. 30 증언)

· (심일 소위가 전차를 두 대 파괴했다고 하는데, 어느 곳입니까?) 그것이 춘천 옥산포이지. 숲에 숨어가지고 (----)부터 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것이 적의 전차에 마저도 끄떡끄떡하면서 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돌산에 배치해가지고도 안돼서 결국은 미리 준비한 병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육박했지. 결국은 뒤에서 불을 지른 것이지. 여기서 사병 하나가 죽었지. 이름은 모르겠어.

· (그 당시 공격한 것은 단신으로 되어있던데, 데리고 가기는 5명을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는 엄호를 시키고 공격은 심 소위가 했다고 하던데요?) 심 소위가 휘발유병을 가지고 했지.

김 성 소령 (당시 제6사단 제16포병대대장, 1986. 5. 24, 증언) [22]

'50. 6. 25. 11:00경부터 14:30경까지 우두산 OP에서 7연대장 임부택 중령과 둘이 있었다. 14:00경 돌연 옥산포 북방에 차량종대가 출현, 쌍안경으로 보니 적의 전차행렬이었다. <중략> 옥산포에 나타난 적 전차를 보고 둘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저 전차가 소양교를 차지하면 포병은 어떻게 철수하지? 하는 것이 나의 큰 걱정이었다. 그래서 우두산 동측의 소양강 열목으로, "휀벨트" 풀고 도강하는 훈련을 한 일이 있기에 그대로 하기로 생각하고 나는 연대장에게 물었다.

연대장님, 옥산포에 대전차포를 배치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2문이 있어! 하고 대답하는데, 옥산포쪽에서 화염과 연기가 그곳에서 충천하였다. 그러더니 옥산포 북방 어귀에 서 있던 전차들이 전부 돌아 북방으로 갔다. 나는 연대장님, 계획대로 소양강을 끼고 합시다 하니 임연대장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OP에서 일어선 것이 14:30경으로 본다.

이남호 소령 (당시 제6사단 제7연대 작전주임, 1982. 7. 30~8. 1 증언)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기습을 받아 초기에 큰 타격을 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방상황을 체계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고 상황판단도 어려웠다. 적의 주공이 옥산포 일대로 지향되었다고 판단하고 09:00 조금 지나서 3/4톤으로 옥산포까지 나가보았으나 그 북쪽으로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때 제16포병대대가 잘 싸워 적의 선봉대를 격퇴했으며, 심일 소위가 적 SU-76 자주포를 파괴함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우상 중위 (당시 제7연대 제1대대 제3중대 3소대장, 1982. 7. 30~8. 1 증언)

6월 25일 3시 경이 되었을까요? 땡크가 그때 나타났어요. 3.6인치 로케트가 아니고 2.36인치 로케트를 가지고 탱크를 파괴하려고 1개 분대 가량 데리고 도로 배수로 가까이 갔어요. 그때에 연대 대전차포 중대가 거기에 가서 전차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어요. 동기생이 있습니다. 심일인데 그 사람이 대전차포를 가지고 탱크하고 부닥쳐가지고 그 후에 전사를 했습니다. 1대를 파괴한 것은 우리가 보았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새카맣게 탔어요. 대전차포를 갖다 놓고 전차가 가까이 와서 쏘았어요.

윤수용 대위 (당시 제7연대 제2대대 중대장 1964. 9. 27 증언)

· (6·25 당시 춘천지구에서 적의 전차 때문에 사기가 죽었는데, 당시 7연대의 대전차포 소대장 심일 소위가 전차를 파괴하였다고 들었는데...) 네. 잘 압니다. 적 전차가 17번 도로로 나오는 것을 2대 파괴하였습니다.

· (그런데 전차가 아니라 자주포 아닙니까?) 아니요. 전차입니다.

22) 제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의 증언('86. 5. 24)은 당시 연대지휘소(우두산)에서 연대장과 함께 상황을 쌍안경으로 직접 관측하며 나눈 대화, 즉 옥산포에 출현한 적 자주포 행렬과 16포병대대의 철수에 대한 우려, 아군의 대전차포 배치 상황, 적 자주포 파괴 장면 및 적 퇴각 상황 등을 사실적으로 회고하였다.

김종수 소령 (당시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장 1977. 4. 12 증언)

· (57mm 대전차포의 지원은?) 천전 북안에서는 없었으나 남안에서부터 1개 포대가 지원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맞아도 반응이 없었고 심일 소위는 쏴도 안 되니까 부딪혀서 깼다. 큰 나무가 있는 곳에서다. 아마 대전차포 소대장으로 안다. 도망가기 바쁜 때에 전차하고 들이받았으니 얼마나 용감한가.

송인규 중위 (당시 제7연대 제3대대 인사장교, 1980. 12. 18 증언) [23]

· 심 중위가 지휘하는 57mm 대전차포가 명중했는데도 전차는 끄덕도 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여 왔다. 그러자 심 중위는 대전차포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욕까지 했는데 조금 있으니 길 옆 풀밭으로 기어 나와 해치를 연 전차는 모조리 수류탄을 던져 파괴시켰다. 아마 7대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오봉환 하사 (당시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 사수, 1980. 12. 17 증언)

25일 15:00경 적 전차 3대가 옥산포로 남하했다. 적 보병은 전차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때 1소대는 포 1문만 거치하고 1문은 뒤에 두었다. 배치할 공간이 없었다. 완전히 배치되어 사격준비가 됐을 때 전차 3대가 목전에 나타났다. 그것도 선두전차는 나의 조준경에 들었다. 약 10m 전방이었다. 나는 힘껏 줄을 당겼다. 바로 눈앞에서 번쩍하고 명중했는데 그대로 굴러오지 않는가. 우리는 포를 놓고 그대로 피신했다. 뒤에 안 일인데 일탄이 적 전차의 잠망경을 뚫고 들어가 조종사와 옆에 타고 있던 무전병의 목을 쳐서 전차는 그대로의 힘으로 달려와 대전차포를 깔고 뭉개 파괴되고 말았다. 이때 이 포탄(파편)은 연대장에게 드렸던 기억이 난다.

어째든 선두전차가 갑자기 멎자 10m 뒤에 후속하던 전차가 앞전차를 들이받아 정차되고 나머지 3번차는 차머리를 돌려 도주했다. 적 전차병 1명이 하차하여 도주하는 것을 안창호 분대장이 사살했다. 그 뒤 심 소위가 나타났다. 이번 사격은 분대장과 나뿐의 행동이었다. 나머지 전우(2개 분대뿐이었는데 1개 분대는 7명)들은 그곳 도랑에 배치되어 있었다. 나와 분대장은 포 1문이 파괴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걱정했는데 이번 전과는 적이 지연됐다는 바람에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공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23) 당시 송인규 중위는 제12중대장(대리근무)이었으나, 제1대대에 배속 운용되어 상황파악이 가능했다.

주락한 일병 (당시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 포수, 1965. 8. 10 증언)

그때 전차가 옥산포까지 10대가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소양강 다리를 건너서 파출소 부근에 대전차포를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분산된 병력이 다 안왔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경전차가 제일 앞에 3대가 나오고, 그 뒤에는 중전차가 7대가 따라 나오고, 그 뒤에는 보병이 따라 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애들의 말을 들으니까 2대는 57mm에 맞아서 파괴되고 3대째는 운전병만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전차를 끌어오려 해도 전차를 운전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그때 소대장을 8기생인 심일(沈鎰)이라는 분이 했는데, 그때 옥산포 수문 옆에다 대전차포를 배치해 놓고 앞에 오는 전차를 사격을 했는데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고 전차는 가까이 오고해서 애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원우 중사 (당시 제7연대 12중대 3소대 선임하사관, 1980. 10 15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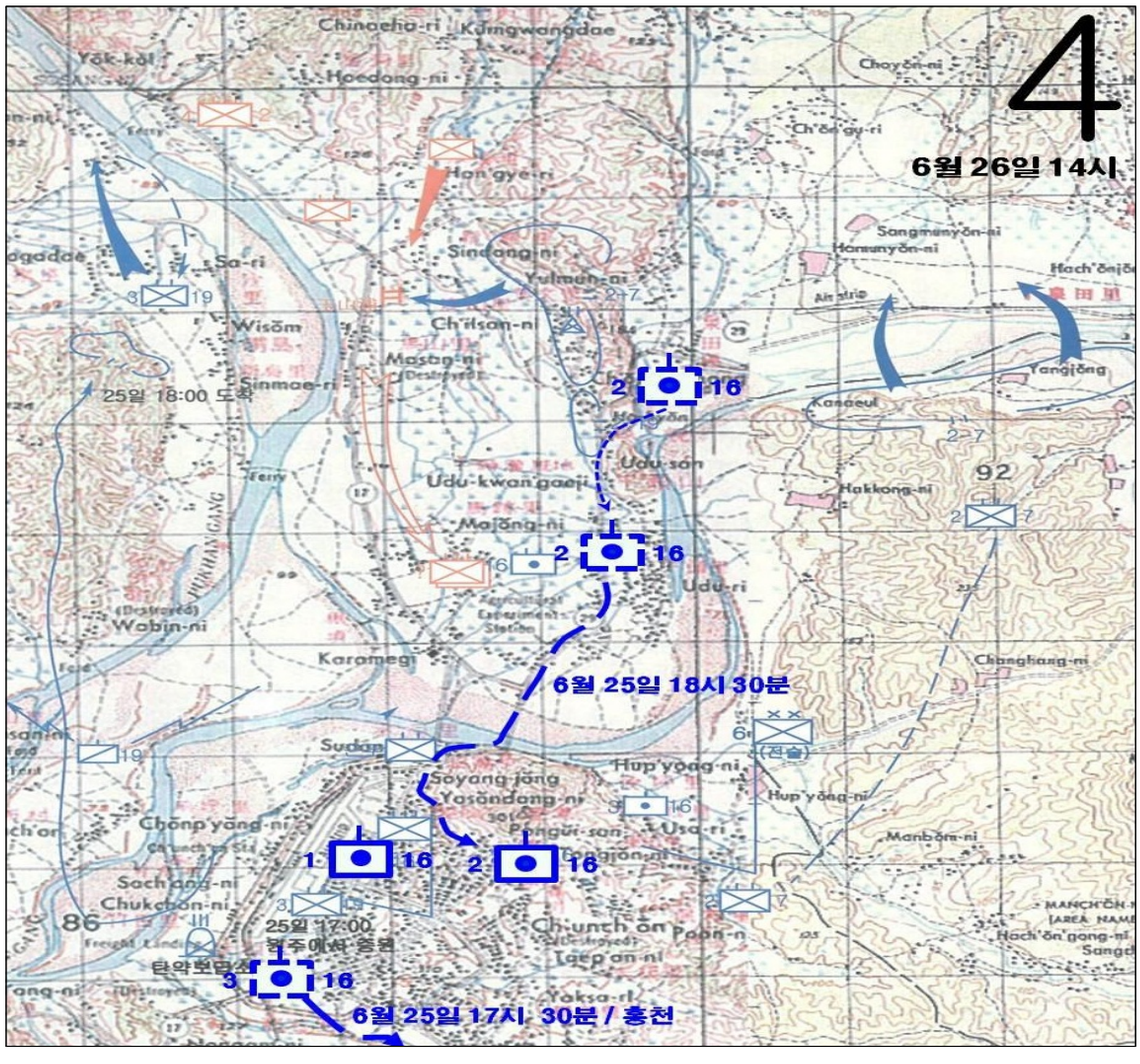
계속 남하중인 적 탱크는 옥산포에서 아군 57mm 대전차포 사격을 받고 북한강변으로 들어가더니 춘천시가를 목표로 사격을 퍼부었다. 적 전차는 다시 도로로 나와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때 대전차포 소대장 심일 소위가 57mm 대전차포를 숲 속에 은폐시켜놓고, 적 탱크를 최대로 유인 끌어들여 전차 캐터빌라에 사격 전차 2대를 파괴시켰다. 의기양양하게 진격해 오던 적은 겁을 먹고 다시 모진교 쪽으로 패주해갔다.

2. 6월 26일 전투(소양교 전투)에서 세운 공적

가. 전투 경과

1) 6월 26일에는 북한군 제2사단이 새로 부임한 최현 소장의 지휘 아래 당일 춘천을 점령하기 위해 새벽부터 가용한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북한군 제2사단은 새벽 05시 40분부터 20분간 포병 공격준비 사격을 실시한 이후, 보병과 자동포가 포병의 지원을 받으며 소양강과 소양교를 도하하려고 시도하였다. 이후부터 약 6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24]

<춘천전투 상황도 (1950. 6. 26.)>



24) 국군측 자료는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 제16포병대대 부대일지; 무르찐 보고서; 김성, 오봉환 증언; 김장근 증언이다. 소련 및 북한측 자료는『라주바예프 보고서』1권, 163; 2권, 307; 제262군부대 박연희 훈장 수여장;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1권, pp. 276 등이다.

2) 국군 제6사단은 금화동에서 지내리에 이르는 소양강 남안에 주방어선을 형성하고, 약 6시간 동안의 격렬한 전투 끝에 SU-76 자주포와 각종 화포를 앞세운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저지하였다.

3) 이 전투에서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소양교에서 오전 10시 경 심일 중위가 북한군 자주포 3대를 파괴함으로써 적의 소양강 도하를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4) 결국 북한군은 6월 26일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채 소양강 도하에 실패하였다. 6월 27일 오후에 국군 제6사단이 단계적 지연전으로 작전계획을 전환하여 춘천 외곽으로 철수함에 따라, 북한군 제2사단은 남침 공격 3일 만에 춘천 시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5) 3일 동안 춘천에서 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 및 지연시킴으로써 수원 방면으로 우회하여 서울을 양익포위 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반면에 서울 북방에서 큰 타격을 입은 국군은 가까스로 한강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함으로써 미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나. 소양교 전투의 유무에 대한 논란

1) 소양강에서 발생한 전투는 없었으며, 심일 중위의 공적은 조작되었다는 주장

가)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는 6월 26일 오전에는 우두산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7연대 1대대가 옥산포 방면으로 파쇄공격을 했기 때문에 소양교에서는 전투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6월 26일 오전 10시 경 소양강에서 발생한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당시 춘천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OO씨는 자신이 6월 25일 오후부터 6월 26일 오전까지 소양강 북쪽에 위치한 제16포병대대의 탄약고로부터 소양강 남안으로 탄약을 운반하는 작업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2017. 1. 20, 육군군사연구소와의 면담)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6월 26일 오전에도 소양강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양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탄약을 운반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2) 소양강에서 전투가 발생했고 이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주장

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대한민국 정부의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는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서 활약한 심일 중위의 공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북한군이 6월 26일 10시 경 자주포로 강 북안에서 대안의 국군 대전차포진지 및 중기관총 진지에 포격을 가한 다음, 북한군이 소양교를 건너 공격해오자 충격을 받은 대전차포 소대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때 심일 중위가 직접 포수로서 포를 잡고 적 자주포에 대해 공격함으로써 선두 전차를 정지시킨 다음, 주변의 조력을 받아 추가적인 포격으로 3대의 적 자주포를 파괴하였다. 이처럼 소양강 전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심일 중위가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크게 활약하였다. [심일 중위에 대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1950.9.1), 태극무공훈장 공적서(1950. 11)]

나) 북한 측 기록은 6월 26일 오전에 소양강을 향하여 공격하다가 자주포가 포에 맞아 불에 타 정지되어 포위된 상황에서 권총자결을 했다는 북한군 제262부대(자동포대대) 제3중대 1소대장 박연히의 공적서 내용, 그리고 같은 부대 제3중대 2소대 지휘관인 박윤천의 공적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군 제262부대 훈장(훈패) 상신서는 2대의 자주포가 화염에 휩싸였는데, 이때 박윤천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9명의 승무원을 구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박윤천의 공적서에는 춘천 다리(소양교)를 건너기 전의 전투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262군부대 박연히(3중대 1소대장), 박윤천(3중대 2소대장) 훈장수여장]

다) 북한군의 기록 중 박연히, 박윤천의 기록과 같이 전투 상황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6월 26일에 상당히 많은 자주포병 부대원이 전투에 가담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6월 26일 마산리 전투'에 가담하여 활약한 최소 7명에 대한 훈장 상신서가 작성되었다.

라)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대전차포소대 소속의 오봉환 하사는 6월 26일 오전에 소양교 남안의 포진지에서 대안의 제사(製絲)공장에 나타난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것이 위에 언급한 전투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교전의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 소양강에서의 전투는 6월 26일 오후와 야간에도 계속되었고, 안태석 소위는 이날 저녁 무렵 심일 중위가 소양교 대안의 전차(즉 자주포)에 사격하여 캐터필러를 끊어놓았으며, 이 상황을 이용하여 안태석 자신은 중기관총 Cal-50으로 적을 사살하는 등 큰 전과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안태석 소위가 오전에 발생한 전투의 시간을 잘못 증언한 것인지, 아니면 그날 오후에도 적 자주포에 대한 공격이 또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1) 6월 26일 오전 10시 경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한 전공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 북한군 훈장(훈패) 수여장 등 피아의 기록문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2) 소양교 전투에서 심일 중위의 자주포 파괴 사실을 증명할 공간사 기록이 없으므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육군 군사연구소의 주장은 두 훈장 관련 서류가 조작되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며, 이는 두 국가의 공문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억측에 불과하다.

3) 육군 군사연구소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를 작성한 맥페일 중령이 전투현장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맥페일 중령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심일의 전투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당시 국군 제6사단에는 사령부와 각 연대에 美고문관 17명(장교 9명, 병사8명)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맥페일 중령은 7연대의 고문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훈장 추천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일 중위의 공적은 피아의 공적서에 대한 상호 대조, 관련 사료 및 증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일 중위는 6월 26일 오전 10시 경에 소양교 근처에서 남하하려는 적 자동포에 대해 아군의 대전차포를 운용하여 방어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소대장인 심일 중위는 본인이 직접 포수가 되어 대전차포를 사격하였으며, 조력자 3인의 도움을 받아 적 자주포 3대를 파괴한 것은 신뢰할만한 기록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

참고3 소양교 주변 전투상황

<소양교 주변 전투상황[1/2] : 적군 (북한군 제2사단)>

6. 26 오전 일반 상황	"6월 26일 새벽 다수의 화포와 8문의 자주포를 직접조준사격 위치에 배치하고 새벽 5시 40분부터 20분간의 포병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보병이 강을 도하하였으며, 아침 8시 무렵부터 선두부대가 교두보를 확보한 후 적을 포위하기 위해 도시를 서쪽과 동쪽으로 우회하였다. 하지만 보병의 행동이 결정적이지 못하였으므로 적은 6월 26일 하루동안 도시를 계속 장악하였다." **(『라주바예프 보고서』 2권, 307.)** "제2보병사단은 6월 26일 잠깐 동안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춘천 공격을 재개하였다… 6시간 동안 전투를 전개한 끝에 제17보병연대 예하부대들이 춘천의 서쪽 변경을 돌파하였다. 제4 및 제6보병연대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공격이 실패한 채 최초의 계선에서 전투를 지속하였다." **(『라주바예프 보고서』 1권, 163.)** **제262군부대(자동포대대) 제3중대 1소대장 박연히 훈장수여장** "6.26 보병 포병과 합동하여 아침 9시부터 춘천을 향하여 공격 중 [하략]" **주영복(인민군 제2군단 공병 소좌) 증언** "북한군 제2사단은 오늘(6월 26)도 아침부터 국군 6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소양강 북쪽 들판에서 화력과 기동력이 우세한 인민군이 국군을 겨우 강남으로 밀어버렸으나, 인민군은 소양강에서 정지했다." **(주영복, 『내가겪은 조선전쟁』 1권, 276.)** **북한군 병사 포로심문조서** 북한군 제6연대는 방어하고 있던 국군으로부터 강력한 포격에 직면하였으며, 6월 26일 오전 필사적인 전투를 전개하였다. **(GHQ, FEC, Interrogation Report, Issue no. 71, 1951. 1. 20)** **제251부대(공병대대) 전투보고** **"**교도중대는 (중략) 26일 사단장 동지의 명령으로서 참모장 이하 전사 5명을 데리고 춘천 서양교(소양교) 사수로서 선발대로 나가 적이 교량우에 통신선을 절단하고 자동차 1대와 운전수까지 직사 파괴식히고 계속 아군의 통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수 중 적에 폭격으로 부상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음. 기타 5명은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음." **(제251부대 부대장 유병준 전투보고, 노획문서)**
6.26 9-10 시경 교전	**박연히(자동포대대 3소대 1소대장)공적서** "**6.26** 보병, 포병과 협동하여 **아침 9시부터** 춘천을 향하여 공격 중 춘천 뒷산에 적방어진지와 영구화점 3개 중기화점 12개 토목화점 21개 포진지 2개를 격파소멸하였다. 계속 춘천시 마산리 적포진지와 중기화점을 소멸하고 용감하게 춘천시내를 향하여 공격 중 약 100m 전방서 불의 적 포진지가 발견되자 소대장 박연히 동지는 자기소대 기재로서 105mm 적 포 4문과 자동차 1대를 자동포로서 까라문기고 정지되자 적포탄에 맞어 자동포에 불이 달리기되자 동소대원들은 그 전원이 용감하게 사격하였으나 적 탄환에 의하여 대원들은 전사당하였으나 소대장 박연히 동무는 부상당하여 가지고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 한방울까지 싸우겠다는 대담한 용기를 발휘하여 투쟁하다가 최후에는 적에게 포위되여 가지고서도, 투쟁하다가 포로됨에 당면되자 박연히 동무는 최후의 말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라고 웨치고 자기 사용하든 권총을 입에물고, 희생되였다. **(제262군부대 훈장 상신서, 노획문서)** **박윤천(자동포대대 3중대 2소대지휘관)공적서** "춘천 다리를 건너기 전 부락에서의 전투에서 이미 선두에 선 자동포들을 옳게 엄호하면서 나가든 중 소대장의 자동포와 1소대 자동포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속히 자기 자동포를 지휘하여 다른 승무원들을 적에게 전사될 위험으로부터(9명) 구원하고 맹열한 사격으로 적을 추격시켰으며 또 소멸시키였다. 결과 이동무는 토목화점 3개 중기화점 2개 기타 유생력량을 소멸시키였다." **(제262군부대 훈장 상신서, 노획문서)**

<소양교 주변 전투상황[1/2] : 아군 (국군 제6사단, 제16포병대대)>

6. 26 오전 일반 상황	03시 포병2중대 적탄 낙하로 춘천역 우측에서 소양로로 진지 이동 05:10 포병2중대 사격 개시 - 포병1중대 사격 05:30 적병 포사격 지원받아 북한강 소천 도하 - 포병1중대 포사격으로 적 집결지 사격 09:30 포병2중대 적탄피탄 10;00 포병2중대 사격 개시 11:30 사격 중지 11:55 적 장갑차 출현으로 포병2중대 사격 개시 11:45 용산리 부근 적이 포격 실시 11:50 적 야포진지 발견, 포1문 완전격파 **(제16포병대대 부대일지)** 05:00 완전히 부대를 배치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였다. 정면에 적은 04:00부터 소양강 하천선에 육박하여오며 적의 포진은 (CS880-985)부근에 위치하고 05:00부터 XL890선까지 탄막을 구성하고 아군의 후방에다 치열한 포격을 가하여 옴. 11:00부터 적은 강력히 도하를 시도. 전 화력의 지원하에 Y선 870-900선을 연하는 전구 내에 주력을 두고 남하. 아 진전에 근박하여 (CS887-942) 교두보에 집중 공격을 가하여 왔음.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 *** 무르찐 보고서** **김성(16포병대대장)소령 증언(1986. 5. 24)** **"**'50. 6. 26. 08:00경부터 적 보병 출현... 소양교 북서방 도로 2열 종대 행진, 포사격... 분산도주. 12시 경 적 전차 2대 소양교 북방 서부(화천도로)에 출현, 이를 HE와 WP탄으로 포격**"** **오봉환 하사 증언 (1950. 12. 17-18 면담)** **-** 아침에 소양강남안(봉의산 하단)에 중대 대전차포 4문 배치 (연대장, 중대장이 와서 격려) **-** 오전의 전투에서 강 대안의 제사공장에 나타난 적 전차를 또 파괴**.**
6.26 9-10 시경 교전	**심일 중위 은성무공훈장 추천서('50. 9. 1)** "한국군 제7연대 소속 심일 중위(군번 14494)는 1950년 6월 26일 한국의 춘천에서 전개된 적과의 전투에서 홀로 탁월한 영웅적 행위를 거두었다. 소양강 남안의 방어진지에 자신의 중대와 함께 있던 심 중위는 소양강 도하를 시도하던 적과 포격전을 전개하였다. 10시 경 적 전차 3대가 심 중위의 중대 방어지역에서 도하에 성공하자, 대전차포대원들이 포함된 부대원들은 진지를 이탈하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심 중위는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은 채 빗발치는 총탄 속을 뚫고 내달려 대전차포를 잡았다. 치열한 사격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도 뛰어난 침착성을 발휘한 심일 중위는 전차가 진지로부터 15야드 이내로 다가올 때까지 사격을 멈추고 있다가 최근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하였다. 심중위의 행위에 고무된 대전차포대원 일부가 포진지로 급히 복귀하여 이를 지원하였다. 심일 중위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3대의 전차가 파괴될 때까지 한 명의 포수로서 끝까지 진지에 남아있었다. 심 중위가 발휘한 탁월한 영웅적 행위는 최고의 명성과 무공을 반영하고 있다." **태극무공훈장 심일 공적(功績現認證明)서 (1950. 11)** "단기 4283년 6월 26일 10시 경 아군 전방인 춘천강 북방에 남진을 목적으로 배치된 아군의 보병전에는 백전백승이었으나 남진하는 대형전차의 방어무기로는 대전차포였으나 약 100마 내외 거리에 2, 3발로는 도저히 불가하여 아군은 차 전차방어에 대한 불소한 위험을 피치 못하였음. 차시 전방에 배치되었든 적 전차 3대가 아방을 향하여 전진하여 옴을 목격하고 대전차포병은 기부서행동의 망각도 안치 못하고 방황하는 중 상기 심 중위는 적 전차의 소양강교 통과를 허하면 아전부대가 고립상태에 빠짐을 깨닫고 자신을 희생하여 전 부대를 구출하고 용감한 희생정신이 용출하여 자진 사수가 되어 대전차포 약 5마 거리내에서 총총히 전진하는 전차를 육박사격으로 완전 격파하여 비부(鼻部) 전상까지 당하였음. 대전차방어에 고심 몰두하든 아군 전 장병은 자진으로서 능히 격파하였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파지케 되었으며 의기양양하든 적 전차부대는 여지없이 격파당한 공분심에 자체를 은닉하고 이로 인하여 재공 아군은 맹공격을 계속하였다."(후략)

<소양교 주변 전투상황[2/2] : 적군 (북한군 제2사단)>

*** 북한군 자주포대대원 중 6월 26일 마산리 전투 참가자**

- 박연희(3중대 1소대장)
- 박윤천(3중대 2소대 지휘관)
- 송광수(부대장 자주포 승무원)
- 정동혁(부대장 자주포 포장)
- 리형락(3중대)
- 김린근(2중대 중대장자주포 장약수)
- 오응식(장약수)

*** 북한군 공적서들에서 확인되는 피해**

- 자주포 2대가 불에 탐
  (박연희, 박윤천 공적서)
- 박연희 소위가 포위상태에서 권총자살
- 3중대 1소대원 전원 전사
  (박연희 공적서)
- 2중대장 자주포 포장이 국군 중기관총 사격에 의해 전사(김린근 공적서)

(제262군부대 훈장 상신서, 노획문서)

<소양교 주변 전투상황[2/2] : 아군 (국군 제6사단, 제16포병대대)>

오봉환(대전차포중대 제2소대 포수) 증언(1980년 12월 17일-18일 면담)

(26일 전투에 대하여)

"다음날 우리는 오모(1중)분대장이 이끄는 1소대포와 기타 4문의 포가 중대장 송대위 지휘하에 이날 아침 소양강 차안(此岸)의 제방에 배치됐다. 이때는 연대장, 중대장도 우리 포가 방열된 곳까지 나와서 격려해주었다. 여기서 또 對岸(대안)(제사공장)에 나타난 전차를 사격하여 파괴했다."

6.26 오후 전투 상황

- 15:35 장갑차 9대가 춘천농업학교 부근에 집결. 봉의산 우측에 연막이 산포됨.
  연대는 이 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OOOOOO 적을 저지 격퇴하여 제9중대는 도하하는 적을 제방진지에서 강력히 저항하여 저지하다가 중대장 외 수명이 전사함.

(제6사단 작전교육처 전투상보)

- 22:30 연대는 완전히 신진지에 병력을 배비하고 적과 치열한 야간전투를 전개하였다.

(제6사단 전사부 전투상보)

안태석 소위 증언 (7연대 2대대 8중대 화기소대장, 1980. 10. 18-19일 면담)

- 26일 21:00시 경 심일 소대장이 본명에게 "포1문 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마지막이다. 안소위 Cal-50으로 엄호사격을 해달라. 내가 전차를 공격하겠다." 말하고 사격준비를 완료했다.
  그러나 1번 전차가 삼거리에서 소양교를 넘기 위해 진입하자, 57mm 대전차포는 기다렸다는 듯이 좌측 카타베라를 명중시켜 전차가 좌로 비스듬히 정지,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게 되었다. 뒤따라오던 잔여 전차는 전부 정지하고 말았다."

참고4 6월 26일 소양교 부근 전투 관련 문서 및 증언 자료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1950. 9. 1)>

국군 제7연대 소속 심일 중위가 1950년 6월 26일 10시 경 춘천전투에서 소양강 도하를 시도하는 적 전차 3대가 파괴될 때까지 진지에 남아 포격전을 전개한 영웅적 행위를 기려 훈장을 추천(제6사단 美 선임고문관 맥페일 중령)

* EUSAK, "Recommendation for Award - Heroism", 1 Sep. 1950, 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태극무공훈장 공적서 (1950. 11)>

'50. 6. 25~10. 25일간 춘천, 충주, 음성, 문경, 안계 등지에서 대전차포 중대 부관겸 소대장으로 자진사수 혹은 OP관측 등으로 맹활약하여 적에게 타격을 준 공로로 훈장 상신

소양교 전투 관련 주요 내용 : 1950년 6월 26일 10시 경 북한군 자주포(당시에는 전차로 파악함) 3대가 전진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심일은 이것이 소양강교를 통과할 경우 아군이 고립상태에 빠질 것으로 판단하여 대전차포 사격으로 이를 격파

<북한군 제262부대 박연히 훈장(훈패) 수여장> (날짜 불명)

6월 26일 보병, 포병과 협동하여 아침 9시부터 춘천을 향하여 공격 중 춘천 뒤산 적방어진지와 영구화점 3개, 중기화점 12개, 토목화점 21개, 포진지 2개를 격파소멸하였다. 계속 춘천시 마산리 적포진지와 중기화점을 소멸하고 용감하게 춘천시내를 향하여 공격 중 약 100m 전방에서 적의 적포진지가 발견되자 소대장 박연히 동지는 자기 소대 기재로서 105mm 적포 4문과 자동차 1대를 자동포로 까라문기고 정지되자 적포탄에 맞어 자동포에 불이 달리기되자 … 박연히 동무는 최후의 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웨치고 자기사용하든 권총을 입에물고 희생되었다. (중략)

<북한군 제262부대 박윤천 훈장(훈패) 수여장> (1950. 8. 7.)

상기동무는 자동포지휘관으로서 소대장의 임무를 철두철미하게 완수하였다. … 춘천 다리를 건너기 전 부락에서의 전투에서 이미 선두에 선 자동포들을 옳게 엄호하면서 나가든 중소대장의 자동포와 1소대 자동포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속히 자기 자동포를 지휘하여 다른 승무원들을 적에게 전사들 위험으로부터 (9명) 구원하고 맹렬한 사격으로 적을 추격시켰으며 또 소멸시키었다. …

<심일 중위의 소양교 전투 전공 관련 참전자 증언>

김용한 소위 증언(당시 제7연대 제3대대 12중대 소대장, 1966. 3. 7)

- 그 당시에 현재 소양강교에 대전차포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 들었지만 소대장이 심익(심일) 뭐라고 포위되어 가지고 못나왔는데 소대장인데 대전차포하고 땡크하고 충돌했습니다.
- 대전차포를 일찍이 빼지 않고 땡크에 발사하자 그래가지고 전차 한 대 파괴되고 대전차포는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돌파한 것이지만 시가전은 별로 없었고…

오봉환 하사 증언(당시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 사수, 1980.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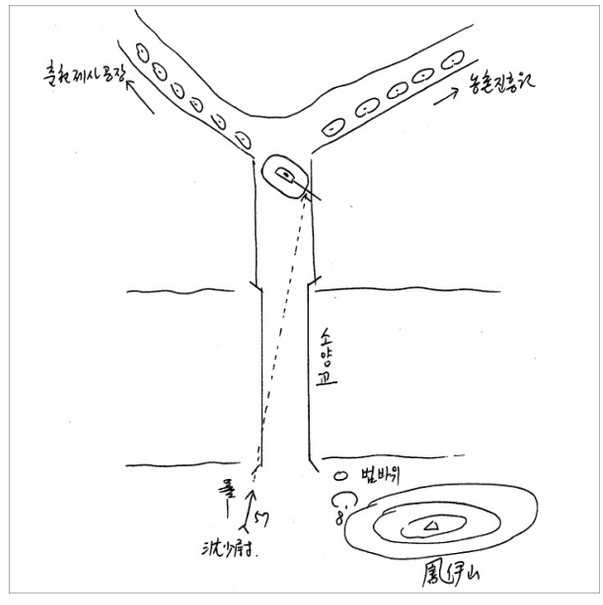
- 26일 우리는 오모(일중) 분대장이 이끄는 1소대 포와 기타 4문의 포가 중대장 송 대위 지휘 하에 이날 아침 소양강 차안의 제방에 배치됐다.
- 이때 연대장, 중대장도 우리 포가 방렬된 곳까지 나와서 격려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대안(제사공장)에 나타난 전차를 사격하여 파괴했다. <중략> 그러니까 25일 저녁에 차안으로 넘어와 있었다.

안태석 소위 증언(당시 제7연대 2대대 8중대 화기소대장, 1980. 10. 18~19)

- 26일 21:00시 경 심일 소대장이 본명에게 "포1문 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마지막이다. 안소위 Cal-50으로 엄호사격을 해달라. 내가 전차를 공격하겠다." 말하고 사격준비를 완료했다.

- 그러나 1번 전차가 삼거리에서 소양교를 넘기 위해 진입하자, 57mm 대전차포는 기다렸다는 듯이 좌측 카타필터(궤도)를 명중시켜 전차가 좌로 비스듬히 정지, 도로를 완전히 가로막게 되었다. 뒤따라오던 잔여 전차는 전부 정지하고 말았다.

<안태석이 증언한 작전상황>



제3장 제기된 의혹 검증 및 분석

제1절 태극무공훈장 수여에 대한 의혹

제2절 6월 25일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

제3절 6월 26일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

제4절 기 타 쟁 점 사 안

제5절 소 결 론

제3장 제기된 의혹 검증 및 분석

1. 이대용 장군, 육군 군사연구소 등이 故 심일 소령의 공적에 대해서 문제와 의혹을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즉 ① 故 심일 소령이 공적을 세우지 않았으며, ②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공적을 조작하여 훈장을 주었다는 주장이었다.

2. 공적확인위원회는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의혹을 조사와 확인, 검증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쟁점사안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사안은 태극무공훈장 수여에 대한 조작 의혹이고, 두 번째 쟁점사안은 심일 중위가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이며, 세 번째 쟁점사안은 심일 중위가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서 세운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이다.

3. 한편, 공적확인위원회가 약 5개월 동안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조사 및 확인,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세부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적 자주포의 뚜껑 존재 유무, 심일의 전사 시기와 전사 장소, 육탄 5용사의 실존 여부, 심일 둘째 동생의 경찰 입문 시기,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 나오는 국군 목격자의 실존 여부 등이다. 이러한 세부 쟁점들은 비록 故 심일 소령의 공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적확인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공적확인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절 태극무공훈장 수여에 대한 조작의혹

1. '심일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훈장을 주기로 했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1951년 두 차례(1월 17일 경, 5월 초)에 걸쳐 심일 중위의 부모가 7연대 본부를 찾아와 하소연했는데, 이때 7연대장(양중호 대령)이 심일 중위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태극무공훈장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2) 육군 군사연구소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나 증언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6사단 훈장기록 분석 결과 심일 중위는 일정기간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위의 의혹 제기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대신 심일 중위에 대한 태극무공훈장 수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결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였다.

2) 공적확인위원회는 심일 중위의 태극무공훈장 공적서에 대한 확인 및 검증 결과, 그의 공적이 사단, 군단, 육군본부, 국방부, 국무회의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사되었으며, 적법한 과정을 통해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은 제6사단, 제2군단, 육군본부에서 적법한 심의와 심사를 거쳐 국방부로 상신되었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육군총참모장이 일등무공훈장 수여자로 추천 상신한 18명을 국방군인비외발 제37호(1951년 6월 18일)에 의거하여 대통령에게 상신하였고, 1951년 6월 22일 제72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중 심일 중위 등 9명만이 수훈자로 의결되었다.

<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일등(태극)무공훈장 결정과정 >

① 제6사단 참모장 민병권 대령, 공적서 작성 : 1950. 10. 25. ~ 11월 中
② 제2군단 ⇒ 육군본부 : 1950. 11월 中 공적서 작성 제출
③ 육군본부 ⇒ 국방부 : 1950. 12. 30 추천 상신
④ 국방부장관 ⇒ 대통령 : 1951. 6. 18 추천 상신
⑤ 국무회의 의결 : 1951. 6. 22 (상신자 18명 중 9명 의결확정, 9명 탈락)
⑥ 대통령 승인 : 1951. 7. 26.
⑦ 태극무공훈장 수여 : 1951. 10. 30
⑧ 1계급 특진(소령) 추서 : 1951. 11. 11

* 근거: “무공훈장 수여에 관한 품의 관련 문서” 1950. 10~1951. 7, 대통령기록관

3) 따라서 심일 중위가 사망한 후 그의 어머니가 제7연대장(대령 양중호)을 찾아와 한탄하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전공을 조작하여 훈장을 상신하기로 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심일 중위의 실제 전공 내용, 태극무공훈장 상신 시점, 심일 부모의 연대 방문 시기 등과 비교할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심일 중위의 훈장 서훈과 관련하여 그의 부친(심기연 氏)은 훈장 수여식장에서야 비로소 공적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증언했다.(전사편찬위원회, 1977. 7. 2 증언) 즉, 심일 중위의 부모는 아들의 전공을 알지 못했으며, 이대용 장군이 제기한 ‘심일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전공을 조작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4)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가 제기하는 이 의혹은 美 은성무공훈장 및 태극무공훈장 추천 상신 시점으로 보아 설득력이 없다. 이대용 장군은 1951년 5월 초 후임 연대장(대령 양중호)이 심일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전공을 조작하여 훈장을 상신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제6사단 美 군사고문관이 제출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의 작성시점(1950년 9월 1일)과 태극무공훈장 상신 시점(1950년 10월)은 부모가 부대를 방문하였다는 1951년 5월 보다 각각 8개월, 7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2016년 11월 15일 실시된 공적확인위원회와의 면담 당시, 허남성 위원이 "혹시 심일 소령이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대용 장군은 "(그런 사실은) 알지 못하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가) 심일 중위의 美 은성무공훈장 수훈은 당시 제6사단 소속 美 선임고문관 맥페일 중령이 1950년 9월 1일 美 제8군사령관에게 추천서를 작성하여 상신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 이를 승인함으로써 확정되었다.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1950. 9. 1, 16)

나) 심일 중위의 '태극무공훈장 공적서'는 1950년 10월 최초 제6사단에서 작성되어 군단으로 제출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제2군단이 육군본부에 상신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제1차 정기 공적심사방침을 통해 6·25전쟁 유공자에 대한 무공훈장 수여 추천자를 의결하였다. ("육본공심 제1호", 1950. 11) 또한 제6사단, 제2군단 등에서 심일 중위의 훈장을 상신한 시점은 그가 전사한 후 어머니가 부대를 찾아 온 1951년 5월이 아니라 심일 중위가 생존했던 시기였다.

5) 1951년 1월과 5월 중 심일 중위의 부모가 적과 교전 중인 국군 제7연대 지휘소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시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신정공세, 5월공세)가 단행된 시기로, 이 기간 중 제7연대의 지휘소 주둔 지역은 수시로 중공군과 접적이 이루어져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던 교전 지역이었다.

가) 당시 중공군의 신정공세가 단행된 1951년 1월 5일 이후 제6사단 지휘소는 죽산리(용인 동남방 약 25㎞) 부근에, 제7연대 지휘소는 1월 14일 이후 백암(용인 동남방 14㎞)에 위치하였다. 당시 제7연대 지휘소 부근에는 중공군 정찰부대가 출현하고, 적 포로가 획득되는 상황이었다.[Hq, 9th Corps, "Command Report" (Jan. 1951), RG 407, Entry No 419, Box 1779, NARA]

나) 1951년 5월 제7연대는 용문산 북쪽 능선 일대를 점령하고 양평 연수리 부근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당시는 제7연대가 용문산 지역에서 중공군 5월공세를 저지한 후 반격(5월 20일)으로 전환하던 시기였다. [Hq, 9th Corps, "Command Report" (May 1951), RG 407, Entry No 419, Box 1806, NARA]

2. 공적 누락 의혹과 수훈 결정과정에 대한 의혹

가. 의혹 제기

1) 육군 군사연구소는 1950년 12월까지 심일은 7연대 1대대에서 훈장을 받을 정도로 무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일 중위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주기 위해 1950년 12월에 훈장을 주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 국방부 일반명령 제10호(1950. 12. 30)를 통해, 전쟁 초기 전투유공자 중 6사단 장병 2,552명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이때 연대장(임부택) 이하 7연대의 주요 직위자 28명이 포함되었고, 심일 중위가 소속되었던 대전차포중대의 중대장(송광보)과 1소대장(박철원)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유독 심일 중위가 훈장을 받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1951년 전반기에도 최소 5회의 훈장수여가 있었으며, 제6사단 장병 30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최초의 훈장 수여대상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이후 추가 서훈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심일 중위는 개전 이후 6회의 훈장 수여 기회가 있었으나, 1951년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고 비판했다.

다) 1955년 작성된 『청성약사』에도 심일 중위의 태극무공훈장 수훈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며 주장하며, 심일 중위가 태극무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공적을 세웠다면 처음 작성된 사단의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록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부록의 훈장통계를 살펴보면 7연대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장교가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가장 명예스러운 태극무공훈장 수여 사실을 왜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공적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심일 중위의 일등(태극)무공훈장 수훈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50년 10월 국군 제6사단 참모장 민병권 대령은 춘천지역 전투(모테이벼루, 옥산포, 소양교)를 포함한 총 5회의 전투 공적을 근거로 심일 중위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제2군단에 제출했다. 이후 제2군단은 11월에 이를 육군본부에 상신하였으며,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심의를 통과한 심일 중위의 공적서는 마침내 1951년 6월 22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총화 제64호(4284.6.23) 국무회의 제출안건 처리상황 통지의 건]

<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심사방침 > 「육본공심 제1호(1950. 11)」

① 일선 전투부대 중점주의
② 각 사단별로 획득한 종합전과
③ 각 사단별 병력 요소
④ 각 사단별 부대 창설 연월일
⑤ 각 사단별 전투기간과 횟수
⑥ 각 사단별 병력 소모 누계
⑦ 각 사단별 표창 실적 통계
⑧ 각 사단별 전투상보에 나타난 전략적 임무 성공여부
⑨ 각 사단별 특수임무 수행 능력

가) 이상의 9개 항목 가운데 심일의 공적은 1항의 '일선 전투부대 중점'과 2항의 '각 사단별로 획득한 종합전과', 그리고 8항의 '각 사단별 전투상보에 나타난 전략적 임무 성공여부' 등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차 정기공적 심사방침에 따른 무공훈장 추천자 심사범위는 3~4등(충무, 화랑) 무공훈장에 한해서는 각 군단장이 할당 수여토록 하였으나, 1~2등(태극, 을지) 무공훈장 수여자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선발 조정 후 국방부에 상신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육본공심 제1호(1950. 11)」)

3) 1951년 6월 22일 제72회 국무회의에서는 이들 중 심일 중위 등 9명만을 수훈자로 의결하였다. 상신된 인원 중에는 심일 중위의 직속상관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이 포함되었으나, 의결과정에서 모두 부결되었을 만큼 심사과정에서 정실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5]

25) 심일의 태극무공훈장 수여 사실은 당시 동아일보 1951년 11월 1일자 "김, 유 소장 등 12장병에게 무공훈장 수여"라는 제목으로 널리 보도되었다. '6·25동란 이래 각 전장에서 다대한 공훈을 세운 육군 김홍일 소장, 유재흥 소장, 백선엽 소장, 이명수 일등상사 등과 해군 손원일 소장, 김성은 대령, 최용남 중령, 공군 김정렬 소장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육군 김백일 중장, 심익(일) 중위, 홍재근 이등병, 김용식 이등병 등 12명에 대하여 이 대통령은 昨 30일 10시부터 관저에서 일등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 태극무공훈장 수여추천 상신 및 의결자 현황 >

- **상신자(18명) : 육본/국방부 ⇒ 대통령**
  정일권 중장, 채병덕 중장, 김백일 소장, 유재흥 소장, 김홍일 소장, 백선엽 준장, 장도영 준장, 함준호 대령, 임충식 대령, 김종오 준장, 이정일 준장, 함병선 대령, 임부택 대령, 정 진 중령, 심 일 중위, 이명수 일상, 김용식 이병, 홍재근 이병

- **의결자(9명)**
  김백일 소장, 유재흥 소장, 김홍일 소장, 백선엽 준장, 함준호 대령, **심일 중위**, 이명수 일상, 김용식 이등병, 홍재근 이등병

- **부결자(9명)**
  정일권 중장, 채병덕 중장, 장도영 준장, **김종오 준장**, 이정일 준장, 함병선 대령, 임충식 대령, **임부택 대령**, 정 진 중령

가) 1955년 작성된 『청성약사』에도 심일의 태극무공훈장 수훈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육군 군사연구소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이유를 밝혀낼 수는 없었다. 다만, 부대사 집필 과정에서 초기 전투 관련 기록문서가 분실, 파손되었던 결과 당시에는 춘천전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소홀히 다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부대역사 보고서」 자료검토 결과,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C 215, pp. 102-105)]

나) 1950년 10월 16일 육군본부는 예하부대에 6·25전쟁 이후 1950년 10월말까지의 '정기 역사 편집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6사단도 1950년 11월 6일에 관련 자료를 육군본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때 제출된 자료는 '부대이동, 작전국장 내방, 모병, 美 고문관 배속, 교육대 창설' 등이었다.

다) 제6사단 제7연대장 임부택 대령은 "평북 초산지구로부터 풍장까지 이동할 당시 당지에서 부대는 불행히도 적의 강력한 포위망에 추락(墜落)되어 행정서류 일체를 분실 파손 당하였음에 근거 서적 전무하와 작성 불능하옵기에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하며, 춘천전투에 대한 자료는 제외된 채 1950년 7월 2일 부대 출동상황부터 기술하였다.(1950. 12. 8, pp. 243-244)

4) 육군 군사연구소는 전쟁 발발 후 첫 훈장수여였던 1950년 12월과 이듬해 전반기까지 심일 중위에게 훈장 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공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이미 심일 중위에게 1950년 9월 중에 美 은성무공훈장이 수여되었고, 1950년 10월 중에 제6사단에서 태극무공훈장을 상신했기 때문에, 그는 1950년 12월에 수여된 다른 무공훈장(을지, 충무, 화랑)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육군 군사연구소는 심일 중위가 일정 기간(1950. 12~1951. 6) 훈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태극무공훈장이 1등급 훈장이었던 까닭에 사단, 군단, 육군본부, 국방부, 국무회의까지 단계별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장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판단한다.

제2절 6월 25일 전투에서 세운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

1. '심일은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갔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심일 중위가 육탄 돌격한 것이 아니라,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일 중위의 전공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육군 군사연구소는 생존자의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대용 장군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위의 문제 제기는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의한 결과이며,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고려할 때, 심일 중위가 적에 대한 공격이 실패한 이후 취한 행동은 '도망'이라기보다는 진지이동 등 급박한 '전술적 필요에 의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심일 중위는 6월 25일 09시 경 모테이벼루에서 적 자주포를 공격한 후 작전계획상 제2진지인 옥산포로 철수하였다. 이는 군사교리 상 진지노출에 따른 적절한 전술적 조치로서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대전차포중대 사수 오봉환 하사는 방어진지에 대해 "57mm 대전차포중대도 1선 전투일 경우에는 38선 바로 뒤 모진교 동쪽에 진지를 점령하고, 2선 전투일 경우는 옥산포 앞 급커브 된 능선이다."라고 증언했다. (오봉환 하사 증언, 1980. 12. 17)

나) 당시 이대용 장군이 위치했던 한계울과 옥산포 사이의 거리(약 1~1.5㎞), 당일 기상조건 (10시 경 비가 그쳐 다소 흐리고 옅은 안개 상태) 및 지형지물(5번 도로 기준 동쪽은 논, 서쪽은 뽕밭)등을 고려할 때 옥산포에서 전개되는 상황의 육안 식별이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이는 모테이벼루 전투 후 옥산포로 철수하는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투 당일 기상조건 : 오전 10시 경 비가 그쳐 다소 흐리고 옅은 안개 상태임
- 현지 지형지물 : 5번 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은 논, 서쪽은 뽕밭이었음.

다) 6월 25일 아침에 심일 중위를 목격한 16포병대대 A 포대장 김장근 중위는 당시 심일 중위가 뽕나무 밭에 대전차포를 방열했다고 증언하였다. (김장근 증언, 2016. 7. 18)

2)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 1문을 유기한 것은 대전차포 다리가 진흙 속에 깊이 빠져 이동시킬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이는 당시 지휘관 및 참전자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 참전자 증언 >

· 심일 중위가 지휘하는 57mm 대전차포 소대는 SU-76 자주포를 파괴한 지점에서 116고지의 아군철수를 엄호 중이었다. 적이 300~400m까지 접근했을 때 옥산포로 철수했으나 57mm 대전차포 1문은 포다리가 진흙 속에 깊이 빠져 그곳에 유기한 채 철수하였다(임부택 중령 회고록, 1996)

· 제7연대는 대전차포 4문을 장비하고 있는 중 2문은 고장, 2문만 갖고 옥산포로 출동했다. 옥산포에서 전차와 대항하다가 철수 중 현 제201연대 주둔지에서 1문이 진흙에 빠져 1문만 갖고 소양교 이남으로 철수했다(안태석 소위 증언, 1980. 10. 18~19)

2. '심일 중위가 육탄돌격으로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것은 허구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심일 중위가 육탄돌격이 아니라 도망을 갔다."라고 주장하였고, 육군 군사연구소도 "심일의 육탄돌격이나 대전차포 사격을 통한 적 자주포 파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2) 육군 군사연구소는 춘천전투에 투입된 자주포는 SU-76 중 포탑이 없고 내부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이를 파괴하기 위해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집어넣어 파괴했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가 파괴된 것은 피아 기록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적 자주포에 대한 아군 대전차포 부대원의 육탄돌격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참전자의 증언, 美 군사고문단의 문서 등에서 확인된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공적확인위원회는 6·25전쟁 초기 북한군이 사용한 SU-76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를 통해서 러시아연방군 군사학술연구소에 자문을 요청하였다.(2016. 11. 23.) 그 결과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전투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이 제작한 SU-76 자주포를 투입한 사실과, 유엔군이 6·25전쟁 초기에 노획 또는 파괴한 자주포가 동일한 종류임을 사진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공적확인위원회 확인 결과, 북한군이 춘천과 홍천 방면으로 투입한 자주포는 포탑을 장착한 유형이며, 전차와 유사한 모습이었다.

<美 제1해병사단 기록 중 발견된 파괴되어 방치된 SU-76 자주포 사진(1951년 4월)>[26]

사 진	설 명
	'The Battered Enemy Self-Propelled 76mm Gun was Destroyed North of Chunchon' (춘천 북방에 파괴되어 버려진 적 76mm 자주포)
	'A knocked out enemy self propelled 76mm gun lays on its side north of Chunchon' (춘천 북방에 전복되어 있는 적 76mm 자주포)
	'An enemy armored car lies destroyed north of Chunchon' (춘천 북쪽에 파괴되어 버려진 적 장갑차)

26) RG 127, 1st Marine Division Photographic Supplement, Apr. 1951, NARA

3) 옥산포 전투 당시 심일 중위를 비롯한 제7연대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원은 57mm 대전차포로 북한군 자주포의 궤도를 공격하여 기동을 멈추게 한 이후, 적 자주포의 해치를 열고 수류탄과 휘발유병을 투척하여 파괴하였다. 이들의 이와 같은 대전차 공격과 활약은 참전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전자 증언 >

· 그것이 적의 전차에 마저도 끄떡끄떡하면서 오고했단 말이야. 결국은 미리 준비한 병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육박했지. 뒤에서 불을 지른 것이지. 심 소위가 휘발유병을 가지고 했지. (임부택 중령 증언, 1964. 10. 30)

· 심 중위는 대전차포를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욕까지 했는데 조금 있으니 길 옆 풀밭으로 기어 나와 해치를 연 전차는 모조리 수류탄을 던져 파괴시켰다. (송인규 중위 증언, 1980. 12. 18)

· 57mm 대전차포는 기다렸다는 듯이 좌측 카타필터(궤도)를 명중시켜 전차가 좌로 비스듬히 정지되었다. (안태석 소위 증언, 1980. 10. 18~19)

· 심일 소위가 57mm 대전차포를 숲 속에 은폐시켜놓고, 적 탱크를 최대로 유인 끌어들여 전차 캐터빌라에 사격 전차 2대를 파괴시켰다(이원우 중사 증언, 1980. 10. 15)

· 춘천에서 파괴된 자주포를 보았는데, 탱크 모형 위에 포를 올린 것으로 뚜껑이 있었으나, 뚜껑이 튼튼하지 않았다. (김운한 소위 증언, 2016. 12. 5)

< 개전 초기 국군의 적 전차 파괴방법 > (정점봉 대위 증언, 1980. 9. 20)

개전 초기 국군이 적 전차 및 자주포에 대적할 수 있는 대전차무기는 대대에 배치된 2.36인치 대전차로케트와 보병 연대의 대전차포중대가 보유한 57mm 대전차포가 전부로써, 실전에서 북한군 T-34 전차나 SU-76 자주포를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국군은 북한군 기갑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구 일본군이 운용했던 육탄공격을 선택하였으며, 공격무기로 수류탄 2발과 안전핀을 제거한 60mm·81mm 박격포탄, 그리고 휘발유 등을 휴대하였다.

공격방법은 첫째, 2.36인치 로케트포나 57mm 대전차포로 전차나 자주포의 궤도(캐터필러)를 타격하여 기동불능 상태로 만든 후 해치를 열고 수류탄, 박격포탄, 휘발유 등을 집어넣어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궤도가 파괴되더라도 수리 또는 교체(소요시간 3~4시간)를 통해 정상작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둘째는 이동하는 적 전차나 자주포에 직접 뛰어들어 해치를 열고 공격하는 방법으로서, 홍천 말고개 전투와 문산 전투, 옹진지구 전투 등 개전 초기에 운용하여 성공을 거둔 공격방법이었다.

제3절 6월 26일 전투에서 세운 공적에 대한 조작 의혹

1. '6월 26일 소양교에서 전투가 없었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1950년 6월 26일 10시 경 옥산포 지역에 대한 7연대 1대대의 역습 공격으로 북한군이 북쪽으로 퇴각하였으며, 남쪽으로 진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북한군이 6월 26일 야간에 소양교 지역으로 진출하여 다음날인 6월 27일에 춘천에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는 6월 26일 오전 10시 경에 소양교 지역에서는 전투가 없었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전투를 근거로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美 은성무공훈장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이 같은 이대용 장군의 문제 제기는 피아의 공식 기록문서, 다른 참전자의 증언 등과 상치되는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심일 중위가 북한군 자주포 3대를 파괴한 시기에 소양강변 일대의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국군 제6사단은 1950년 6월 26일 소양강교를 중심으로 한 소양강변 일대에서 자주포와 각종 화포를 앞세운 북한군 제2사단(제6연대, 제4연대)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교전을 전개한 사실이 피아의 공식 기록문서와 다수 참전자의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 국군 제6사단 <전투상보> 기록과 참전자 증언에 따르면, 6월 26일 새벽 3시 경부터 소양강을 도하하기 위한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이날 오전에 북한군의 강력한 도하공격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국군 제6사단 전투상보 (1950. 6. 26) >

· 03:00 적은 아 제1대대 진지 우두산 지구에 압력을 강력히 가하며 그 일부는 (CS880-950) 방면으로 우회하여 03:50 격렬 교전이 전개됨

· 05:00 (CT900-009), (CT910-005)를 연하는 선으로부터 적 1개 연대가 침입하였음. 제1대대는 옥산포로부터 남하하는 적을 극렬 저지하며 소양강을 도하하여 지시된 진지에 진입. 정면에 적은 04:00부터 소양강 하천선에 육박하여 오며, … 11:00부터 적은 강력히 도하를 시도, 아 진전에 근박하여 (CS887-942) 교두보에 집중 공격을 가하여 왔음

· 10:00 제19연대의 주력이 근화동 방면의 소양강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던 중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함

· 11:00~13:00 북한군은 전 화력의 지원 하에 소양교를 집중 공격하면서 소양강 도하를 시도, 소양교 부근의 국군 제7연대와 근화동 방면의 제19연대가 격전함

<참전자 증언>

· 6월 26일 오전 8시 경부터 적 보병이 출현하였으며, 12시 경에는 적 전차 2대가 소양교 북방에 나타났다. (16포병대대장 김성 소령, 1986. 5. 24).

· 6. 26. 12:00경 포연이 자욱한데 적 탱크 2대가 소양강 다리로 접근, 2문 중 1문 FQ와 1문 WP사격 WP포탑에 명중, 포수들과 경호보병 분산 5분 후 적 전차 돌아갔다(16포병대대 C포대장 정오경 대위, 1986. 5. 24).

<라주바예프 보고서 (1950. 6. 26)>

· 작전계획에 따라 개전 첫날('50. 6. 25) 소양강 도하에 실패한 북한군 제2사단은 6월 26일 06시에 다수의 화포와 8문의 자주포를 직접조준사격 위치에 배치해 포병 공격 준비사격을 가하면서 춘천 공격을 재개, 6시간 동안 교전을 전개하였음.

· 08시 경 소양강 도하를 시도한 북한군 선두부대가 교두보를 확보한 후 국군을 포위하기 위해 춘천을 동서로 우회 공격하였으나, 보병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춘천 점령에 실패하였음.

나)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7]와 국군의 무선통신을 감청한 자료인 <무르찐 보고서>[28] 등 공산군측 자료 역시 6월 26일 오전에 북한군이 강력한 화력 지원 하에 총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더불어 공격을 받은 국군 제6사단의 급박한 대응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무르찐 보고서 (1950. 6. 26)>

· 08:50 (발신 ?) 적이 춘천 방향으로 집결하고자 한다. 사단장님은 26일 10시에 춘천의 보조지휘소를 떠나기로 결심하셨다.

· 11:00 (발신 제6사단 작전참모) 춘천 선을 따라 병력 선이 형성되고 있고 명령 없이 퇴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 혹독하게 벌해야 한다.

· 12:00 (발신 : "100") 구체적으로 철수 지점을 결정해 달라. 현재 사단은 연대본부 지역에서 방어 위치에 있다. 19:50에 다시 보고할 것이다.

· ? (발신 : 제19연대장) 보고합니다. 적 탱크가 쳐들어 왔습니다. 당 지점에서 사격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사단은 철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포병은 통신이 두절되어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27)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는 1950년 11월부터 1953년 9월까지 소련군사고문단장 겸 무관, 북한주재 소련대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유 서류, 참전자들의 관찰 등을 기초로 작성하여 소련군 총참모장(슈테멘코)에게 보고한 것임.

28)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소련고문단은 38도선 접경지역에서 국군의 무선통신 내용을 감청하여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무르찐(Murzin) 중위의 이름을 붙여 일명 '무르찐 보고서'라 칭함. 러시아어로 작성된 이 문서는 1950년 10월 4일 북진과정에서 노획, 美 극동군사령부 ATIS(영어번역통역부: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에서 영문으로 번역하였음.

<북한군 참전자 기록>

- 6월 26일 보병, 포병과 합동하여 아침 9시부터 춘천을 향하여 공격하였다. (“북한군 제262군부대 제3중대 1소대장 박연히의 훈장 수여장”, <로동신문> 1950년 8월 7일자)
- 북한군 제2사단은 오늘(6월 26일)도 아침부터 국군 제6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소양강 북쪽 들판에서 화력과 기동력이 우세한 인민군이 국군을 겨우 강남으로 밀어 버렸으나, 인민군은 소양강에서 정지했다. (인민군 공병장교 출신 주영복 회고)
- 북한군 제6연대는 방어하고 있던 국군으로부터 강력한 포격에 직면하였으며, 6월 26일 오전 필사적인 전투를 전개(by the morning of 26 June was engaged in a desperate battle)하였다. (“포로심문조서”, GHQ, FEC, Interrogation Report, Issue no. 71, 1951.1.20.)

3) 이대용 장군의 주장대로 6월 26일 10시 경 자신이 중대원을 지휘하여 소양교 북방 7㎞ 지점인 123고지에서 옥산포 방면으로 역습 전투 중이었다면, 그는 거의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고 있던 소양교 일대의 교전 상황은 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투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투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추정에 불과하다.

2.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는 신뢰성이 낮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과 육군 군사연구소는 6월 26일 소양교 전투가 없었으므로 심일의 공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대용 장군은 6월 26일 10시 경에 7연대 1대대가 옥산포 방면으로 실시한 역습의 성공으로 인해 북한군은 옥산포 북쪽으로 후퇴한 상황이고, 그 남쪽에서는 전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양교에서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는 신뢰할 만한 사료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의 진위성을 검토한 美 육군 관련 부서는 해당 서류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추천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대용 장군의 증언은 67년 전에 기록된 문서의 내용을 뒤집거나 부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공적확인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피아의 공식 기록문서에서 확인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및 부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 소양교 전투에서 심일 중위가 북한군 SU-76 자주포 3대를 파괴하고, 그 공로로 美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공적확인위원회 활동 중 수집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EUSAK, “Recommendation for Award - Heroism, 1 Sep. 1950/美 제8군사령부, “훈장추천-영웅적 행위”, 1950. 9. 1)에 의해 입증되었다.

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는 춘천전투 당시 국군 제6사단에 배치된 美 군사고문단의 선임고문관인 토마스 맥페일(Thomas D. McPhail) 중령[29]이 1950년 9월 1일 작성하여 美 제8군사령관에게 제출하였다.

나) 1950년 6월 25일 국군 제6사단에는 선임고문관 맥페일 중령을 비롯해 총 17명(장교 9명, 사병 8명)의 美 군사고문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단사령부와 각 연대 및 포병대대에서 지휘관의 조언자로 활동하였다. 심일 중위가 속한 제7연대에는 美 고문관 6명(장교 3명, 사병 3명)이 배치되어 있었다.[30]

다) 제6사단 선임고문관 맥페일 중령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3일 전 춘천지역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서울의 美 군사고문단 사령부를 방문하였으며,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사단에 배속된 美 선임고문관 맥페일 중령이 파악한 북한군의 적정에 따라 장병의 휴가 및 외출을 제한하고 전투태세를 유지하였다.[31]

라) 맥페일 중령은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 소식을 듣고 오전에 춘천의 사단지휘소로 복귀하여 사단장의 작전지휘를 보좌하고 제6사단 소속 고문관들을 통제하는 등 선임고문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맥페일 중령의 춘천 복귀에 대해서 제6사단장 김종오 대령은 “그가 서울에서 춘천으로 복귀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김종오 대령 증언, 1965. 3. 4~6) 이때 사령부와 각 연대 및 포병대대에 배치된 고문관들도 지휘체계를 유지한 채 자신들의 위치에서 한국군 지휘관들과 함께 행동했다.[32]

29) 제6사단 선임고문관인 맥페일(1910. 11. 2~1990. 4. 6)은 제2차 세계대전 시 美 제81보병사단 소속으로 1944년에 은성무공훈장(Headquarters, 81th Infantry Division, General Orders No. 138)을 받았으며, 6·25전쟁 시에는 국군 제6사단 선임고문관을 거쳐 제1군단 선임고문관으로 복무하였다. 이후 그는 니카라과 美 군사고문단장을 역임한 후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30) Office of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1 Jan 1950-30 June 1950", Annex No.Ⅱ, RG554, Entry No.A-1 1355, Box29, NARA.

31) “Thomas D. McPhail to Ridgway”(1965. 4. 15), Ridgway Papers, Box 19,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CMH, U. S. Army, Washington, D. C., 1992, pp. 26.

32) “Thomas D. McPhail to Roy E. Appleman"(1954. 6. 28.), RG319, Entry No. 181,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BKGD-Military Adv. Korea : KMAG Peace & War, Box 2, NARA.

마) 따라서 제6사단 美 선임고문관 맥페일 중령은 6월 25~26일의 전황을 6사단 상황계통과 美 연대고문관들의 보고를 통해 이중으로 파악(double check)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3] 결론적으로 춘천전투 당시 제6사단의 美 선임고문관 맥페일 중령이 작성한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34]

3) 공적확인위원회는 육군 군사연구소가 국내 학자들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주장한 내용, 즉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美 은성무공훈장 관련 서류의 조작 가능성에 대하여 美 육군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다.

가) 美 육군 유산 및 교육센터의 코나드 크래인 박사(Dr. Conard Crane)는 이 서류들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美 공간사에서도 춘천전투에서 적 자주포 7대 정도가 파괴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미국 육군 군사사 연구센터와 미국 육군 인사사령부(The US Army Human Resource Command)의 공훈 담당 부서는 심일 중위에게 수여된 은성무공훈장은 정당한 것이며, 이때 사용된 추천서와 관련 문서는 美 제8군사령부에서 절차에 따라 작성 및 심의된 공식 문서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6·25전쟁 중에 美 육군 장교들이 정식 절차에 의해 작성하여 처리한 공식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대신 67년이나 지난 과거의 사실에 대해 참전자의 증언만으로 이 서류에 기록된 내용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33) 이현수 위원은 맥페일 중령이 작성한 심일 중위의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양식 중 추천자가 피추천자의 행위를 직접 목격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항에 주목하였다. 이 추천서 상에는 맥페일 중령이 심일 중위의 행위를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육군 군사연구소는 그가 목격하지도 않은 것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작성한 추천서이니 신뢰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이현수 위원은 목격하지 않은 것을 정직하게 목격하지 않았다고 표시한 것은 오히려 이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해석하였다. 이현수 위원은 맥페일 중령은 심일 중위의 전투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고문관이나 한국군 조력자 3명으로부터 이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받거나 들었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훈장 추천서를 작성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34) 토마스 맥페일 중령이 심일 중위의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 서명한 날짜에 맡은 보직은 제6사단 수석 고문관이 아니라 제1군단 고문관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맥페일 중령이 서명한 이 추천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맥페일 중령은 6월 25~26일 춘천전투 당시 제6사단의 수석 고문관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심일 중위의 공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맥페일 중령이 특별한 공적이 없는 초급장교인 심일 중위에게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제4절 기타 쟁점 사안

1. 동생의 경찰 입문 시기에 대한 의혹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학병으로 나간 셋째도 생사불명이다. 공비토벌을 했던 경찰인 둘째는 죽을병에 걸렸다. 큰아들(심일)마저 죽었으니 이제 막동이 하나만 남았다.”며 “아들 셋을 잃은 심일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훈장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기록을 확인한 결과, 故 심일 소령의 동생 심민이 경찰에 입문한 시기는 그의 부모가 연대장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진 1951년 1월과 5월보다 훨씬 나중인 1952년 11월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대용 장군 등의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동생 심민의 경찰 입문 시기는 1952년 11월 20일, 즉 심일에게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된 후 1년이 지난 이후이다. 심일의 둘째 동생인 심민은 그의 어머니가 부대를 찾아갔다는 1951년 전반기에 경찰이 아니었다. 심민은 1952년 11월 20일 경찰에 입문하여 1960년 6월 30일에 순직한 사실이 그의 경력증명서(경찰청, 심민 경감 경력증명서, 2016. 8. 29)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들 셋을 잃었다’라고 하소연하는 심일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전공을 조작했다는 내용은 심일의 동생이 경찰에 입문한 시점이 심일의 훈장수여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심일은 보직 해임되어 한직인 포병 연락장교를 맡았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 1문을 유기하여 격노한 중대장으로부터 뺨을 구타당하고 보직 해임되어 한직인 포병 연락장교를 맡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심일 중위가 보직 해임되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보직 해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적확인위원회는 심일 중위가 1950년 10월 25일 이전에는 제6사단 소속이었으며, 동년 10월 27일 이후 제7사단으로 전속된 것을 육군 인사 기록에서 확인하였다.

2) 이대용 장군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제3자의 전언이며, 이는 공식 사료에

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당시 제1중대장 이대용은 6월 25일 오전에 심일 소대가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로 그를 만나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이대용 장군 증위 '심일 공적확인위원회' 증언, 2016. 11. 15) 따라서 심일의 보직에 관한 이대용 장군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6월 25일 옥산포 전투 이후 심일 중위의 보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일반명령과 태극무공훈장 공적약기 등 공식 사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심일 중위의 태극무공훈장 공적약기에는 1950. 6. 25 ~ 10. 25까지의 기간 동안 충주, 음성, 문경, 안계 등의 전투에서 대전차포중대 부관 겸 소대장으로 참전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심일 중위가 옥산포 전투 이후 보직 해임되었다는 주장이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 1951년 10월 6일부 국방부 일반명령에 의하면, 심일 중위는 1950. 6. 25 ~ 10. 25까지 충주, 음성, 고성, 안계 등지에서 제6사단 제7연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심일의 보직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자료이다.(국본 일반명령 제146호, 1951. 10. 6)

나) 1950년 10월 27일 제16포병대대로 전속된 심일은 동년 12월 제16포병대대가 제7사단에 예속됨에 따라 제7사단 제16포병대대에 소속된 사실이 국방부 명령에서 확인되었다.(6사단 특별명령 제35호, 1950. 10. 22; 국방부 일반명령 제247호, 1956. 12. 26)

< 심일 소령 태극무공훈장 공적약기 >

4283년 6월 25일부터 동년 10월 25일에 긍하여 전차를 선두로 한 적군이 춘천 소양강을 도하하려 할 때에 미약한 대전차포이었으나 적(敵) 전차(戰車)를 오마(五碼) 근거리(近距離)까지 근접(近接)케 한 후 자진(自進) 사수(射手)로 이를 격파(擊破)하여 차후 적(敵) 전차부대(戰車部隊)의 침입을 저지하였음. 그후 충주, 음성, 문경, 안계 등지로 전전하여 대전차포중대 부관 겸 소대장으로 각 전투에 다대한 전과를 거두었음.

3. '육탄 5용사는 날조된 것이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 1문을 유기하고 도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심일 중위가 적 자주포를 파괴한 사실을 부정하였다.

2) 육군 군사연구소는 춘천전투 당시 북한군의 자주포가 포탑이 개방되어 있었으므로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넣어 파괴했다는 내용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태극무공훈장부의 '자진 사수로 격파'라는 표현도 육탄공격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육탄 5용사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6·25전쟁 초기 춘천전투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육탄 5용사'는 실제 사실이 과장 혹은 미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적 자주포를 파괴하기 위해 조직한 '특공조'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을 보류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2) '육탄 5용사'에 의한 육탄공격 내용은 『한국전쟁사』(1977)와 『자주포킬러』(1986), 제7사단 역사관, 제102보충대대 위령비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전쟁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육탄 5용사(김기만, 박태갑, 홍일영, 조군칠, 심규호)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다.

가) 『한국전쟁사』와 『자주포킬러』에 기술되어 있는 특공조에 의한 육탄공격은 참전자들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육탄 5용사의 실명은 병적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심일 중위의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 조력자로 명시된 대전차포대원 3명(박철원, 김순화, 윤봉국)은 제6사단 병적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들이 육탄 5용사로 미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개전 초기 국군 각 부대는 북한군 기갑부대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육탄 돌격조'나 '대전차 특공조'를 편성하여 육탄 공격을 실시하였다. 홍천 말고개, 문산지구 전투, 옹진지구 전투에서와 같이 춘천전투에서도 이러한 육탄공격을 실시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육탄 5용사에 관한 내용은 1970년대 이후 역사서술 과정에서 미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다만, 6·25전쟁 초기에 국군 각 부대가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저지하는 전술을 관찰하던 美 군사고문관들은 한국군 부대가 적 전차에 대하여 '육탄 돌격대(Body Contact Squad)'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美 군사고문관들은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대전차지뢰를 활용하여 적 기갑부대의 공격을 저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한국군 지휘관 및 지휘자들은 대전차 지뢰보다 소위 '육탄 돌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 기갑부대의 진격을 저지했다고 관찰하였다.[35]

4. '소양교 전투에서 심일의 공적을 목격했다는 인물들은 군적(軍籍)에 없었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육군 군사연구소는 "美 은성무공훈장에 기록된 심일 중위의 전공을 목격했다는 국군 제6사단 소속 조력자 3인은 가상의 인물이며, 군적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35) Major Richard I Crawford, C "Note on Korea, 25 June 1950 - 5 December 1950," RG 319, Military History Section, Robert Sawyer's Book -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 in Peace and War," Box 726, NA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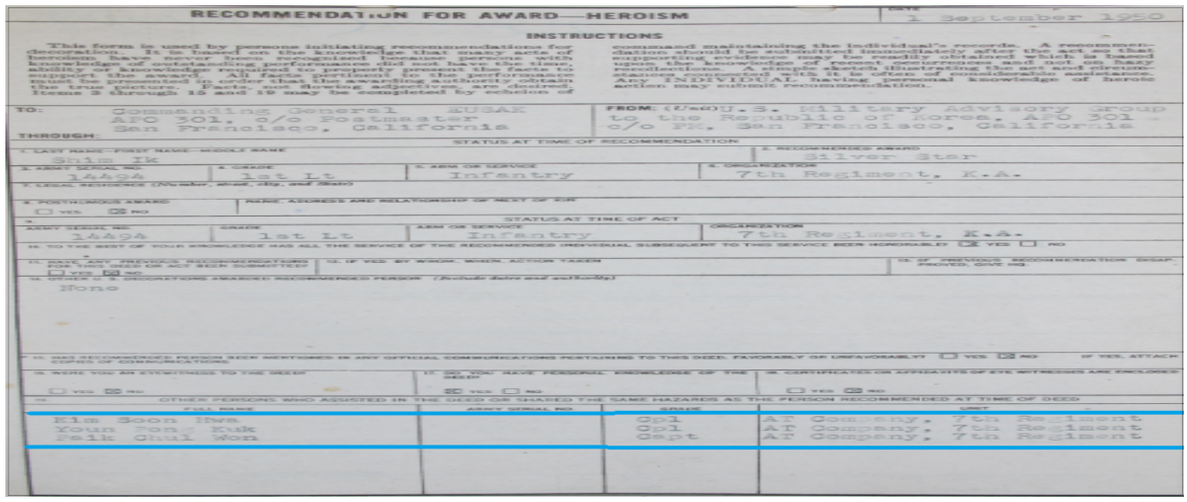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 확인 결과, 심일 중위의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에 나오는 조력자 3인은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 본 위원회는 이들을 제6사단 병적기록에서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가) 심일 중위의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 공적 부분에 명기된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했던 대전차포 대원(3명)은 백철원(제1소대장 박철원으로 추정) 대위, 김순화 이등중사, 윤봉국 이병으로서 제6사단 병적기록에서 실존 인물로 확인되었다. (박철원 대위, 김순화 이등중사, 윤봉국 이병 병적자료)

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전투 당시 함께 있었다는 인물은 군적에 없었다."고 주장한 조선일보 기사(2016. 12. 2, 최보식 칼럼)는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일 중위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의 조력자 (1950. 9. 1)>


RECOMMENDATION FOR AWARD—HEROISM

1 September 1950

INSTRUCTIONS

This form is used by persons initiating recommendations for decoration. It is based on the knowledge that many acts of heroism have never been recognized because persons with knowledge of outstanding performance did not have the time, ability or knowledge required to properly present the facts to support the award. All facts pertinent to the performance must be presented in order that the awarding authority obtain the true picture. Facts, not flowing adjectives, are desired. Items 3 through 15 and 19 may be completed by echelon of command maintaining the individual's records. A recommendation should be submitted immediately after the act so that supporting evidence may be readily obtained which is based upon the knowledge of recent occurrences and not on hazy recollections. A simple sketch illustrating the act and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it is often of considerable assistance. Any INDIVIDUAL having personal knowledge of heroic action may submit recommendation.

TO: Commanding General EUSAK APO 301, c/o Postmaster San Francisco, California

FROM: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PO 301 c/o PM, San Francisco, California

THROUGH:

STATUS AT TIME OF RECOMMENDATION

1. LAST NAME—FIRST NAME—MIDDLE NAME: Shim Ik
2. RECOMMENDED AWARD: Silver Star
3. ARMY SERIAL NO.: 14494
4. GRADE: 1st Lt
5. ARM OR SERVICE: Infantry
6. ORGANIZATION: 7th Regiment, K.A.
7. LEGAL RESIDENCE (Number, street, city, and State)
8. POSTHUMOUS AWARD: ☐ YES ☒ NO
9. NAME, ADDRESS AND RELATIONSHIP OF NEXT OF KIN

STATUS AT TIME OF ACT

10. ARMY SERIAL NO.: 14494
11. GRADE: 1st Lt
12. ARM OR SERVICE: Infantry
13. ORGANIZATION: 7th Regiment, K.A.

14.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HAS ALL THE SERVICE OF THE RECOMMENDED INDIVIDUAL SUBSEQUENT TO THIS SERVICE BEEN HONORABLE? ☒ YES ☐ NO

15. HAVE ANY PREVIOUS RECOMMENDATIONS FOR THIS DEED OR ACT BEEN SUBMITTED? ☐ YES ☒ NO
16. IF YES BY WHOM, WHEN, ACTION TAKEN
17. IF PREVIOUS RECOMMENDATION DISAPPROVED, GIVE NO.

18. OTHER DECORATIONS AWARDED RECOMMENDED PERSON (Include dates and authority)

None

19. HAS RECOMMENDED PERSON BEEN MENTIONED IN ANY OFFICIAL COMMUNICATIONS PERTAINING TO THIS DEED, FAVORABLY OR UNFAVORABLY? ☐ YES ☒ NO IF YES, ATTACH COPIES OF COMMUNICATIONS

20. WERE YOU AN EYEWITNESS TO THE DEED? ☐ YES ☒ NO
21. DO YOU HAVE PERSONAL KNOWLEDGE OF THE DEED? ☒ YES ☐ NO
22. CERTIFICATES OR AFFIDAVITS OF EYE WITNESSES ARE ENCLOSED ☐ YES ☒ NO

23. OTHER PERSONS WHO ASSISTED IN THE DEED OR SHARED THE SAME HAZARDS AS THE PERSON RECOMMENDED AT TIME OF DEED

FULL NAME	ARMY SERIAL NO.	GRADE	UNIT
Kim Soon Hwa		Cpl	AT Company, 7th Regiment
Youn Tong Kuk		Cpl	AT Company, 7th Regiment
Paik Chul Won		Capt	AT Company, 7th Regiment

5. '심일은 묘향산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하다 숨졌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이대용 장군은 안태석의 증언을 인용하여 "심일 중위가 묘향산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하려던 중 전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전사 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2) 육군 군사연구소에서도 심일의 전사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록이나 증언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일부 생존자는 영월에서의 전사를 부정하였다고 주장했다.

가) 육군 군사연구소는 심일의 사망을 확정한 장교 및 병 순보철(1957. 4. 30)을 통해 심일 중위가 '실종 중 전사'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사망을 확실하게 증명할 사람(지휘관이나 동료)이 없었거나 시신 및 군번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묘향산에서 전사했다는 이대용 장군의 주장을 방증한다며, 전사 장소를 단정할 수 없으나 북한 지역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1) 공적확인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대용 장군의 주장은 전언(傳言) 및 추정 수준이라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가용한 사료를 고려할 때, 故 심일 소령의 전사 장소와 전사 시점에 대해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2) 심일 중위가 묘향산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탈출하려던 중 전사했다는 현장 목격자 안태석은 두 차례 증언(안태석 증언, 1977. 6. 27; 1980. 1. 18~19)하였으나, 심일의 전사 여부 및 전사 시점에 관한 진술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태석은 1차 증언에서 심일 중위와 함께 초산까지 북진하였으나, 자신은 포로가 되어 탈출하였기 때문에 심일의 소식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 증언에서 심일 중위가 1950년 11월 6일 중공군에 포위되어 탈출하던 중 하퇴부에 총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고 말했는데(안태석 증언, 1980. 1. 18~19), 이처럼 안태석의 두 차례 증언 내용은 차이가 있다.

<안태석 소위(당시 제7연대 2대대 제8중대 화기소대장)>

콧수염을 기르고 남자답고 활발하여 영향력이 컸으며, 8기(7연대) 회장을 지냈다. 그와는 북진 시 초산까지 같이 갔다가 그곳에서 포위되어 나는 포로됐다가 탈출하고 그는 그 후에 소식을 모른다. (1977. 6. 27 증언)

11월 6일 04시 막 도하하려고 할 때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다. 그때 본명은 심일 소위(춘천전투시 전차파괴 소대장)를 만나 민가에서 식사 중 중공군 2명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2km쯤 도망했을 때 심일 소위가 하퇴부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심 소위는 "나는 더 살 수 없으므로 너는 빨리 도주 복수를 해달라."하고 숨을 거두었다. (1980. 1. 18~19 증언)

3) 심일은 1950년 10월 27일부로 제16포병대대로 전속되었다. 그런데 12월 13일부로 제16포병대대가 제7사단에 배속됨에 따라, 심일도 16포병대대와 함께 제7사단으로 전속되었다. 이는 최근 발굴된 1956년 10월 29일 故 심일 대위에게 수여된 방위포장 명령철에서 확인한 것인데, 이 명령철은 그의 소속 부대를 제7사단 16포병대대로 명기하였다.(훈기번호 제2335; 국방부 일반명령 제247호) 따라서 1950년 11월 6일 묘향산에서 전사했다는 증언보다는 전사 일자인 1951년 1월 26일에는 제7사단 수색중대장으로서 영월부근 전투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가) 현재 육군 제7사단 역사실에는 심일 중위를 수색중대장으로 기록, 전시하고 있으며, 제7사단 제8연대에 복무했던 최득수 선임하사는 심일 중위가 수색중대장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일화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만약 심일 중위가 제7사단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7사단 출신 부사관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증언을 통해 그의 제7사단 근무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 최득수 일등상사 (제7사단 제8연대 2대대 선임하사, 2016. 8.29~30.) >

심일 수색중대장은 수색중대원이 잠복해서 보초를 서다가 졸면 그들을 구타까지 하면서 기합을 주었다. 어느 날 초병들의 고함소리를 들었으나, 수색중대장이 기합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서 내버려두었는데, 이튿날 인민군이 초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사단사령부에서 는 수색중대원을 구타하지 않도록 지시함에 따라 심일 중대장을 기억하고 있음

나) 심일 중위의 마지막 직책과 전사 장소는 그의 병적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나, 그가 제7사단으로 전속된 1950년 12월 중순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아 영월지구 전투에서 1951년 1월 26일 전사 또는 실종되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36] 따라서 심일 중위의 전사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료 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

6. '북한군이 사용한 SU-76 자주포는 뚜껑이 없다' 는 주장

가. 의혹 제기

1) 육군 군사연구소는 춘천전투에 투입된 SU-76 자주포가 포탑이 없고 내부가 개방되어 있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집어넣어 파괴했다는 일부 증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 공적확인위원회 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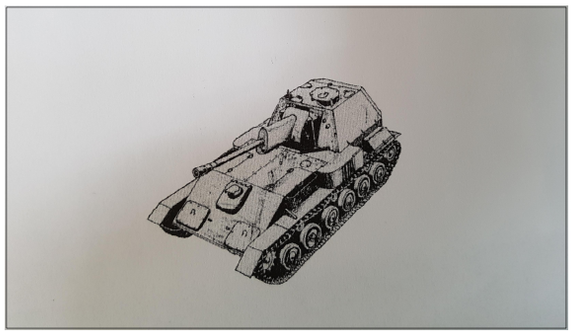
1) 공적확인위원회는 적 자주포의 뚜껑 존재 여부는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을 확인 및 조사, 검증하는 과정 중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적확인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 무기체계, 관련자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북한군이 춘천전투에 투입한 SU-76 자주포는 뚜껑이 있는 형태와 뚜껑이 없는 형태가 동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6·25전쟁 발발 전후 발행된 미군의 정보문서, 노획한 적 자주포 사진 자료, 파괴된 적 자주포 사진 자료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뚜껑을 가지고 있는 자주포와 뚜껑이 없는 자주포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가) 다만, 현재까지 입수된 기록문서와 구술 자료에 의해 6·25전쟁 초기에 북한이 춘천과 홍천 방면으로 투입한 자주포는 뚜껑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적확인위원회가 확보한 6·25전쟁 초기에 미군이 촬영한 적 자주포 사진에는 대부분 뚜껑을 가지고 있었다.

36) 심일의 전사일로 기록된 1951년 1월 26일 리지웨이 美 8군사령관이 적의 제2전선 차단작전 및 위력수색작전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7사단은 1951년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북한군 제2군단과 영월지구 전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사 26명, 실종자 12명, 부상 472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보병 제7사단사령부, 『칠성약사』, 1970, pp. 153-166)

나)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25전쟁 초기 북한군이 사용한 SU-76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사학술연구소에 자문을 요청하였다.(2016. 11. 23.) 이에 대해서 러시아 군사학술연구소 측은 북한군 제2사단이 춘천전투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이 제작한 SU-76 M형 자주포를 투입했다고 답변하였는데, 확인 결과 이는 미군이 노획 또는 파괴한 자주포와 동일한 종류였다.[37]



춘천전투 당시 북한군이 운용한 SU-76 자주포
(출처 : 美 제8군사령부, 정보보고서, 1950. 8. 1-14, 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미군이 파괴한 북한군 SU-76 자주포
(출처 : Life지)

<1950년 말 美 해병대가 함흥에서 탈취한 SU-76 자주포 4대. 뒷면 뚜껑이 명확하게 보인다.> [38]

37) 6·25전쟁 초기 춘천전투에서 북한군이 사용한 SU-76 자주포의 유형(M형, I형)과 뚜껑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공적확인위원회 내부에서도 일부 혼선이 있었다. 자주포 본체 상단 뚜껑의 유무(有無)에 따라 'M형'과 'I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한데, 그 이유는 'M형'과 'I형' 모두 개발 시기와 사용 지역에 따라 '뚜껑을 가지고 있는 모델'과 '뚜껑이 없는 모델'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다만, 'I형'은 포탑 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군이 한반도에서 촬영한 자주포의 사진과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형태의 자주포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춘천전투에서 북한군이 사용한 자주포의 유형이 M형인지 혹은 I형인지를 밝히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당시 작성된 기록문서와 관련자 증언을 통해 뚜껑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Uzal. W. Ent, *Fighting on the Brink : Defense of the Pusan Perimeter* (Paducah, KY : Turner Publishing Company, 1996), pp. 182 ; А. Г. СолЯикин et al. Советские Тяжелые САУ 1941-45 ГГ,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Экспринт", 2005, pp. 23-25.

38) Jim Mesko, *Armor in Korea : A Pictorial History* (Carrollton, Tesas : Squadron Signal Publications, INC., 1984), pp. 30.

제5절 소결론

1. 태극무공훈장 수여 결정 과정 중 조작 의혹에 대하여

가. 이대용 장군, 육군 군사연구소, 일부 언론 등은 "① 심일 중위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하여 훈장을 주었다. ② 심일 중위의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훈장을 주었다. ③ 심일 중위는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북한지역에서 숨졌다. ④ 심일 중위의 동생 심민의 경찰 입문 시기와 관련 1951년 5월에 이미 경찰이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나. 공적확인위원회는 심일 중위에 대한 태극무공훈장 수여가 사단, 군단, 육군본부, 국방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사망관련 사실은 단정하기 힘들며, 동생의 경찰 입문시기에 대한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심일 중위가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세운 공적에 대하여

가. 이대용 장군, 육군 군사연구소, 일부 언론 등은 "① 심일 중위가 대전차포 1문을 적에게 넘겨주고 도망갔다. ② 적 자주포를 파괴한 것은 허구다. ③ 보직해임 후 포병연락장교를 맡았다. ④ 육탄 5용사는 날조된 것이다."고 주장하였으나,

나. 공적확인위원회는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적 자주포 3대가 파괴되었음은 피아 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주체는 심일 중위가 지휘한 소대이며, 이를 통해 6월 25일 옥산포 전투에서 심일 중위의 공적을 확인하였다. 심일 중위가 지휘한 소대원이 적 자주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육탄공격을 시도했다는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육탄 5용사는 실제 사실이 과장 혹은 미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심일 중위가 6월 26일 소양강 전투에서 세운 공적에 대하여

가. 이대용 장군, 육군 군사연구소, 일부 언론 등은 "① 소양교 전투가 없었고, 심일 중위의 전공도 없었다. ② 심일 중위와 함께 있었다는 인물들은 군적에 없었다. ③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는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나. 공적확인위원회는 6월 26일 소양교 부근 전투에서 적 자주포 3대가 파괴된 사실은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를 포함한 피아 문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적 자주포를 파괴한 주체는 심일 중위가 지휘한 7연대 대전차포 소대이며, 특히 심일 중위는 본인이 대전차포 사수가 되어 직접 적 자주포 파괴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투에 참가한 참전자 등의 증언에서도 확인하였다.

제4장 결 론

제4장 결 론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2016. 9. 20 ~ 2017. 4. 21)는 6·25전쟁 초기 춘천전투(1950. 6. 25~27)에서 북한군 자주포를 파괴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는 공적을 세웠으며, 이를 근거로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故 심일 소령의 공적 진위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적확인위원회가 확인한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은 '6월 25일 14시 경 옥산포 전투에서 7연대 대전차포 소대를 지휘하여 적 자주포 3대를 돈좌시킨 후 이들에 접근하여 휘발유병과 수류탄 등으로 공격하여 파괴한 것과, 6월 26일 10시 경에 소양교 전투에서 7연대 대전차포 소대를 지휘하던 중 직접 대전차포로 적 자주포 3대를 격파한 것'이다.

공적확인위원회는 故 심일 소령 부대원과 인접 부대 동료, 작전 및 지휘 계통상의 상관 등의 증언, 美 은성무공훈장 추천서와 태극무공훈장 공적서, 그리고 각종 문서와 사진 등을 발굴, 수집, 검토하고, 특히 상훈기록의 신뢰성까지 문의, 점검하여 그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위원회는 또한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과 소련군 고문단장의 전황보고서, 증언, 상훈기록 등도 발굴, 수집, 검토하여 이를 참조함으로써 故 심일 소령의 전공을 재삼 확인했다.

한국군 제6사단이 춘천전투에서 수행한 성공적인 방어작전은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초기 작전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북한군은 제2군단장을 강등, 교체하고(김광협 → 김무정), 춘천 조기 점령에 실패한 제2사단장(이청송 → 최현)과 제12사단장(전우 → 최충국)을 경질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인시켜 주었다. 성공적인 춘천 방어전투는 SU-76 자주포를 앞세우고 춘천을 신속하게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진격을 6월 25일 저녁까지 옥산포에서 저지하여 소양강 북방의 포탄을 남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6월 27일 아침까지 북한군의 소양교 통과를 저지한 것은 심일 중위가 지휘한 대전차포 소대원들과 소양교 북방 개활지를 통과하는 적 보병을 포탄으로 저지한 제16포병대대의 역할에 기인한 바가 매우 컸다.

소양교 전투에서 드러난 개인의 용맹성과 행적으로 미군은 심일 중위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하였고, 한국군은 춘천을 포함하여 충주, 음성, 문경, 안계 전투에서 거둔 전과를 종합하여 故 심일 소령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이와 같이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는 각종 피아 기록문서, 사실에 근접한 피아 증언, 사진 자료, 상훈 기록 등을 발굴, 수집, 검토하고, 이들 자료의 신뢰성까지 검증함으로써 故 심일 소령의 공적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다.

故 심일 소령 공적확인위원회

2017. 4. 20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온 창 일	온창일	
위원	허 남 성	허남성	
	이 현 수	이현수	
	김 광 수	김광수	
	최 홍 석	최홍석	
	노 영 구	노영구	
	나 종 남	나종남	